

NIKOM

언론보도집 2018 - 2020

NIKOM 언론보도집 2018 - 2020

한국헌의학회


한국헌의학회


언론보도집

언론보도집

2018-2020

언론 보도		
2017	11. 24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취임
	12. 01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12. 29	한 의사 미국·유럽 진출 가이드북 발간
2018	01. 11	물골 전통의학 기술연구원 연수
	02. 21	우울, 지황, 백출 등 종자분양
	02. 28	기관 사랑의 헌혈운동
	03. 05	한 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체험 교육
	03. 07	이기현 팀장, SCI(E)급 저널 특별판 발간
	03. 14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홈페이지 오픈
	03. 29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사업 우수성과로 선정
	04. 04	이응세 원장 한의약 특화사업 육성 위한 봉화군 방문
	04. 10	한 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
	04. 23	재단 미래비전 선포 노사혁신성장 다짐대회
	04. 24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05. 1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업무협약 체결
	05. 23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06. 18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개최
	06. 20	한 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개최
	07. 02	국내 최대규모의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개최
	07. 04	한방엑스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07. 18	남북 교류 대비한 한 의약 역할강화 방안 정책포럼 개최
	07. 26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업무협약식
	08. 02	전연물 물질은행 한 의약 산업 발전 크게 기여 보도자료
	08. 03	가천대 한 의대생 진로체험 행사
	08. 06	경신과학고 R&E 활동 체험 수업 실시
	08. 08	한약재 섭취 장내미생물 분포에 영향 미쳐, 맞춤형 한약처방 가능
	08. 08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 접수
	08. 13	대만 위생복지부 공무원 일행, 한약진흥재단 방문
	08. 24	아리랑국제방송 협약식
	09. 04	대구시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
	09. 10	아산시농민대학 교육생 한약자원개발본부 현장견학
	09. 11	대구경북첨단재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9. 11	주요보직자 정기인사 단행
	09. 13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 개최 보도자료
	10. 22	한약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자 임상시험 IND 승인
	10. 28	한 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한약산업부분 성과확산회 개최
	11. 08	국립안센터 한약유효물질 발굴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11. 09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베트남 연수
	11. 12	한 의임상정보화사업 중정회
	11. 16	한 의임상정보화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11. 19	대한예방한의학회 공동 주제 학술대회 개최
	11. 21	차세대유전자분석법 활용 한약재(지유) 기원감별 기술 개발
	11. 22	한방바이오소재은행 한 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11. 28	제7차 한 의약보건정책 포럼 개최
	11. 29	토종 한약자원 연구 보전을 위한 종자 기탁
	12. 04	대한한 의사협회 시도 지부장 협의회 기관방문
	12. 06	제7차 한 의약보건정책 포럼 개최
	12. 11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기공식
	12. 14	비임상연구시설(GLP) 기공식 개최
	12. 17	사랑의 긴장 나눔 봉사활동 수행
	12. 31	송년 단체인력으로 한해 마무리
	12. 31	체험형 청년 인턴사원 수료식 개최
2019	03. 04	삼백초의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효과 밝혀내
	03. 05	12종 기원 한약재 종자분양
	03. 11	제8차 한 의약보건정책포럼
	03. 15	제8차 한 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03. 21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 실시
	03. 22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강연 개최
	03. 29	현초의 향산화 및 관절염, 위염에 효과 입증
	04. 02	한 의약 세계화에 앞장서다
	04. 25	홍콩 최대 중 의약그룹 류마티스 협회(MOA) 체결
	04. 29	한약재 재배 전문가 과정 개최
	05. 07	공동보건한 의사 명예기자단 발대식
	05. 20	제2회 한 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과정 성황리 개최
	05. 27	한 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 단계별 공개
	06. 12	한국한 의약진흥원 출범 개최
	06. 25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 발표상 수상
	07. 08	한 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 브랜드 개발 공모전 개최
	07. 09	전통의약산업대전 및 국제컨퍼런스
	07. 15	보건복지부&한국한 의약진흥원, 원외탕전실 인증
	08. 14	경북지역 청년 귀농인 대상 맞춤형 한약재 재배 교육 실시

2017	09. 11	한 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시상식 개최
	09. 24	보건복지부&한국한 의약진흥원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 인증탕전실 공표
	09. 26	국립안센터 공동세미나 개최
	10. 02	제4회 한 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 개최
	10. 11	제2회 한 의약 건강보험 교육 개최
	10.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한 의약진흥원 현장시찰
	10. 25	제3차 한 의약 중흥을 위한 미래 기획 포럼 개최
	10. 29	국회 대토론회 개최
	11. 06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준공
	11. 15	한약제제생산센터(GMP) 준공
	11. 19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설명회 개최
	11. 21	한 의약소재은행 ISO9001:2015 인증 획득
	11. 25	토종한 의약자원 산업화전략 심포지엄 개최
	11. 2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11. 29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12. 03	제4차 한 의약 미래 기획 포럼 개최
	12. 03	러시아 의사·의대생, 한 의약 정규 교육 받는다
	12. 11	한 의약 지식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 공청회
2020	01. 17	지역 고교생 대상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 나서
	02. 04	라오스 전통의학연구소 연구원 교육
	02. 05	'제10차 한 의약 보건정책포럼' 개최
	02. 18	라오스 보건부 연구개발본부장 한 의약 첨단기술이 라오스 천연 약재와 접목하면 큰 결실 거둘 것
	02. 27	우수 한약재 분양 및 재배 교육
	03. 24	'2020년도 임상중재' 발굴 연구 지원 사업' 공모
	03. 30	2차 우수 한약재 종자 보급
	04. 01	한약재 용아초, 위염 개선 및 예방 효과 입증
	04. 03	'짜림은 한약' 등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소비 꾸준히 증가
	04. 06	결명자·골다공증 억제효과 뛰어난
	05. 07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
	05. 14	한 의약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발대식 가져
	05. 25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심소음' 안전성 확인
	05. 27	경산공설시장·정남진장충돌요시장 활성화에 앞장
	06. 11	출범 1주년 기념식 개최
	06. 30	복지부 '한 의약 세계화 사업 비대면으로 추진'...온라인 홍보관 개설
	07. 22	맥문동 압록제 개능 염기서열 완전 해독
	08. 26	산업용 헬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09. 18	2020 블로그 기자단 모집
	09. 22	'NCKM 생생하니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09. 23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09. 23	한약제제생산센터 'GMP 인증'
	09. 24	2020년 한약재 재배교육 실시
	09. 25	한약비임상시험센터 GLP 인증 획득
	10. 05	한방의료·한약소비실태조사 연말까지 실시
	10. 06	제1회 한 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10. 14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상 수상
	10. 23	풍도대국의 항암제 부작용 개선 효과 입증
	10. 27	결명자 위염 예방 효능 입증
	11. 02	제1회 한 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 개최
	11. 03	한약제제 러시아 진출 길을 열다
	11. 10	외국인 대상 한 의약 온라인 교육 실시
원장 인터뷰		
2018	01. 01	민족의학신문 신년사
	04. 01	매일경제 월간 <럭스맨> 인터뷰
	06. 17	EBS초대석 인터뷰
	09. 03	아리랑TV 하트투트 토크쇼 인터뷰
	10. 28	세계일보 전통의학은 훌륭한 미래 먹거리
	12. 14	한 의신문 한 의약산업화 꽃을 피워
2019	01. 23	경향신문 한 의약 근거확립과 국익 창출
	02. 11	머니투데이 더리더 한 의학이 의학의 미래
	04. 05	BBS가 만난 사람
	06. 11	약업신문 한 의 한약 과학화 추진으로
	06. 12	KBS뉴스 한 의약 중심지 발돋움 기대
	06. 12	TBC뉴스 한 의약 동맹으로 세계시장 노크
	06. 20	민족의학신문 한 의약으로 국한됐던 업무범위 확대 의의
	07. 09	이투데이 한 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과학화·표준화
	07. 18	KTV 뉴스중심 전생애 건강보장
	11. 21	월간인물 한 의약의 과학화
2020	01. 01	민족의학신문 국내 시장 넓어 세계무대로 한 의학 위세 떨칠 원년
	01. 01	한 의신문 한 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07. 02	내일신문 공급자 아닌 국민이 치료
	11. 05	민족의학신문 한 의약산업 진흥 위해 달려온 3년 시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한국경제 이승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취임

보도일자
2017년 11월 24일(금)

한약진흥재단은 제2대 원장에 이승세 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55)가 24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돼 기관의 비전과 철학, 미션을 완수해 세계적인 선도기관이 되자”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자존감을 확보하겠다”며 “중국 일변도의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86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같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상지대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 교수 및 보건복지부와 대한한 의사협회가 러시아에 개소한 유라시아의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기는 3년이다.



오경묵 기자

서울경제 한약진흥재단 2대 원장에 이승세 교수 취임

보도일자
2017년 11월 24일(금)

한약진흥재단 제2대 원장에 이승세 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55)가 24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

이 신임 원장은 이날 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유일의 한의약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자존감을 확보하겠다”며 “중국 일변도의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상지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 교수 및 보건복지부가 러시아에 개소한 유라시아 의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손성락 기자

한국경제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보도일자
2017년 12월 1일(금)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제도다.

한약진흥재단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운영,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시행을 적극 장려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노력해왔다.

이응세 원장은 “가정이 사회의 기본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한약진흥재단은 직원 만족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목 기자

중앙일보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보도일자
2017년 12월 1일(금)

한약진흥재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단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행사 등을 장려하고 있다.



김덕용 기자

쿠키뉴스

한약진흥재단, 한의사 미국·유럽 진출 가이드북 발간

보도일자
2017년 12월 29일(금)

보건복지부 한약진흥재단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8일 한의사 및 한의약 제품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1부 유럽의 일반 및 의료현황, 2부 영국, 3부 독일, 4부 스위스, 5부 프랑스, 6부 이탈리아, 7부 스페인, 8부 몰타로 구성됐다. 한국의 한의사가 유럽에 진출할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진출 관련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 등을 국내 한의사의 입장에서 기술됐다.

함께 발간된 '한의학 미국 수출 가이드북'과 '한의학 유럽 수출 가이드북'에서는 한국의 한의학 제품을 미국 및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접근 방법론이 수록됐다. 관련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포함됐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시장에 철저한 이해와 배경지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한의학 제품의 해외진출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시사오늘

한약진흥재단,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발간

보도일자
2017년 12월 29일(금)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의사 및 한의약 제품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등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총 280여 페이지 분량으로 1부 유럽의 일반 및 의료 현황, 2부 영국, 3부 독일, 4부 스위스, 5부 프랑스, 6부 이탈리아, 7부 스페인, 8부 몰타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의 한의사가 유럽에 진출할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진출 관련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 등을 국내 한의사의 입장에서 기술했다. 또한 함께 발간된 '한의학 미국 수출 가이드북'과 '한의학 유럽 수출 가이드북'에서는 한국의 한의학 제품을 미국 및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접근 방법론으로 관련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미국 및 유럽 수출을 계획 중인 한의학 관련 기업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시장에 철저한 이해와 배경지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한의학 제품의 해외진출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해외 진출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출판할 계기로 향후 한의학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가이드북 3종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 및 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설동훈 기자

경향신문

몽골연구원 연수 진행... 한의학 세계화 발판 마련

보도일자
2018년 1월 11일(목)

한약진흥재단이 몽골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약진흥재단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에서 한약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한약 품질 관리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연구원 3명이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에서 실습연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몽골 연구원들이 받고 있는 주요 연수내용은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분석에 관한 실습교육이다. 한약진흥재단은 몽골 연구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소 품질관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의학 시장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년간 한약 품질관리 체계의 핵심인 국가 실험실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라오스, 2016년 캄보디아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약진흥재단과는 2017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몽골 연구원을 대상으로 공동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몽골의 전문검사기관(GASI) 분석가 트세렌치맥 쑤투 연수생은 “한의학 산업을 대표하는 한약진흥재단에서 연수를 받게 돼 기쁘다”며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의 현장실습 경험이 몽골의 시험실 규정과 지침, 분석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용세 원장은 “이를 계기로 우리 재단은 WPRO 전통의학 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의학 관련 국제적 인프라구축을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센터장 원재희)는 식약처의 한약재 GMP 제조업체 품질관리자 교육을 2년간 진행했으며 영문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등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이번 몽골 연수생들은 다음달 11일까지 7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식약처 생약연구과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다.



백영민 기자

시사오늘

몽골 전통의학 기술연구원 연수교육 실시

보도일자
2018년 1월 12일(금)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용세)은 몽골 전통의학 기술연구원(ITMT)의 에르덴치맥 추룬바타르를 비롯한 연구원 3명이 품질인증센터에서 한약재의 품질 평가를 위한 시험검사 실습 연수를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몽골 연구원의 연수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에서 한약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한약진흥재단은 몽골 연구원들의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 분석을 실습 교육함으로써 한약재 제조업소의 품질관리 업무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학 시장의 세계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몽골 전문검사기관(GASI) 분석가 트세렌치맥 쑤투 연수생은 “한의학 산업을 대표하는 한약진흥재단에서 연수를 받게 되어 기쁘며,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의 현장실습 경험이 몽골의 시험실 규정과 지침, 분석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용세 원장은 “이번 연수교육을 계기로 우리 재단은 WPRO 전통의학 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의학 관련 국제적 인프라구축을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센터장 원재희)는 식약처의 한약재 GMP 제조업체 품질관리자 교육을 2년간 진행한 바 있으며, 영문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등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전문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몽골 연수생들은 다음달 11일까지 7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식약처 생약연구과에서 교육 받을 예정이다.



설동훈 기자

헬스경향

안전한 한약재 종자보급 앞장섭니다

보도일자
2018년 2월 21일(수)

우슬, 지황, 백출 등 11개 기원 한약재 종자 분양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가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종묘 11품목(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지황, 강황, 일당귀, 백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을 유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보급되는 한약재 11품목의 종자·종묘는 유전자분석을 통해 기원이 확인됐으며 발아율이 우수한 종자를 선별해 생산된 것이다. 전체 보급량의 재배 가능면적은 50ha 규모이며 향후 보급품목 및 종자수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까지며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농가에 보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기원이 정확한 한약재 종자보급을 통해 안전한 종자보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산 한약재 생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우슬지황·백출 등 11개 기원 한약재 종자 분양

보도일자
2018년 2월 21일(수)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 3월2일까지 분양신청 접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종묘 11품목을 유상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한약재 11품목(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지황, 강황, 일당귀, 백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의 종자·종묘는 유전자분석을 통해 기원이 확인됐으며, 발아율이 우수한 종자를 선별해 생산된 것이다.

전체 보급량의 재배 가능면적은 50ha 규모이며, 향후 보급품목 및 종자수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월2일까지이며, 12일부터 4월6일까지 신청농가에 보급한다.

이응세 원장은 “기원이 정확한 한약재 종자보급을 통해 안전한 종자보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산 한약재 생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061-860-2852)로 하면 된다.

박종률 기자

영남일보

혈액원차량 지원 받아 사랑의 헌혈운동

보도일자
2018년 3월 1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달 28일 경산 본원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혈액원의 차량지원을 받아 혈액수급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펼쳤다.



인터넷뉴스팀

쿠키뉴스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보도일자
2018년 3월 1일(목)

한약진흥재단은 지난달 28일 경산 본원에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헌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과 겨울 방학, 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앞으로도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헌혈 행사에 노·사가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상·하반기 각 1회씩 헌혈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최태욱 기자



국립한약진흥원
NEWSIS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 등

보도일자
2018년 3월 5일(월)

한약진흥재단, 국내 최초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 실시

한약진흥재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약재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한의사는 우슬·지황·백출 등 우수 한약재 표준재배 기술과 한약재 재배현황,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절차 등을 배운다.

교육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교육은 4월 7일, 8일 이틀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약진흥재단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용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국내 최초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 실시

보도일자
2018년 3월 5일(월)

우슬·지황·백출 등 우수 한약재 재배 교육으로 한약재 고품질화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센터장 여준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표준재배와 고품질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한약재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약재 재배기술 교육 그동안 주로 농민에게 한약재 재배교육을 해왔으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재 재배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는 현재 토종 한약재 자원 212 품목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해 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유전 정보 등록을 마쳤다.또한 우수한약재관리인증(hGAP)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한약재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한의사는 우슬·지황·백출 등 우수 한약재 표준재배 기술은 물론, 한약재 재배현황 및 재배 시 유의사항,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절차 등을 배운다.

뿐만 아니라 한약자원본부 한약재 재배지 견학, 토종 한약재 기반구축 및 유전자원 보존, 기원 한약재 종자·종묘 보급 현황, 한약재 재배부터 유통까지 한약재 품질 표준화 연구 전과정을 현장에서 생생히 엿볼 수 있다.

교육 일정은 다음달 7~8일까지 이틀간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라면 누구나 신청(선착순 20명)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061-860-2852, bmkang@nikom.or.kr)로 문의하면 된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사의 한약재 재배 체험은 국산 한약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약재의 품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토종 한약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약재 재배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률 기자



이기현 팀장, SCI(E)급 저널 특별판 발간

보도일자
2018년 3월 7일(수)

한의학의 현대적 변화 내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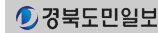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한약제제팀 이기현 팀장이 편집장을 맡은 SCI(E)급 저널인 증거기반 보완대체의학(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의 특별판 '전통 한의학의 현대화: 새로운 제형과 의료기기'(Modernization of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New Dosage Forms and Medical Instruments)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특별판은 현대기술의 발달에 따른 한의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재 제약기술의 발달에 따라 복용하기 불편했던 한약의 형태는 짜 먹는 약 및 정제 등의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약침과 같이 새로운 치료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 의료기기의 개발·활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특별판에는 한의학의 현대화와 관련된 12편의 연구논문과 2편의 리뷰논문이 게재됐다.

이기현 팀장은 "이번 특별판 발간을 통해 한의학의 현대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학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현대 기술의 발전은 한의학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한의학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현 팀장은 폐와 대장이 생리·병리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한의학 이론을 최신 면역학기법으로 규명한 연구를 국제적인 학술지인 '첨단면역학회지'(Frontiers in Immunology)에 2017년 10월에 논문으로 게재하는 등 총 40편의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꾸준히 게재해 왔다. 또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8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있다.

설동훈 기자



이기현 팀장 SCI(E)급 저널 특별판 발간

보도일자
2018년 3월 8일(목)

전통 한의학의 현대화: 새로운 제형·의료기기 주제로
편집장 맡아 한의학 현대적 변화 연구 성과 학계 알려



한약진흥재단은 한약제제팀 이기현(한의학 박사·사진) 팀장이 편집장을 맡은 SCI(E)급 저널인 증거기반 보완대체의학(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의 특별판인 '전통 한의학의 현대화: 새로운 제형과 의료기기'가 발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특별판은 현대기술의 발달에 따른 한의학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팀장은 이번 저널의 편집장으로서 논문의 적합성을 판단, 직접 편집을 맡거나 편집자를 지정하여 논문의 과학성을 평가하고 심사했다.

특별판에는 한의학의 현대화와 관련된 12편의 연구논문과 2편의 리뷰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그는 같은 저널의 새로운 특별판의 편집장을 다시 맡아 한의 의료기기 연구와 같은 한의기술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새로운 특별판의 투고 마감일은 오는 6월 8일이다.

이 팀장은 "이번 특별판 발간을 통해 한의학의 현대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학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현대 기술의 발전은 한의학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의학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현 팀장은 폐와 대장이 생리·병리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한의학 이론을 최신 면역학기법으로 규명한 연구를 국제적인 학술지인 '첨단면역학회지'(Frontiers in Immunology)에 2017년 10월 31일자 논문으로 게재하는 등 총 40편의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왔으며 '마르퀴즈 후즈 후 2018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있다.

김흥철 기자



한방의료 실태 담긴 홈페이지 개설

보도일자
2018년 3월 14일(수)

실태조사보고서-한의약정책리포트 등 각종자료 제공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승세)은 14일부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 홈페이지를 열고, 2017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조사의 목적과 배경, 조사내용, 주기 등을 제공하며 인포그래픽스를 통한 조사결과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그 밖에도 재단에서 생산중인 한의약정책리포트, 한의약연감 등 통계정보를 다운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한의약 관련 통계사이트 연결을 통하여 주요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관련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하다. 다만, 학술용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사용 제한 보안유지 서약서’를 동의해야 한다. 학술용 데이터 공개는 추후 관련 절차가 완비되면 2018년 하반기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0명, 만 19세 이상의 한방의료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자 1914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 인식,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및 권유, 외래 및 입원이용 등을 조사했다. 또한 한약소비실태조사는 사업체 2800 개소를 대상으로 한약 (재) 구입·판매 관련 사항, 정책 현안 및 정책 수립 관련 사항 등을 조사했다.

박숙현 기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 홈페이지 공개

보도일자
2018년 3월 14일(수)

한약진흥재단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 홈페이지를 14일 공식 오픈하고 2017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0명, 만 19세 이상의 한방의료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자 1914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 인식,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및 권유, 외래 및 입원이용 등을 조사하고, 한약소비실태 조사는 사업체 28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 (재)구입·판매 관련 사항, 정책 현안 및 정책 수립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한 것이다.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의 목적과 배경, 조사내용, 주기 등을 제공하며, 인포그래픽스를 통한 조사결과를 전달한다. 한약진흥재단에서 생산중인 한의약정책리포트, 한의약연감 등 통계정보도 다운 받을 수 있다.

또 주요 한의약 관련 통계사이트 연결을 통하여 주요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이용절차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관련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사람은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하다.

다만, 학술용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사용 제한 보안유지 서약서’를 동의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학술용 데이터 공개는 추후 관련된 절차가 완비되면 2018년 하반기에 공지할 예정이다.

권현 기자

헬스경향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

보도일자
2018년 3월 30일(금)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개선사업' 연구 결과

한약진흥재단 한약재표준화팀 이국여 팀장의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개선사업'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로 선정,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식약처가 지난해 연구개발사업 결과공유 및 성과홍보를 위해 개최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전시·발표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우수성과로 표창을 수여받은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개선사업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등재품목규격기준, 미설정규격을 검토하고자 식약처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백영민 기자

대구신문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

보도일자
2018년 4월 1일(일)

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사업

품목별 개정 제안·자료집 발간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재표준화팀 이국여 팀장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사업'이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1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이번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사업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등재 품목(가자 등 383품목)에 대해서 규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미설정 규격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또한 국내·외 유통 한약재를 경희대 한의대(최호영교수)에서 수집, 감별하고 한약진흥재단 한약재표준화팀과 품질인증센터(센터장 원재희)에서 중국, 일본공정서 및 대한민국공정서의 규격기준을 비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통 한약재 특성에 맞는 품목별 공정서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연구결과를 포함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독성 등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행사는 지난해 연구개발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성과에 대해서 표창과 전시 발표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사업은 식약처 의료제품 한약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성과로 선정돼 지난달 28일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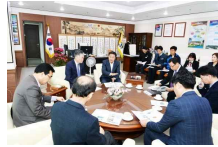
최대역 기자

국립중앙도서관
NEWSIS

봉화 한의약 특화사업 '속도' 한약진흥재단 관계자 봉화 방문

보도일자
2018년 4월 4일(수)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일행이 4일 오전 경북 봉화군을 방문했다. 군에 따르면 이 원장 일행의 이날 방문은 봉화군이 추진 중인 한의약 특화사업 육성 관련 현안 논의 및 약초 재배지 현장 방문을 위한 것이다. 정희석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장, 장원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연구소장 등도 이 원장 일행과 함께 봉화를 방문해 박노옥 봉화군수와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 일행은 봉성면에 있는 약용작물 전문기관인 경상북도 약용작물연구소와 춘양면 도심리의 약초재배 농가를 찾았다.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식물 종자보관소인 시드볼트(Seed Vault)가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도 둘러봤다. 이 원장은 "한의약은 국민건강과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열쇠이자 미래 먹거리로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옥 군수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고품지 약초를 생산하는 봉화군은 생산량과 품질 면에서 월등하다"며, "약초 재배의 최적지인 봉화군의 성장동력으로 한의약 특화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한약진흥재단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봉화군은 한약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한의약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구상 및 타당성수립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용역 완료 후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최대익 기자

헤럴드경제

이응세 원장 한의약 특화사업 육성 위해 봉화군 방문

보도일자
2018년 4월 4일(수)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일행이 4일 봉화군을 방문했다. 봉화군이 추진 중인 한의약 특화사업 육성 관련 현안 논의와 약초 재배지 현장 확인을 위해서다. 이원장과 함께 방문한 정희석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장, 장원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연구소장 등은 박노옥 봉화 군수와 기관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은 봉성면에 위치한 경상북도 약용작물연구소와 춘양면 도심리의 약초재배 농가 현장을 둘러본 뒤 세계에서 유일한 야생식물 종자보관소인 시드볼트(Seed Vault)가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도 두루 살펴봤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은 국민 건강과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열쇠이자 미래의 먹거리로,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옥 군수는 "약초 재배의 최적지인 봉화군의 성장 동력으로 한의약 특화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한약진흥재단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에 위치한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김성권 기자

한 의 신 문
akomnews.com

의약품 한약재, 재배부터 유통 까지 이렇게 관리됩니다

보도일자
2018년 4월 9일(월)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전남 장흥 한약자원본부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재 재배교육을 실시했다. 농민이 아닌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약재 재배교육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심도 뜨거웠다.

9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한의사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한약재 재배교육은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주최로 토종 한약재 주권 확보의 중요성과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GMP(우수제조관리) 인증 한약재의 표준재배 과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론과 약용작물 재배지 견학으로 이뤄진 한약재 재배교육은 지역별 한약재 생산 현황과 재배 시 유의점, 우슬·백출·지황 등 주요 약용작물 재배법, GAP(농산물우수관리) 재배 및 인증절차, GAP 재배지와 전신포 견학 등 한약재 재배부터 관리, 유통까지 한약재 품질 표준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생생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사들에게 토종 한약재의 경쟁력과 안전성, 우수성을 환기시키고 평소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기대했다.

최형일 강남성심한의원 원장은 “정부 차원의 한의약 진흥 사업은 여러번 있었지만 한약재 재배 교육은 처음”이라며 “한의사들이 코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기쁘다. 한의약이 단순히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상과 연계된 산업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약진흥재단에서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며 “한약재는 농산물이 아닌 의약품 원료인 만큼 국민건강과 직결 된다. 토종 한약재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약재 재배에 관심이 있거나 재배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 토종 한약 자원의 수집 및 개발을 통한 토종자원의 주권확보와 한의약 자원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약진흥재단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종묘의 보급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한약재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해 현재 토종 한약재 자원 212 품목을 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유전 정보 등록을 마쳤으며 우수한약재관리인증(hGAP)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과 한약재 반하, 석창포 표준품종 개발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김대영 기자

한스경제

한의사 대상 첫 한약재 재배교육 실시

보도일자
2018년 4월 10일(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남 장흥 한약자원본부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재 재배교육을 실시했다. 농민이 아닌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보전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한약재 재배교육은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주최로, 토종 한약재 주권 확보의 중요성과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GMP(우수제조관리) 인증 한약재의 표준재배 과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학습과 약용작물 재배지 견학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한약재 생산현황과 재배 시 유의점, 우슬·백출·지황 등 주요 약용작물 재배법, GAP(농산물우수관리) 재배 및 인증절차, GAP 재배지와 전신포 견학 등 한약재 재배부터 관리, 유통까지 한약재 품질 표준화 전 과정을 현장에서 생생히 배웠다.

이에 따라 토종 한약재의 경쟁력과 안전성, 우수성을 환기시키고 평소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 소중한 기회가 됐다.

교육에 참여한 강남성심한의원 최형일 원장은 “정부 차원의 한의약 진흥사업은 여러 있었지만 한약재 재배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의사들이 코워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기쁘다. 한의약이 단순히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상과 연계된 산업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한약진흥재단은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 한약재는 농산물이 아닌 의약품 원료인 만큼 국민건강과 직결 된다”며 “토종 한약재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거나 재배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한의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 토종 한약 자원의 수집 및 개발을 통한 토종자원의 주권확보와 한의약 자원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종묘의 보급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한약재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토종 한약재 자원 212 품목을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해 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유전 정보 등록을 마쳤다. 또한 우수한약재관리인증(hGAP)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과 한약재 반하, 석창포 표준품종 개발사업 등을 수행중이다.



홍성의 기자

쿠키뉴스 미래비전과 노사 혁신성장 선포

보도일자
2018년 4월 23일(월)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20일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미래비전 선포식 및 노사혁신성장 다짐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과 노사협의회 강윤환 대표 등 임직원 170여 명이 참석, 지식경영을 통한 조직 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한약진흥재단 임직원들은 이날 대회에서 ▲한약진흥재단(NIKOM)의 철학으로, 지식경영과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한의약 기술을 창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공헌 ▲NIKOM의 핵심가치로, 인재중심과 상호 협력을 통한 하나의 NIKOM을 달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신바람 나는 인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장단기 발전계획을 통해 제도·인력·업무 인프라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설립 허가를 거쳐 이듬해 1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최태욱 기자

서울경제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보도일자
2018년 4월 23일(월)

지식경영 바탕 '인류 건강한 삶 공헌' 다짐

한약진흥재단(NIKOM)이 '미래비전 선포식 및 노사혁신성장 다짐대회'를 갖고 지속적인 조직혁신을 통한 한의약 기술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행사는 지난 20일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NIKOM 이응세 원장과 강윤환 노총대표 등 임직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임직원들은 지식경영과 지속적인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한의약 기술을 창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공헌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 원장은 “한약기술 과학화, 한약자원 고도화 등 한의약 기반 조성 및 효율화를 통해 다양한 한약제제와 한의신약을 개발하고 재배·제조·유통 등 전 과정에서 한약재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IKOM은 한의약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손성락 기자

한국경제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보도일자
2018년 4월 24일(화)

한의학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을 위해 한방엑스포 개최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7월 6일부터 사흘 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 참가할 한의학 관련 우수업체 및 한방 병·의원, 한의학 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의료기기업체·식품업체·제약회사·협회·지자체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한방엑스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한의학 관련 전시회 중 하나다.

이번 전시회는 '2018 메디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구매상담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의료인보수교육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학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 한의학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8회 한방엑스포'는 EXCO 1층 전시장 내 한방병의원관을 비롯, 한의의료기기관, 한방화장품관, 기관단체협회관, 한방식품관, 한의체험관 등을 조성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경묵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제18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보도일자
2018년 4월 24일(화)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7월6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서 개최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7월6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 참가할 한의학 관련 우수업체 및 한방 병·의원, 한의학 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의료기기업체·식품업체·제약회사·협회·지자체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한방엑스포' 대구시 및 경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한의학 관련 전시회 중 하나다. 이번 전시회는 '2018 메디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구매상담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의료인보수교육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학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 한의학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제18회 한방엑스포'는 EXCO 1층 전시장 내 한방병의원관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기관, 한방화장품관, 기관단체협회관, 한방식품관, 한의체험관 등을 조성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31일까지 참가업체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기 신청 및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부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학 관련 국내외 우수 업체들이 이번 한방엑스포에 많이 참가해 한의학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많은 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우리나라 한의학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률 기자

서울경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한의학 자원 교류협력 나서

보도일자
2018년 5월 10일(목)

야생식물 기반 한의학자원의 종자관리 및 보존, 약용식물 교류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한약진흥재단과 한의학 자원 교류협력에 나선다.

백두대간수목원과 한약진흥재단은 10일 한약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한의약 자원의 종자관리 및 보존, 약용식물 교류,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한반도 자생식물 기반의 한의학자원에 관한 협력 ■한의학자원 종자의 중복보존 ■한의학자원의 수집 및 증식 ■한의학자원의 종자와 표본 등 식물정보 교류 ■한의학자원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김용하 원장은 “두 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며 “한의학 자원의 수집과 보존, 재배기술 협력, 약용작물 산업화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적극 진행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원 교류 MOU 체결

보도일자
2018년 5월 10일(목)

야생식물 기반 한의학자원의 종자관리 및 보존, 약용식물 교류

한약진흥재단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한반도 한의학 자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원장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김용하)과 한반도 한의약 자원의 종자관리 및 보존, 약용식물 교류,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10일 한약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한반도 자생식물 기반의 한의학자원에 관한 협력 ▲한의학자원 종자의 중복보존 ▲한의학자원의 수집 및 증식 ▲한의학자원의 종자와 표본 등 식물정보 교류 ▲한의학자원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약진흥재단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있는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에 자생 약용자원을 보관할 예정이며, 향후 두 기관은 남북한 한약재 자원의 수집과 보존, 연구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학 자원 및 산림자원에 관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과 정보교류로 한의학 자원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한의학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하 원장은 “두 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 한의학 자원의 수집과 보존, 재배기술 협력, 약용작물 산업화 등 실질적인 사업으로 적극 진행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숙현 기자

KBS NEWS

한약 품질관리 과정 투명 공개 한약조제시설에 평가인증제 도입

보도일자
2018년 5월 23일(목)

앞으로 한약 조제와 품질관리 과정이 대중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 평가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23일 그 인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탕전 시설·운영 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번 조치는 한약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침과 일반한약 246개 항목을 점검한 뒤,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엄진아 기자

연합뉴스

한약 안전성 확인 쉬워진다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보도일자
2018년 5월 23일(목)

9월부터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탕전 시설뿐만 아니라 원료 검사, 보관, 조제, 포장,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됐는지 확인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3일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말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실에 대한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영한 13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지 이용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과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으로 시행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작된다.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일반한약 81개, 약침 165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인증 기관은 정부가 부여한 인증마크를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점검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재우 기자

한 의 신 문
akomnews.com

한의학 미래 가치 창출 한방엑스포, 대구에서 만나요!

보도일자
2018년 6월 18일(월)

한의학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대한민국한방엑스포(이하 한방엑스포)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한약진흥재단이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학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 한의학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방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관련 전시회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 건강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방병의원관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기관, 한의약산업 창업 기획관, 한방바이오식품 및 화장품관, 한의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총 140개 부스에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한의무료진료와 추나치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는 매년 관람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에는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일본 기업들이 참여해 첨단기술 활용, 수출 마케팅 노하우,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기업과 해외참가업체 간 1:1 미팅을 통해 국내 한의학 관련 제품 수출 및 양 기업간 R&D, 해외 마케팅 등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한의학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획관에서는 창업 성공사례 및 아이템 발굴 세미나와 함께 창업을 위한 기술상담이 이뤄지며 한의학산업 관련 4개 기업은 현장 면접을 통한 구인구직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번 행사 기간에 의료인 보수교육, 한약재 재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메디엑스포'가 동시에 열린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방엑스포를 통해 한의학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4차 산업화 및 한의학 기반 조성과 효율화에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메디팍뉴스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내달 6일 개막

보도일자
2018년 6월 18일(월)

한의학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가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주관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한방엑스포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관련 전시회로,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 건강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전시 품목은 한방병의원관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기관, 한의약산업 창업 기획관, 한방바이오식품 및 화장품관, 한의체험관 등을 조성해 EXCO 1층 전시장에서 국내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가해 총 140부스에 달한다.

이번 엑스포는 '메디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며 한의학 관련 산업 국제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 의료인 보수교육, 한의학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세미나, 한약재 재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이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일본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들의 첨단기술 활용, 수출 마케팅 노하우,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기업과 해외참가업체 간 1:1 미팅을 통해 국내 한의학 관련 제품 수출 및 양 기업간 R&D, 해외 마케팅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한의학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기획관에서는 창업 성공사례 및 아이템 발굴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학산업 관련 4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통한 구인구직과 취업자들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며 창업을 위한 기술상담도 가질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통해 한의학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4차 산업화 및 한의학 기반 조성과 효율화에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학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 한의학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참관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053-810-0240) 및 홈페이지(<http://www.hanbangexpo.or.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재승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개최

보도일자
2018년 6월 20일(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7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구 엑스코(EXCO)에서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6일 오후 1시부터 대구 엑스코 314호에서 개최되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는 일본 크라시에제약, 홍콩의 퓨라팜(PuraPharm), 대만의 순천당제약과 더불어 중국, 베트남을 대표하는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참가 기업들은 주요 제품 연구개발 동향과 글로벌 진출·마케팅 현황, 빅데이터 및 첨단기술, 한의약제품 혁신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해 각 기업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달 7일 오전 10시부터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사전 참가 신청한 국내 기업과 해외 참가업체 간의 1:1 미팅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한의약 관련 제품 수출 및 양 기업 간 연구개발(R&D)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은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제 행사"라며 "해외 주요 한의약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만큼, 한의약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로를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이 제품 수출 및 해외 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한 1차 사전등록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홈페이지(www.hanbangexpo.or.kr)에서 등록 및 자세한 행사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대구시 및 경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며 대구시한의사회 의료인 보수교육, 한의약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세미나, 한약재 재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박종률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한의학 세계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

보도일자
2018년 6월 20일(수)

해외 주요 한의약 기업 등이 참가하는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미팅이 열릴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구 엑스코(EXCO)에서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는 일본 크라시에제약, 홍콩의 퓨라팜(PuraPharm), 대만의 순천당제약과 더불어 중국, 베트남을 대표하는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참가 기업들은 주요 제품 연구개발 동향과 글로벌 진출·마케팅 현황, 빅데이터 및 첨단기술, 한의약제품 혁신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해 각 기업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오전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사전 참가 신청한 국내 기업과 해외 참가업체 간의 1:1 미팅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한의약 관련 제품 수출 및 양 기업 간 연구개발(R&D)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은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제 행사"라며 "해외 주요 한의약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만큼, 한의약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로를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이 제품 수출 및 해외 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한 1차 사전등록은 2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자세한 행사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김준호 기자

경북매일

달구벌서 국내 최대 한방축제 열린다

보도일자
2018년 7월 2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제18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 건강한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한방엑스포는 대구시·경북도가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관련 전문전시회로는 국내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가, 모두 150부스에서 열린다.

엑스포에서는 한방병의원관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기관, 한의학산업 창업기획관, 한방바이오식품 및 화장품관, 한의학체험관 등을 조성해 각종 한의학 제품과 정보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으며, 한의학 관련 산업 국제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 의료인 보수교육, 한의학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세미나, 한약재 재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또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추나치료 등 한의무료진료와 한방디저트 및 디톡스 음료체험 등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전시기간 내내 열린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에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들의 첨단기술 활용, 수출 마케팅 노하우,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곤영 기자

Break news

한방엑스포 엑스코에서 6일 개막

보도일자
2018년 7월 2일(월)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18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오는 7월 6일(금)부터 8일(일)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 건강한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방엑스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하며,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관련 전문 전시회로는 국내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가, 모두 150부스에서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메디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며 한의학 관련 산업 국제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 의료인 보수교육, 한의학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세미나, 한약재 재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추나치료 등 한의무료진료와 한방디저트 및 디톡스 음료체험 등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전시기간 내내 열린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이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일본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들의 첨단기술 활용, 수출 마케팅 노하우,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기업과 해외참가업체 간 1:1 미팅을 통해 국내 한의학 관련 제품 수출 및 양 기업간 R&D, 해외 마케팅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약진흥재단 이용세 원장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통해 한의학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4차 산업화 및 한의학 기반 조성과 효율화에 역량을 결집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학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 한의학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참관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053-810-0240) 및 홈페이지(<http://www.hanbangexpo.or.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성현 기자

서울경제 6~8일 엑스코서 창업기획관 운영

보도일자
2018년 7월 4일(수)

한약진흥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획관을 운영한다.

창업기획관에서는 한의약 산업 관련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재단 보유기술 상담과 창업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현황 및 접근방법 안내를 위한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 창업기획관에서는 또 튜링겐코리아·휴먼코스메틱 등 화장품 기업, 농업회사법인 한반도 등이 현장채용을 위한 상담·면접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시장 세미나룸(F250)에서는 '스마트팜 한의약산업에 도전하라', '한의약소재 화장품산업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성공사례 세미나도 진행된다.

행사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은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홈페이지(hanbangexpo.or.kr)에서 할 수 있다.

손성락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한방엑스포 통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보도일자
2018년 7월 4일(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용세)은 오는 6~8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한의약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기획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창업기획관에서는 한의약 산업 관련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한약진흥재단 보유기술 상담과 창업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현황 및 접근방법 상담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엑스코(EXCO) 전시장 세미나룸(F250)에서는 '스마트팜 한의약산업에 도전하라' 및 '한의약소재 화장품산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성공사례 세미나도 열린다.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는 창업기획관(F110)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튜링겐코리아 및 휴먼코스메틱 등 화장품 관련 기업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반도, 나눔제약 기업이 참가해 채용상담과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알선장도 운영된다.

또한 오는 7일 오후 2시 한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양방통합진료의 국내외 현황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8일 한의사 및 한약재전문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제2차 한약재의 표준재배와 고품질화 과정을 개설해 수료자들에게 안전한약재배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는 단순 한의약산업을 알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의약산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전시회로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홈페이지(www.hanbangexpo.or.kr)에서 등록 및 자세한 행사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한의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구시, 경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며 대구시한의사회 의료인 보수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세미나,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한약재 재배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박종률 기자

왓치데일리

제6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8년 7월 18일(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7월 24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남·북 교류를 대비한 한의학 역할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6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이 “한의학 분야 남·북교류 활동” 및 ▶대한한의학회 송호섭 부회장이 “남·북교류를 대비한 한의학 역할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의 좌장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종자보전연구실 이하얀 팀장 및 나우중의건설팅 신영종 대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센터장, 한약진흥재단 황정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응세 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남북고위급 회담으로 남북 정부 간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며, 한약진흥재단은 이러한 한의계가 남북 교류협력에 발맞추어 재단 내부에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의학 한반도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여 한의학 분야 남·북 교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23일(월)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정책기획팀 성수현 연구원(☎02-3393-4531, koyote10010@nikom.or.kr)으로 하면 된다.

김태수 기자



쿠키뉴스

한약진흥재단, 남·북 교류 대비한 한의학 역할 논의

보도일자
2018년 7월 18일(수)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6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이 ‘한의학 분야 남·북 교류 활동’, 대한한의학회 송호섭 부회장이 ‘남·북 교류를 대비한 한의학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종자보전연구실 이하얀 팀장, 나우중의건설팅 신영종 대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센터장, 한약진흥재단 황정 책임연구원이 참석한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남북 정부 간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오는 23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전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한약진흥재단 정책기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최태욱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MOU 체결 보도일자
2018년 7월 26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장해랑)는 한의약 발전과 육성에 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6일 오후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한의약 관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방송에 관한 협력 ▶EBS에서 제작한 한의약 방송 콘텐츠 재가공 및 활용 ▶온·오프라인 한의약 교육 커리큘럼 개발 ▶남북 한의약 교류 활성화에 협력기로 했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 콘텐츠는 세계시장에서도 무궁한 확장성을 지닌 매력적인 의학이자 문화, 교육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다양한 한의약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한의약 세계화를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해랑 사장은 "이제 방송은 SNS, 모바일 콘텐츠를 아우르는 크로스 미디어의 시대"라면서 "EBS의 강점인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를 바탕으로, 한의약을 지속발전하는 체험·몰입형 미디어 교육모델로 만드는데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기관은 한의약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과 소통의 시대를 맞아 남북 한의약 교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종률 기자

민족의학신문 EBS 콘텐츠 협력 위한 MOU 체결 보도일자
2018년 7월 27일(금)

한약진흥재단이 EBS와 한의약 관련 콘텐츠 협력 개발 등을 위해 손잡았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장해랑)와 한의약 발전과 육성에 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한의약 관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방송에 관한 협력 ▲EBS에서 제작한 한의약 방송 콘텐츠 재가공 및 활용 ▲온·오프라인 한의약 교육 커리큘럼 개발 ▲남북 한의약 교류 활성화에 협력기로 했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 콘텐츠는 세계시장에서도 무궁한 확장성을 지닌 매력적인 의학이자 문화, 교육"이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다양한 한의약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한의약 세계화를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해랑 사장은 "이제 방송은 SNS, 모바일 콘텐츠를 아우르는 크로스 미디어의 시대"라면서 "EBS의 강점인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를 바탕으로, 한의약을 지속발전하는 체험·몰입형 미디어 교육모델로 만드는데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기관은 한의약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남북 통일과 소통의 시대를 맞아 남북 한의약 교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춘호 기자



천연물 물질은행, 한의학 산업발전·표준화 기여

보도일자
2018년 8월 2일(목)

한약진흥재단 응용제품팀 천연물 물질은행이 한약재를 이용한 천연물질 총 1320여종을 확보해 국내 각 기관 및 연구원에 공급하는 등 한의학 산업발전 및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일 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250여종의 한약재에서 총 1320여종의 천연물질을 확보해 국내 320개 기관에 1219종을 공급했다. 지난해도 46개 기관에 240여종을 분양했다.

이렇게 분양된 천연물질은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성균관대 의과대학, DIGST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감초의 주요 성분인 리퀴리티게닌이 신경세포 사멸 억제에 관여하는 'RNF146 단백질' 발현을 유도해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재단은 앞으로 블록버스터급 한약재 성분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확보된 천연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 이용세 원장은 “한의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한약재 성분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원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한의학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철 기자



천연물 물질은행 한의학 산업 발전 기여

보도일자
2018년 8월 2일(목)

한약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응용제품팀 천연물 물질은행이 한약재를 이용한 천연물질 총 1320여종을 확보, 국내 각 기관 및 연구원에 공급해 한의학 산업발전 및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지금까지 250여종의 한약재를 이용, 총 1320여종의 천연물질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천연물질은 국내 320개 기관에 1219종이 공급됐으며, 지난해도 46개 기관에 240여종을 분양했다.

이렇게 분양된 천연물질은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 중이다.

천연물 물질은행에서 확보한 천연물질은 한약 및 한약재에 함유된 성분들로 한약재에 함유된 지표성분 또는 유효성분을 말한다. 이런 성분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규격 한약재는 지표 성분들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돼 있어야 한다.

조명래 천연물 물질은행 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성균관대 의과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ST)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감초의 주요성분인 리퀴리티게닌이 신경세포 사멸 억제에 관여하는 'RNF146 단백질' 발현을 유도,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용세 재단 원장은 “천연물 물질은행은 국내 한약재 및 한약의 표준화와 한약재에 함유된 성분의 유효성을 활용한 한의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한약재 성분들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자원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한의학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천연물물질은행은 한약 및 한약재의 표준화를 위해 천연물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블록버스터급 한약재 성분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확보된 천연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장욱 기자

가천대 한의대생 연구실 투어 및 진로체험 행사 개최

보도일자 2018년 8월 3일(금)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3일 오전 경북 경산 본원에서 가천대학교 한의대 박태희 학생 등 4명을 대상으로 연구원 및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4번째로 개최된 이번 연구원 및 진로체험 행사는 기관소개에 이어 연구원 체험과 연구동 실험실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원 체험 및 연구실 투어에서는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한 천연물 물질은행과 바이오 소재은행 등 기관이 구축 중인 '한의약 소재은행' 성과를 둘러보며 국민 건강은 물론, 한방제품 개발 등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 투어 및 진로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응세 원장은 "한약진흥재단 연구원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약진흥재단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더 높게 갖고 앞으로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고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진로 및 직업체험 행사를 더욱 활발히 펼쳐 나갈 방침이다.



박종률 기자

한 의 신문 가천한의대생, 한약진흥재단 연구실 투어 및 진로체험

보도일자 2018년 8월 3일(금)

3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박태희 학생 등 4명이 한약진흥재단 경산 본원을 방문했다.

연구실 투어 및 진로체험을 위해서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실 투어 및 진로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안동 풍산고등학교 학생 21명의 진로체험에 이어 올해만 4번째로 기관소개에 이어 연구원 체험과 연구동 실험실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원 체험 및 연구실 투어에서는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한 천연물 물질은행과 바이오 소재은행 등 한약진흥재단이 구축 중인 '한의약 소재은행' 성과를 둘러보며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약진흥재단 연구원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약진흥재단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더 높게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고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진로 및 직업체험 행사를 더욱 활발히 펼쳐 누구나 체험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로체험 신청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가능하다.



김대영 기자

메디팍뉴스

R&E 활동 체험 수업 실시

보도일자

2018년 8월 6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쌓고 논리력 함양을 위해 경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창의적인 연구과제(R&E) 활동 체험 수업(사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여름 R&E 활동 체험 수업은 경산 과학고등학교 교사 및 1학년 학생 10여명이 한의신약팀의 '생물전환 한의소재를 이용한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 효능 연구' 및 응용제품팀의 '한약재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성분분석'을 주제로 체험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R&E 체험수업은 한의신약팀과는 생물전환 한의소재를 이용해 항산화 반응과 실험동물의 혈관에서는 혈관 수축 반응, 혈액에서는 혈소판 응집과 항혈전 반응과 세포내에서 항염증과 세포내 부착반응 등을 직접 실험 하며 진행하고 응용제품팀과는 다양한 한약재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산화 활성, 미백효과 및 한약재의 성분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신약팀 석영미 박사는"이번 R&E 활동 체험 수업은 수학·과학 전문 교육 선도 기관인 과학고등학교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과학고 학생의 과학연구 능력 신장을 위해 한약진흥재단의 연구력과 연계해 과학고등학교 R&E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의 일정으로 경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영 R&E 활동 체험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연구원들과 함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한 후에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활동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 간 진행돼 발표할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역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통해 사회 공헌을 실천할 수 있다.

이응세 원장은"경산과학고등학교 R&E 프로그램은 과학고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과학연구 능력 신장을 위하여 진행 중인 과제로 장래에 이공계분야로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약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심화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경산과학고등학교 연계 과학영재 창의 연구(R&E) 프로그램을 특별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화학, 생명과학 관련 2개 분야로 나누어 심화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재승 기자

Break news

경산과학고 학생

R&E 활동 체험 수업 실시

보도일자

2018년 8월 6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경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창의적인 연구과제(R&E) 활동 체험 수업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 간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쌓고 논리력 함양을 위해 진행 중인 체험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여름 R&E 활동 체험 수업은 경산 과학고등학교 교사 및 1학년 학생 10여명이 한의신약팀의 '생물전환 한의소재를 이용한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 효능 연구' 및 응용제품팀의 '한약재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및 성분분석'의 주제로 체험 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R&E 체험수업은 한의신약팀과는 생물전환 한의소재를 이용하여, 항산화 반응과 실험동물의 혈관에서는 혈관 수축 반응, 혈액에서는 혈소판 응집과 항혈전 반응과 세포내에서 항염증과 세포내 부착반응 등을 직접 실험 하며 진행하고 응용제품팀과는 다양한 한약재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항산화 활성, 미백효과 및 한약재의 성분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신약팀 석영미 박사는"이번 R&E 활동 체험 수업은 수학·과학 전문 교육 선도 기관인 과학고등학교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과학고 학생의 과학연구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의 연구력과 연계하여 과학고등학교 R&E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4월부터 경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R&E 활동 체험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연구원들과 함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한 후에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활동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 간 진행돼 발표할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역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통하여 사회 공헌을 실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자들을 양성하는데 큰 힘이 되고자 한다.

이응세 원장은 "경산과학고등학교 R&E 프로그램은 과학고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과학연구 능력 신장을 위하여 진행 중인 과제로 장래에 이공계분야로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한약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심화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경산과학고등학교 연계 과학영재 창의 연구(R&E) 프로그램을 특별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화학, 생명과학 관련 2개 분야로 나누어 심화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현 기자

BBS News

한약재 섭취 장내미생물 분포에 영향 미쳐 맞춤형 한약처방 가능성 열려

보도일자
2018년 8월 8일(수)

한약을 처방하기 전에 장내미생물의 분포를 조사해 한약재를 처방하는 개인 맞춤형 한약처방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약진흥재단 한의신약팀은 경북대학교 신재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장의 건강을 위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광항정기산을 섭취한 후 장내미생물의 변화양상'이란 연구를 통해 맞춤형 한약처방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6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지난달 초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ASM 2018에서 이 연구를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광항정기산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대변의 양상도 좋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에 존재하는 브리보텔라균과 박테리오테스균의 함량이 50% 미만인 사람들은 광항정기산을 섭취 후에 오히려 심한 설사를 일으키고, 장내미생물의 균형도 심각하게 파괴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처방이라도 치료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체질과 장내미생물 그리고 한약의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세포 수보다 1~10배 많은 미생물과 공생하면서 살아가며, 장에 존재하는 장내미생물이 잘 못 되면 비만이나 염증성장질환, 과민성대장염, 알레르기, 관절염, 당뇨병이나 심지어 우울증까지 일으킨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이용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한약이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한의 환자들의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해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약진흥재단은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한약섭취에 따른 장내미생물 분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렬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한약재 섭취, 장내미생물 분포에 영향 미쳐

보도일자
2018년 8월 8일(수)

한약재인 광항정기산을 복용했을 경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증가와 대변 양상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용세) 한의신약팀은 경북대학교 신재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장의 건강을 위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광항정기산을 섭취한 후 장내미생물의 변화양상'을 지난 6월 27일에서 29일까지 여수에서 열린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지난 7월 1일에서 4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ASM 2018에서 구두 및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광항정기산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대변의 양상도 좋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장에 존재하는 브리보텔라균과 박테리오테스균의 함량이 50% 미만인 사람들은 광항정기산을 섭취 후에 오히려 심한 설사를 일으키고, 장내미생물의 균형도 심각하게 파괴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앞으로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기 전 장내미생물의 분포를 조사해서 특정 한약재와의 공합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한약의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끔 특정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부작용 또는 같은 처방이라도 치료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러한 체질과 장내미생물 그리고 한약의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인간은 자신의 세포 수보다 1~10배 많은 미생물과 공생하면서 살아간다. 우리의 장에 존재하는 장내미생물이 잘 못 되면 비만이나 염증성장질환, 과민성대장염, 알레르기, 관절염, 당뇨병이나 심지어 우울증까지 일으킨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다.

소재현 한의신약 팀장은 "대분이 대부분 약초나 주위에서 구하기 힘들고 소화가 힘든 재료로 되어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한약의 난소화성 물질이 인간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세 원장은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복용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한약이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한의 환자들의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해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한약섭취에 따른 장내미생물 분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춘호 기자

한 의 신 문
ekomnews.com

오는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 접수

보도일자
2018년 8월 8일(수)

한의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입고에서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운데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nikom.or.kr>)에 접속해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 안내'의 '안내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구비서류(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신청서, 건물도면,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와 함께 이메일(wontang@nikom.or.kr)로 발송하면 된다. 현장평가 희망일자는 9월3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소(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 92개소,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을 모두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 9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한약진흥재단이 인증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인증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매년 인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인증'이 유지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 여지가 충분히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 △탕전실의 종별 변경 등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중간점검 결과 판정 수준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이 불가하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 및 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 비용은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정부가 부담한다.

김대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대만 위생복지부 공무원 일행, 한약진흥재단 방문

보도일자
2018년 8월 13일(월)

13일 한약진흥재단을 방문한 대만 위생복지부 진빙기 과장(오른쪽서 두번째) 등 공무원 일행이 연구실 투어를 마친 후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왼쪽서 네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만 위생복지부 진빙기 과장(중의약사) 등 공무원 일행 5명은 대만 중의약 육성법 제정 및 원내조제 중약 관리시스템 연구 관련 한국 한의약 관련 연구기관 현황 조사를 위해 이날 한약진흥재단을 방문했다.



박종률 기자

쿠키뉴스 아리랑국제방송과 MOU 체결

보도일자
2018년 8월 24일(금)

한약진흥재단과 아리랑국제방송은 지난 23일 아리랑국제방송 회의실에서 한의약 국제 인지도 향상과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아리랑국제방송에서 제작한 한의약 방송 콘텐츠 재가공 및 활용 ▷한약진흥재단의 해외 홍보를 위한 아리랑국제방송 온라인(홈페이지, SNS) 홍보 지원 ▷한약진흥재단의 주요 국내외 행사 시 아리랑국제방송의 취재 보도 및 방송 등을 협력키로 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약은 메디컬이자 문화이며 동양철학이 깃든 세계인에게 흥미로운 분야다”며 “현재 세계 곳곳에 한의약 마니아층이 있고, 전략적으로 한의약 콘텐츠를 기획한다면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국제방송 이승열 사장은 “아리랑국제방송은 시사, 한류 2개 채널이 있는데 한의약도 메디컬 한류 콘텐츠로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전 세계인이 건강에 관심이 높은 만큼 한의약을 한류 세계화의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아이팝뉴스 아리랑국제방송과 MOU 체결

보도일자
2018년 8월 24일(금)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이승열)과 지난 23일 아리랑국제방송 회의실에서 한의약 국제 인지도 향상,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해외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아리랑국제방송에서 제작한 한의약 방송 콘텐츠 재가공 및 활용 △한약진흥재단의 해외홍보를 위한 아리랑국제방송 온라인(홈페이지, SNS) 홍보 지원 △한약진흥재단의 주요 국내외 행사 시 아리랑국제방송의 취재 보도 및 방송 등을 협력키로 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약은 메디컬이자 문화이며 동양철학이 깃든 세계인에게 흥미로운 분야다”면서 “현재 세계 곳곳에 한의약 마니아층이 있고, 전략적으로 한의약 콘텐츠를 기획한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국제방송 이승열 사장은 “아리랑국제방송은 시사, 한류 2개 채널이 있는데, 한의약도 메디컬 한류 콘텐츠로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전 세계인이 건강에 관심이 높은 만큼 한의약을 한류 세계화의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한의약 국제 인지도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상, 문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노의근 기자

News 1

대구시·9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조기달성 협약

보도일자
2018년 9월 4일(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구광역시 및 관내 9개 공공기관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기 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조기 달성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담겼다.

협약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의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약진흥재단 등 9개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3.2%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대구시, 공공기관 10곳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보도일자
2018년 9월 4일(화)

4일 대구시청에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체결식이 열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및 대구시 관내 9개 공공기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 공공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의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약진흥재단 9곳이다.



윤석원 기자

아이팝뉴스

한약자원개발본부 한약자원 전시관 견학

보도일자
2018년 9월 10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7일 아산시농민대학 신소득작물과 교육생 21명이 전남 장흥의 한약자원개발본부의 한약자원 전시관 및 재배자원을 견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여준환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재배현황 및 재배 시 유의점 등에 대해 특강을 하고, 이어 한약자원 전시관에서 액침표본 및 종자표본과 한약자원 식물 등을 견학했다.

함성호 한약자원개발본부장은 "품질이 균일한 의약품용 한약재 생산을 위해 재배법 연구 및 기원한약재 종자·종묘 보급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청소년, 대학생,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견학 및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노의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아산시농민대학 신소득작물과 교육생, 한약자원개발본부 견학

보도일자
2018년 9월 10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시농민대학 신소득작물과 교육생 21명이 전남 장흥 한약자원개발본부 한약자원 전시관 및 재배자원을 견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여준환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재배현황 및 재배 시 유의점 등에 대해 특강을 하고, 이어 한약자원 전시관에서 액침표본 및 종자표본과 한약자원 식물 등을 견학했다. 함성호 한약자원개발본부장은 "품질이 균일한 의약품용 한약재 생산을 위해 재배법 연구 및 기원한약재 종자·종묘 보급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청소년, 대학생,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견학 및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박종률 기자

메디칼타임즈

대구첨복재단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자

2018년 9월 11일(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첨복재단·이사장 이영호)과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두 기관은 11일 오전 대구첨복재단에서 의약·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은 의약·한의학 개발지원을 위한 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 비임상분야 핵심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국가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대구첨복재단은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신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의료분야 기업지원을 진행 중이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건립 4년 만에 갑상선암·급성골수백혈병·뇌암치료제 등 6건의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를 달성했다.

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앞서 전자기적합성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과 식약처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식약처로부터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실험동물센터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의약품 생산기준(GMP) 구축을 마친 의약생산센터까지 탄탄한 의료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약·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발굴, 의약·한의학 기술정보 교류 및 자문, 의약·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장비 등 물적 자원 공동 활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상호발전 기여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석 기자

한 의 신문
skomnews.com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한의학산업 위해 손잡아

보도일자

2018년 9월 11일(화)

한약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동 대회의실에서 의약 및 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의약 및 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발굴 △의약 및 한의학 기술정보의 인력 교류 및 자문 △의약 및 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날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두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의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과 정보교류를 통해 의약 및 한의학산업의 세계화를 함께 이뤄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이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의약 및 한의학산업을 미래선진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양 기관이 MOU 체결을 계기로 전통의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모형을 확립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 유일의 한의학 산업 공공기관으로서 한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 후보물질 최적화, 첨단의료기기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합성신약, ICT 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 연구로 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관이다.



김대영 기자

한 의 신문
nikomnews.com

조직개편 단행 4본부 1실 1사업단 17팀

보도일자
2018년 9월 11일(화)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10일부로 조직을 4본부 1사업단 14팀(2센터 포함)에서 4본부(정책본부, 한의약개발본부, 한약자원개발본부, 경영지원본부) 1실(전략기획실) 1사업단(한외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17팀(2센터 포함)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2018년도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조직의 안정화와 혁신, 국가기관에 따른 비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 조직업무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략기획실을 신설하고 정책본부의 기존 글로벌기획팀과 정책기획팀을 미래정책팀, 공공정책팀, 세계화전략팀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한의약기술본부의 명칭을 한의약개발본부로 변경하고 산업화지원팀을 신설했으며 경영지원본부에서는 혁신성장일자리팀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약진흥재단은 이에따라 본부장 등 주요보직자 20명과 직원 140등을 발령했으며 주요 인사 인사발령 내역(9월 8일부)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장급 △정책본부장 이화동 직대(전략기획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직대 황정(인사총무팀장) △한의약개발본부장 직대 김두완(산업화지원팀장) △한약자원개발본부장 함성호(직대)

- 팀장급 △전략기획실 전략기획팀장 조용준 △정책본부 미래정책팀장 김형선, 공공정책팀장 김유진, 세계화전략팀장 남효주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장 안영복, 혁신성장일자리팀장 이영민 △한의약개발본부 한의기술R&D1팀장 손준호, 한의기술R&D2팀장 김정옥, 한의신약연구팀장 소재현, 품질인증센터장 원재희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장 조현우, 한약재표준화팀장 이국여,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 여준환 △한외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장 정석희, 한외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부단장 김종우, 진료지침개발팀장 및 임상연구지원팀장 박민정(겸직).

김대영 기자



브레이크뉴스

[인사] 한약진흥재단

보도일자
2018년 9월 12일(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8월 조직을 4본부 1실 1사업단 17팀(2센터 포함)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2018년도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화와 혁신, 국가기관에 따른 비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 조직업무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본부장 등 주요보직자 20명과 직원 140등을 발령했다.

주요 인사 인사발령 내역(2018년 9월 8일부)로 - 본부장급 ▷정책본부장 이화동 직대(전략기획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직대 황정(인사총무팀장), ▷한의약개발본부장 직대 김두완(산업화지원팀장), ▷한약자원개발본부장 함성호(직대)

- 팀장급 ▷전략기획실 전략기획팀장 조용준, ▷정책본부 미래정책팀장 김형선, 공공정책팀장 김유진, 세계화전략팀장 남효주,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장 안영복, 혁신성장일자리팀장 이영민, ▷한의약개발본부 한의기술R&D1팀장 손준호, 한의기술R&D2팀장 김정옥, 한의신약연구팀장 소재현, 품질인증센터장 원재희,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장 조현우, 한약재표준화팀장 이국여,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 여준환, ▷한외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장 정석희, 한외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부단장 김종우, 진료지침개발팀장 및 임상연구지원팀장 박민정(겸직)을 발령했다.

주재승 기자

시사오늘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9월 13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국립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양 기관과 연해주 정부는 지난 6월 △전통의학 교육 분야 협력 △전통의학 임상 분야 협력 △전통의학 연구 분야 협력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프로그램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된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는 MOU에 기반해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양국의 천연물 자원 현황과 산업화 전망 그리고 전통의학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양국의 천연물 자원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의 천연물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 한의학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 전통의학 분야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한의학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설동훈 기자

왔쳐데일리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9월 13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9월 12(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국립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과 연해주 정부는 지난 6월 ▶전통의학 교육 분야 협력 ▶전통의학 임상 분야 협력 ▶전통의학 연구 분야 협력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프로그램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는 MOU에 기반하여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특히 양국(한국과 러시아)의 천연물 자원 현황과 산업화 전망 그리고 전통의학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양국 천연물 자원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이응세 원장은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전통의학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며 "이번 한-러 전통의학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의 천연물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 한의학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 전통의학 분야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한의학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수 기자

한 의 신 문
ahomnews.com

‘분심기음가미방’ 한약제제 임상시험 진행된다

보도일자
2018년 10월 22일(월)

한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심기음가미방’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된 한약에 대해 연구자 임상시험을 승인한 것은 드문 사례에서 더욱 주목된다.

22일 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 9월11일 ‘화병에 대한 분심기음가미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연구책임자 강동경 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웅)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분심기음가미방’은 화병에 대한 한약 처방 중 임상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처방으로 다수의 임상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보고됐으며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는 분심기음가미 한약제제를 화병 임상연구에 사용할 처방으로 추천한 바 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화병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심기음가미 한약제제를 현재까지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이번 식약처 IND 승인은 한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신조성 처방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한의 진료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기성한약서 수재처방 이외에 한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우수 한약에 대한 신규 한약제제 발굴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한방산업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영역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임상연구지원팀 박민정 팀장은 “현재 기성한약서 이외의 처방에 대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 면제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3년이상, 200례이상 사용 중인 처방에 대해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한약 처방 모두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향후 대상의 점진적 확대 노력을 통해 한약의 임상시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분심기음가미방을 시작으로 기능성 소화불량과 파킨슨병에 대한 2건의 추가 신조성 한약처방에 대한 연구자 임상연구 IND 신청을 준비 중이다.

한편 식약처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 14호에 기재된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은 전통적인 사용경험을 인정해 비임상시험 성적 자료 제출 없이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의학 임상현실에서는 기성한약서 처방에서 응용 개발한 다양한 조성의 처방들이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대적으로 응용돼 사용 중인 우수처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지만 기성한약서

에 기재된 처방 이외에 새로운 조성과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비임상시험 성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학문적 입증에 어려운 현실이다.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 내용고형제, 내용액제로 연구자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대신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는 확인서를 근거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분심기음가미방과 같이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조성의 처방에 대해 연구자 임상시험을 진행하려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4의 2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임상시험계획서 △해당 한약제제가 당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됨을 증명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의 확인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승인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추천서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임상시험용의약품 기본정보(성상, 제조방법, 저장방법, 원료약품 및 그 분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되 3년 이상, 200례 이상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의 확인서는 △확인 사항에 대한 확인서(처방명, 대상질환, 병원명, 기관장 날인 필수) △처방 이력 간략하게 소개 △처방 연수와 환자수, 연령범위 등을 기재하여 환자 명단을 부록으로 필수 첨부 등 네 가지 사항을 명확해야 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이번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진행 초반에는 분심기음가미방과 위약 생산과 관련해서 부형제 함유량, 생산라인 및 생산량 설정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 IND진입 시점에 대비한 원료의약품 가속시험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IND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준비를 준비해 지난 7월 식약처 IND신청하고 수차례 보안을 거쳐 9월11일 분심기음가미엑스과립 연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김대영 기자

메디칼뉴스

한약 고유처방, 안전성·유효성 임증 전망

보도일자

2018년 10월 22일(월)

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정석희)은 한방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돼온 '분심기음가미방' 한약 처방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이 지난 9월 1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임상시험('화병에 대한 분심기음가미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연구책임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웅)은 한방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된 한약에 대해 식약처가 연구자 임상시험을 승인한 드문 사례이다.

식약처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 14호에 기재된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은 전통적인 사용경험을 인정해 비임상시험성적자료제출 없이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의학 임상현실에서는 기성한약서 처방에서 응용 개발한 다양한 조성의 처방들이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현대적으로 응용돼 사용중인 우수처방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지만, 기성한약서에 기재된 처방 이외에 새로운 조성과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비임상시험 성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학문적 임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 의하면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 내용고형제, 내용액제로 연구자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대신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는 확인서를 근거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번 식약처의 IND승인은 비록 3년 이상, 200례 이상의 처방에 한정하는 제한이 있지만, 한방의료기관 내에서 사용 중인 신조성 처방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한의 진료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성한약서 수재처방 이외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우수 한약에 대한 신규 한약제제 발굴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의학 건강보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한약제제인 '분심기음가미방'은 화병에 대한 한약 처방 중 임상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처방이다. 화병은 분노와 같이 감정이 해소되지 못해 화의 양상으로 폭발하는 증상이 있는 증후군으로 정의된다.

의학계에서는 표준 치료가 정립돼 있지 않으나, 한의학계에서는 진단 및 치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는 분심기음가미 한약제제를 화병 임상연구에 사용할 처방으로 추천했고, 다수의 임상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보고됐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분심기음가미 한약제제는 화병이라고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분심기음가미방과 같이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조성의 처방에 대해 연구자 임상시험을 진행하려는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2017년 11월부터 3년 200례 연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 준비했다. 진행 초반에는 분심기음가미방과 위약 생산과 관련해서 부형제 함유량, 생산라인 및 생산량 설정에 대해 논의한 다음 IND진입 시점에 대비한 원료의약품 가속시험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IND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준비를 동시에 준비해 2018년 7월 식약처 IND를 신청했고, 수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9월 11일 분심기음가미엑스과립 연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 완료됐다. 분심기음 가미방을 필두로 향후 사업단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과 파킨슨병에 대한 2건의 추가 신조성 한약처방에 대해 연구자 임상연구 IND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현재 기성한약서 이외의 처방에 대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 면제는 1)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2)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 중인 처방에 대해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한약 처방들에 대해 모두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향후 대상의 점진적 확대 노력을 통해 한약의 임상시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재승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내달 2일 '한약산업 성과확산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0월 28일(일)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11월2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타워 사파이어룸에서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한약산업부문 성과확산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과 글로벌 이슈'의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한약재 등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성과확산회는 미국, 유럽 등 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 관련 현지 제도, 절차 등의 소개와 해외 진출 유경험 기업의 성공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근 관련법 시행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에서 한의약 산업 대응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 관계자는 "한의약은 세계 전통의학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세계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세계 시장으로 한의약 제품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많은 분들이 각국 현황과 진출 경험 및 노하우 등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산업부문 성과확산회 사전등록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등록을 통해 가능하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도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해외 업계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약이 성공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률 기자



민족의학신문
THE MINOK MEDICINE NEWS

한의약 세계화 추진 성과확산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0월 29일(월)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내달 2일 서울 전경련타워 사파이어룸에서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한약산업부문 성과확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과 글로벌 이슈'의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한약재 등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성과확산회는 미국, 유럽 등 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 관련 현지 제도, 절차 등의 소개와 해외 진출 유경험 기업의 성공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근 관련법 시행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에서 한의약 산업 대응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약진흥재단 관계자는 "한의약은 세계 전통의학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세계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행사는 세계 시장으로 한의약 제품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많은 분들이 각국 현황과 진출 경험 및 노하우 등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숙현 기자

경북매일

국립 암센터 항암 유효물질 발굴 세미나

보도일자
2018년 11월 8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8일 한약진흥재단 경산 본원 대강당에서 항암유효물질 발굴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한약진흥재단에서는 한의기술R&D팀 김효정 박사는 '혈관신생억제를 통한 암전이 치료용 한약제제 발굴', 산업화지원팀 강윤환 박사는 '항암 분자타깃 활성물질 함유 한약추출물의 에너지대사 조절효과 연구', 한의신약연구팀 조명래 박사는 '한약 소재에서 분리된 항암활성 성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는 비교생명의학연구과 김용연 박사사 '암 전이 억제를 위한 anoikis 감작제 발굴', 비교생명의학연구과 심재갈 박사는 'In vivo 선종 발암모델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항암물질 발굴', (비교생명의학연구과 윤경실 박사는 '전사조절인자 활성 조절 특성을 이용한 항암 유효물질 발굴', 암중개연구과 신동훈 박사는 'SIRT1 activity 조절인자 screening을 통한 암종별 맞춤 항암 전략 제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곤영 기자

헬스경향

국립암센터, 항암유효물질 발굴 논의의 장 열어

보도일자
2018년 11월 8일(목)

한약진흥재단과 국립암센터가 8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천연물의 항암활성 유효물질을 검증하고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약진흥재단은 ▲혈관신생억제를 통한 암전이 치료용 한약제제 발굴(한의기술 R&D팀 김효정 박사) ▲항암 분자타깃 활성물질 함유 한약추출물의 에너지대사 조절효과 연구(산업화지원팀 강윤환 박사) ▲한약 소재에서 분리된 항암활성 성분(한의신약연구팀 조명래 박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암 전이 억제를 위한 anoikis 감작제 발굴(비교생명의학연구과 김용연 박사) ▲In vivo 선종 발암모델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항암물질 발굴(비교생명의학연구과 심재갈 박사) ▲전사조절인자 활성 조절 특성을 이용한 항암 유효물질 발굴(비교생명의학연구과 윤경실 박사) ▲SIRT1 activity 조절인자 screening을 통한 암종별 맞춤 항암 전략 제시(암중개연구과 신동훈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기반으로 연구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해 한약의 산업 발전 및 암 정복을 위한 상호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그동안 연구해온 천연물의 항암 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선 기자



베트남 연구원에 ‘품질관리 실습교육’ 실시

보도일자
2018년 11월 9일(금)

한약진흥재단이 베트남 의약품규제기관 연구원들에게 한약재 위해물질 분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베트남 규제기관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에서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및 벤조피렌 등 한약재의 위해물질 분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이응세 원장은 “지난해 몽골에 이어 두 번째 국제 연수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연수교육을 계기로 한의약 관련 국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의약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베트남 연수자가 직접 준비해온 시료 아티초크(Artichoke)와 우슬(Achyranthes Root)을 활용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한약진흥재단 분원 한약자원본부(전남 장흥)에서 한약재 재배지 견학 및 유전자감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전통의약 품질관리 연구원의 도 티 빗 투안(Do Thi Bich Thuan) 씨는 “위해물질 관련 분석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베트남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분석방법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질인증센터는 위해물질 분석 영문교재를 제작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전문 연구원이 실습교육을 담당하여 한의약 품질관리 기술을 베트남 연수자들에게 전수한다. 연수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는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에서 실시하고, 오는 12월 11일 식약처 생약연구과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숙현 기자

메디칼뉴스

베트남 연구원 연수교육 실시

보도일자
2018년 11월 9일(금)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베트남 호치민시의 의약품 품질관리연구원의 응옌 쩌엥 틴(Nguyen Truong Thinh)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이 대구 품질인증센터에서 10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주간의 품질관리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베트남 규제기관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에서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및 벤조피렌 등 한약재의 위해물질 분석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지난해 몽골에 이어 두 번째 국제 연수교육을 진행하게 됐으며, 이러한 연수교육을 계기로 한의약 관련 국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한의약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베트남 연수자가 직접 준비해온 시료 아티초크(Artichoke)와 우슬(Achyranthes Root)을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한약진흥재단 분원 한약자원본부(전남 장흥)에서 한약재 재배지 견학 및 유전자감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전통의약 품질관리 연구원의 도 티 빗 투안(Do Thi Bich Thuan)은 “위해물질 관련 분석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베트남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분석방법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질인증센터(센터장 원재희)는 위해물질 분석 영문교재를 제작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연구원이 실습교육을 담당해 한의약 품질관리 기술을 베트남 연수자들에게 전수한다. 연수는 10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에서 실시하고, 12월 11일 식약처 생약연구과에서 연수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재승 기자

메디팍뉴스

한의임상정보화사업 공청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1월 12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 별관 중연회장 뭉툼홀에서 ‘한의임상정보화사업’ 주제로 한의학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의임상정보화 실시계획과 전자의무기록 분석설계 및 데이터표준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강민수 을지대학교 의료IT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원장,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병도 사무관,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의주 교수,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이준혁 센터장,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종웅 이사, 나눔제약 도기식 대표,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 원재희 센터장이 패널로 나서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약진흥재단은 국가공공기관으로 기원한약재 종자·종묘 보급, 한약자원 표준화 및 고도화,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 구축을 통해 의약품용 한약재 원료 생산, 한약재 품질검사, 한약제제 GMP/GLP 시설 구축, 원외탕전 시범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의약 산업 기반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는 한약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계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목표는 한약의 재배단계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최종단계까지의 정보수집과 임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향후 다양한 보건의료 자료와의 융합을 통한 분석이 가능한 한의임상정보화센터 구축하는 것이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약의 정보화, 객관화, 표준화가 시급하다고하며,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통해 한약에 대한 높은 접근성 체계를 마련하고, 이는 국민신뢰 증가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주재승 기자

세계일보

한의임상정보화사업 공청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1월 12일(월)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12일 엘타워 별관 중연회장 뭉툼홀에서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이란 주제로 한의임상정보화 실시계획과 전자의무기록 분석설계, 데이터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강민수 을지대학교 의료IT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원장,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병도 사무관,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의주 교수,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이준혁 센터장,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종웅 이사, 나눔제약 도기식 대표,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 원재희 센터장이 패널로 나서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약진흥재단은 국가공공기관으로 기원한약재 종자·종묘 보급, 한약자원 표준화 및 고도화,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 구축을 통해 의약품용 한약재 원료 생산, 한약재 품질검사, 한약제제 GMP/GLP 시설 구축, 원외탕전 시범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의약 산업 전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는 한약에 대한 높은 정보 접근성의 체계를 마련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목표는 한약의 재배단계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최종단계까지의 정보수집과 임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향후 다양한 보건의료 자료와의 융합을 통한 분석이 가능한 한의임상정보화센터 구축하는 것이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약의 정보화, 객관화,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통해 한약에 대한 높은 접근성 체계를 마련하면 국민신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한 의 신 문
hankorenews.com

한의학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및 DB구축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1월 16일(금)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16일 대구시 중구 남성로 품질인증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용역사업인 '한의학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마련 및 DB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용역은 한약재 유통 관련 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한의계 DB 현황 분석 등 현황분석을 통해 우선 한약재 기초정보, 생약정보를 기반으로 한약진흥재단 내 한방바이오소재, 천연물물질 데이터의 통합 구축, 한약제제의 원재료가 되는 한약재 원재료 및 제품 정보, 한약재 생약정보의 기초 정보인 기원식물정보와 토종자원 정보, 검사항목 정보 및 약용작물종자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데이터 품질 표준을 진단하고 이슈에 따라 도메인, 코드, 데이터 형식, 용어 표준 및 논리 ERD를 수립, 데이터현황 진단 등을 통해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의 품질 등에 관한 이슈 및 개선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목표 모델을 발표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이날 논의된 내용과 오는 23일 개최하는 워크숍을 통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과 통합 목표모델을 확정하고 내실 있는 한의학 DB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한의학 DB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1월 16일(금)

한약진흥재단이 한의학데이터품질관리 및 DB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16일 대구시 중구 남성로 품질인증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한의임상정보화사업의 용역사업인 '한의학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마련 및 DB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한약재 유통 관련 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한의계 DB 현황 분석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한약재 기초정보, 생약정보를 기반으로 재단 내의 한방바이오소재, 천연물물질 데이터의 통합 구축, 한약제제의 원재료가 되는 한약재 원재료 및 제품 정보, 한약재 생약정보의 기초 정보인 기원식물정보와 토종자원 정보, 검사항목 정보 및 약용작물종자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는 데이터 품질 표준을 진단하고 이슈에 따라 도메인, 코드, 데이터 형식, 용어 표준 및 논리 ERD를 수립했다. 데이터현황 진단 등을 통해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의 품질 등의 이슈 및 개선내용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목표 모델을 발표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과 통합 목표모델을 확정하고, 내실 있는 한의학 DB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숙현 기자

Break news

2018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1월 19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1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와 공동으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80여명이 참가하여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와 분석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별 소비자 인식 비교'라는 주제로 ▲2008, 2011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비교 (상지대 박해모 교수) ▲2014, 2017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비교 (우석대 김경한 교수) ▲한방의료이용 소비자의 한의계, 정부에 대한 기대 및 요구사항 (상지대 이선동 교수)을 발표했다.

이어 2부는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및 제공'(한약진흥재단 전해원 선임연구원) ▲ 2018년 9월초부터 공모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연구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연구주제 3건의 분석사례(세명대 고호연 교수, 경희대 이은경 교수, 경희대 전천후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고성규 대한예방한의학회 회장의 사회로 '한방의료이용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이선동 상지대 교수, 김유진 한약진흥재단 공공정책팀장, 박민정 한약진흥재단 진료지침개발팀장, 김춘배 연세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향후 한의약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관련 학술 연구 분야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정부 정책과 학계의 의견 등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대한예방한의학회

2018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1월 19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1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고성규)와 공동으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80여명이 참가해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와 분석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별 소비자 인식 비교'라는 주제로 ▲2008, 2011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비교(상지대 박해모 교수) ▲2014, 2017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비교(우석대 김경한 교수) ▲한방의료이용 소비자의 한의계, 정부에 대한 기대 및 요구사항(상지대 이선동 교수)을 발표했다.

2부는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및 제공'(한약진흥재단 전해원 선임연구원) ▲2018년 9월초부터 공모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연구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연구주제 3건의 분석사례(세명대 고호연 교수, 경희대 이은경 교수, 경희대 전천후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고성규 대한예방한의학회 회장의 사회로 '한방의료이용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선동 상지대 교수, 김유진 한약진흥재단 공공정책팀장, 박민정 한약진흥재단 진료지침개발팀장, 김춘배 연세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가 향후 한의약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관련 학술 연구 분야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정부 정책과 학계의 의견 등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률 기자

경북매일

한약재 ‘지유’ 감별 기술 개발

보도일자

2018년 11월 21일(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한약재 기원감별을 위한 방안으로 차세대유전자염기서열분석법(NGS)을 활용한 한약재 ‘지유(地榆)’의 기원식물 유전자마커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보감에서 ‘지유’는 각종 출혈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로 국내에는 오이풀, 긴오이풀, 가는오이풀, 흰오이풀 등이 자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유의 기원식물인 오이풀과 긴오이풀의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가는오이풀 등의 동속자원이 함께 혼입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약진흥재단은 차세대유전자염기서열분석법을 활용해 오이풀 등 동속자원 5종에 대한 기원식물을 감별할 수 있는 유전자마커를 개발했으며 염색체 유전자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 할 예정이다.

이곤영 기자

BBS NEWS

차세대유전자분석법 활용 한약재 기원감별 기술 개발

보도일자

2018년 11월 21일(수)

한약진흥재단이 한약재 기원감별을 위한 방안으로 차세대유전자염기서열분석법(NGS)을 활용한 한약재 ‘지유(地榆)’의 기원식물 유전자마커를 개발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지유’는 각종 출혈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로 국내에는 오이풀, 긴오이풀, 가는오이풀, 흰오이풀 등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유의 기원식물인 오이풀과 긴오이풀의 뿌리를 한약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중에는 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가는오이풀 등의 동속자원이 함께 혼입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약진흥재단은 차세대유전자염기서열분석법을 활용해 오이풀 등 동속자원 5종에 대한 기원식물을 감별할 수 있는 유전자마커를 개발했으며, 염색체 유전자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 할 예정입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차세대유전자염기서열분석법은 위품 한약재를 감별할 수 있는 좋은 분석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분석법을 기반으로 국내산 한약재에 대한 기원감별 · 감별키트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 장흥에 소재한 한약자원개발분부는 국내산 한약재의 기원식물 확보와 안전성 평가, 재배 고도화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갖춘 한약재 생산·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렬 기자

아이팝뉴스

한방바이오소재은행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보도일자
2018년 11월 22일(목)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신약연구팀(팀장 소재현) 한방바이오소재은행이 한약재에 생물전환(발효) 기술을 접목한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이하 소재)을 총 6800여종을 확보해 국내 기관, 연구소, 기업, 대학 등에 공급해 한의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300여종의 한약재를 이용, 총 6800여종의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을 확보했고, 확보된 소재는 현재까지 59개 기관에 2274종이 공급됐으며, 올해 14개 기관에 971종을 분양했다. 이렇게 분양된 소재는 여러 분야의 연구 소재로 이용돼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 중이다.

한방바이오소재은행에서 확보한 소재는 한약재에 생물전환 기법(미생물 및 미생물이 생산한 효소)을 적용한 추출물 및 분획물을 말한다. 이런 소재들은 한의약 소재의 한계와 기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원천기술 및 기능성 소재의 선점하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방바이오소재은행의 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수오, 이엽우피소의 독성 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으로 대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 한의신약연구팀은 지난해 11월 혈전 및 여성갱년기 완화에 효과가 있는 한약제제를 개발해 ㈜노브메타파마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는 2년 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여성 갱년기 완화 제품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기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 여성 갱년기 완화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 믿을 수 있는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한방바이오소재은행 소재를 이용해 항암, 여성갱년기 완화, 과민성대장증후군,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타겟으로 새로운 한약제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들이 속속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한방바이오소재은행은 새로운 소재를 꾸준히 확보해 관련 연구기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신약연구팀은 한약재 용담, 야명사, 석위 등을 생물 전환한 결과 항염증 효과가 증대됐으며, 이 내용을 한국응용생명화학학회에 발표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우수논문 발표상을 받았다.



노의근 기자

Break news

한방바이오소재은행,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큰 기여

보도일자
2018년 11월 22일(목)

한약진흥재단(이하 재단)은 22일 한의신약연구팀(팀장 소재현) 한방바이오소재은행이 한약재에 생물전환(발효) 기술을 접목한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이하 소재)을 총 6,800여종을 확보, 국내 기관, 연구소, 기업, 대학 등에 공급해 한의약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방바이오소재은행 생물전환 추출물,분획물 및 라이브러리 분양 예시 (C)한약진흥재단

지금까지 300여종의 한약재를 이용, 총 6,800여종의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소재는 현재까지 59개 기관에 2,274종이 공급되었으며, 올해 14개 기관에 971종을 분양했다. 이렇게 분양된 소재는 여러 분야의 연구 소재로 이용되어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 중이다.

한방바이오소재은행에서 확보한 소재는 한약재에 생물전환 기법(미생물 및 미생물이 생산한 효소)을 적용한 추출물 및 분획물을 말한다. 이런 소재들은 한의약 소재의 한계와 기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원천기술 및 기능성 소재의 선점하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방바이오소재은행의 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수오, 이엽우피소의 독성 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으로 대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 한의신약연구팀은 지난해 11월 혈전 및 여성갱년기 완화에 효과가 있는 한약제제를 개발해 ㈜노브메타파마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는 2년 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여성 갱년기 완화 제품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기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 여성 갱년기 완화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 믿을 수 있는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한방바이오소재은행 소재를 이용해 항암, 여성갱년기 완화, 과민성대장증후군,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새로운 한약제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들이 속속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한방바이오소재은행은 새로운 소재를 꾸준히 확보하여 관련 연구기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신약연구팀은한약재 용담, 야명사, 석위 등을 생물 전환한 결과 항염증 효과가 증대되었으며, 이 내용을 한국응용생명화학학회에 발표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다.



이성현 기자

한 의 신 문 제7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1월 28일(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7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약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한국한의약연구원 이준혁 센터장이 "한의약산업의 현주소" △한약진흥재단 김두완 본부장이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한 선결 및 향후과제" △한약진흥재단 남효주 팀장이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약산업"의 발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호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약진흥재단 김형선 팀장,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김주연 팀장,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이사, 아리바이오 강승우 소장, 한국크리사에제약 이호재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응세 원장은 "중국의 경우 중의약산업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쓰무라 한방제약사가 연간 1조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국익창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의약산업 현황, 선결 및 향후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한의약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2월 3일(월)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미래정책팀 김지원 연구원 (☎02-3393-4525, cactus@nikom.or.kr)으로 하면 된다.



윤영혜 기자

내달 5일 제7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1월 28일(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12월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7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약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한의약연구원 이준혁 센터장이 '한의약산업의 현주소' ▶한약진흥재단 김두완 본부장이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한 선결 및 향후 과제' ▶한약진흥재단 남효주 팀장이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약산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호철 교수가 좌장으로 한약진흥재단 김형선 팀장,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김주연 팀장,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이사, 아리바이오 강승우 소장, 한국크리사에제약 이호재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응세 원장은 "중국의 경우 중의약산업을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쓰무라 한방제약사가 연간 1조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국익창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의약산업 현황, 선결 및 향후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한의약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12월3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박종률 기자

아이팝뉴스

백두대간수목원에 토종 한약자원 150종 250점 기탁

보도일자

2018년 11월 29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는 토종 한약자원의 영구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한약자원 150종 250점을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한 한약자원은 2013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5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종자이며, 이들 종자들은 국산 한약재로 재배되고 있거나 한의약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로 이뤄져 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우리 토종 한약자원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기 위한 대비이며, 지속적으로 토종 한약자원을 수집하고 개발해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5월 10일 ‘야생식물 기반의 한의약 자원의 안정적 보전과 산업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약진흥재단은 향후 10년간 한약자원 5만점 이상을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하고 한의약 자원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의원 기자

BBS NEWS

백두대간수목원에 토종 한약자원 150종 250점 기탁

보도일자

2018년 11월 29일(목)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개발본부가 토종 한약자원의 영구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한약자원 150종 250점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한 한약자원은 2013년 8월부터 이달까지 5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종자입니다.

이들 종자들은 국산 한약재로 재배되고 있거나 한의약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입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우리 토종 한약자원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기 위한 대비이며 지속적으로 토종 한약자원을 수집하고 개발해 국가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5월 ‘야생식물 기반의 한의약 자원의 안정적 보전과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한약진흥재단은 향후 10년간 한약자원 5만점 이상을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하고 한의약 자원 공동연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종렬 기자

한 의 신문
akonnews.com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방문

보도일자
2018년 12월 4일(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일 한약진흥재단을 방문, 한약진흥재단 행정동 3층 대회의실에서 기관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 천연물 및 한방바이오소재, 한약제제 제형개발 실험실 등을 견학했다.

김대영 기자



메디팍뉴스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방문

보도일자
2018년 12월 4일(화)

대한한의사협회 시도 지부장 협의회 임원 15명이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을 기관 방문(사진)해 행정동 3층 대회의실에서 기관 소개를 받는 한편 천연물 및 한방바이오소재, 한약제제 제형개발 실험실 등 연구실을 견학했다.

주재승 기자



서울신문

한의학 보건정책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2월 6일(목)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7차 한의학 보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협회 등 범한의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학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센터장이 '한의학산업의 현주소' ?한약진흥재단 김두완 본부장이 '한의학산업육성을 위한 선결 및 향후과제' ?한약진흥재단 남효주 팀장이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학산업'등을 했다.

이준혁 센터장은 한의학 산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발표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 산업 주요 현황(한약재 분야, 한약제제 분야, 의료서비스 분야)을 수치로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시장 사례를 발표했다.

김두완 본부장은 "한의학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며, 재단에서는 실용 R&D 기반 산업화와 전 한의계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한의학 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효주 팀장은 "해외전통의학 시장 동향과 국내 한의학 산업현황을 비교?분석했을 때 한의학의 브랜드화, 국가의 한의학 해외진출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한의약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호철 교수가 좌장으로, 한약진흥재단 김형선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팀장,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이사, 아리바이오 강승우 소장, 한국크라시에제약 이호재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승재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학육성법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의학산업 육성을 비롯한 한의학 R&D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한약진흥재단이 한의학산업 육성 선도기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한의학 산업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찬규 기자

Break News

한의학 보건정책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8년 12월 6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승재)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7차 한의학 보건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명수(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협회 등 범한의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의학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센터장이 "한의학산업의 현주소"> 한약진흥재단 김두완 본부장이 "한의학산업육성을 위한 선결 및 향후과제"> 한약진흥재단 남효주 팀장이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학산업"등을 발표했다.

이준혁 센터장은 한의학 산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발표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 산업 주요 현황(한약재 분야, 한약제제 분야, 의료서비스 분야)을수치로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시장 사례를 발표했다.

김두완 본부장은 "한의학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이 선결적으로 필요하며, 재단에서는 실용R&D 기반 산업화와 전 한의계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 한의학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효주 팀장은 "해외전통의학 시장 동향과 국내 한의학 산업현황을 비교?분석했을 때 한의학의 브랜드화, 국가의 한의학 해외진출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한의약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호철 교수가 좌장으로, 한약진흥재단 김형선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팀장,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이사, 아리바이오 강승우 소장, 한국크라시에제약 이호재 부장이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승재 원장은 "한의학육성법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의학산업육성을 비롯한 한의학 R&D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한의학산업 육성 선도기관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한의학 산업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현 기자

연합뉴스

대구에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착공...내년 7월 완공

보도일자
2018년 12월 11일(화)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은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행사장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건축공사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과 함께 추진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다. 정부는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천164㎡, 지상 3층 규모로 추출농축실, 미생물실험실, 한약제제 개발실, 검체보관실, 분석실, 유틸리티실, 포장실 등을 갖춘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을 내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4일에는 전라남도 장흥군 부지 인근 행사장에서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기공식을 열 예정이다.

서한기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첫 삽 떴다

보도일자
2018년 12월 11일(화)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용 한약제제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건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11일 오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행사장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설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말부터 추진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3대 기반시설(인프라) 중 하나다. 3대 인프라 기반시설은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이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164㎡(약958평),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내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시설 내에 각종 한약제제 생산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추출농축실, 미생물실험실, 한약제제 개발실, 검체보관실, 분석실, 유틸리티실, 포장실 등이 마련된다. 준공 이후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 시범생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GMP 제조시설 적격성평가를 받고, 향후 위탁생산, 제조 제품의 품질 시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학계 및 연구기관, 영세한 한의 제약기업의 임상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대 인프라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제제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3대 인프라 중에서 두 번째로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구축사업의 기공식 행사는 14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장흥군 부지 인근 행사장에서 개최된다.

김춘호 기자

연합뉴스

장흥서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첫 삽 내년 7월 완공

보도일자
2018년 12월 14일(금)

전남 장흥군은 14일 오전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서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기공식을 열었다.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은 한의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는 연구시설이다.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은 8천㎡ 부지에 95억원이 투입된다. 세포 실험실과 분석실 등 5개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7월 완공된다. 40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한의약 안전성 검사와 국가치매관리, 한방난임치료연구 지원,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의 업무를 한다.

장흥군과 한약진흥재단은 2016년부터 한의약의 표준화와 산업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형민우 기자

매일일보

장흥군, 국내 유일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건립

보도일자
2018년 12월 14일(금)

전남 장흥군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국내 유일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이 들어선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14일 오전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건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는 연구시설이다.

장흥군과 한약진흥재단은 2016년 말부터 한의약의 표준화, 산업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과 함께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의 3대 인프라로 꼽힌다.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12월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GMP 건축공사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장흥군에 건립될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은 연면적 8,000㎡ 부지에 총사업비 95억원이 투입된다.

시설은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한약제제 분석실 등 주연구동을 비롯해 부속 5개동으로 구성됐다. 완공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다.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에는 약 40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한의약 안전성 인식개선, 국가치매관리, 한방난임치료연구 지원,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한의계 및 관련 기관과 연계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전라남도 장흥군에 비임상연구 GLP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시설이 완공되면 한의약의 경쟁력, 기술력,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등 한의약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통합의학과 생약산업으로 기반을 닦은 장흥군의 한의약 산업이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건립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한 의 신 문
ahnnews.com

김장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 돌보기 실천

보도일자
2018년 12월 17일(월)

한약진흥재단이 저소득 독거노인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개발본부는 지난 6일, 14일 이틀 동안 장흥군종합사회복지회관 장흥지역자활센터에서 이 같은 활동을 펼쳤다.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개발본부 연구원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담근 김장 김치 1500포기는 장흥군 지역 내 저소득층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약진흥재단은 사람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겨울철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고통을 나누려는 노력으로 한약진흥재단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보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펼쳐

보도일자
2018년 12월 17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는 지난 6일, 14일 양일간 전남 장흥군종합사회복지회관 장흥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김장나눔 봉사활동에는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개발본부 연구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정성스럽게 담아낸 맛있는 김장김치 1500포기는 장흥군 지역내 저소득층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종률 기자

BKT NEWS

송년 단체헌혈로 한해 마무리

보도일자

2018년 12월 31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31일(월) 경산 본원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2018년도 종무식을 대신하여 송년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송년단체헌혈행사는 동절기는 헌혈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로 학생들이 방학에 접어들며 전체적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 직원 50여명의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응세 원장은 “노·사가 뜻을 모아 회식 중심의 기존 송년회보다는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송년 단체헌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면서 “내년도에는 기존 의료봉사, 김장김치담그기, 단체헌혈 외 다양한 부문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월에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조현진 기자

한 의 신 문
skomnews.com

단체헌혈로 한해 마무리

보도일자

2018년 12월 31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31일 2018년도 종무식을 대신해 단체헌혈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동절기는 헌혈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로 혈액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약진흥재단 직원 5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산 본원 내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송년 단체헌혈을 한 것.

이응세 원장은 “노·사가 뜻을 모아 회식 중심의 기존 송년회보다는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송년 단체헌혈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기존 의료봉사, 김장김치담그기, 단체헌혈 외 다양한 부문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월에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대영 기자

시사오늘

체험형 청년 인턴사원 수료식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월 1일(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는 지난달 31일 경산본원 대강당 및 전남장흥 본원에서 경산본원 41명과 전남장흥 본원 16명 총 57명을 대상으로 2018년 청년인턴 사원 수료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수료한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기회부여를 통한 취업 디딤돌 제시를 위해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48일간 실시했다.

체험형 인턴 수료생들은 “비록 체험형 인턴이지만 한의약산업 실무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윤리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타 기관 취업을 위한 준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어 인턴생활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응세 원장은 “앞으로도 한의약분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약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경험을 비롯한 지역인재 역량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동훈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체험형 청년 인턴사원 수료식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월 1일(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해 12월31일 경북 경산본원 대강당 및 전남장흥 본원에서 경산본원 41명과 전남장흥 본원 16명 총 57명을 대상으로 2018년 청년인턴 사원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료한 체험형 청년 인턴은 사업은 청년들에게 기회부여를 통한 취업 디딤돌 제시를 위해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48일간 실시했다.

체험형 인턴에 참가한 이주현 졸업생은 “비록 체험형 인턴이지만 한의약산업 실무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윤리 등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타 기관 취업에 좋은 기회가 됐다”며 “재단에서의 인턴생활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응세 원장은 “미래 인력육성의 접점마련과 저변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청년인턴들은 공공기관 근무 경험으로 향후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의약분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약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의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업무경험을 비롯한 지역인재 역량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률 기자





삼백초 류마티스관절염 개선에 효과

보도일자
2019년 3월 4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 노종현 연구원이 한약재로 이용되는 삼백초 추출물이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노종현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삼백초 추출물(500 mg/kg)을 류마티스 관절염 유발 동물에 투여했다.

연구결과, 실험동물의 다리 부종과 홍반 및 무릎 부위의 염증세포 침입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진흥재단은 그동안 여러 한약재를 대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의 개선 효과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 삼백초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우수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삼백초는 예로부터 이뇨를 촉진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이뇨소종(利尿消腫) 작용과 열을 내리거나 독성을 풀어주는 청열해독(淸熱解毒)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재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한약자원의 과학적 연구로 농가소득 창출은 물론, 한의약 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영국의 국제학술지인 BMC 보완대체의학술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9년 19(2)호에 게재됐다.



설동훈 기자

라포르시안

삼백초 류마티스관절염 개선에 효과

보도일자
2019년 3월 4일(월)

한약진흥재단은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 노종현 연구원이 한약재로 이용되는 삼백초의 추출물이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삼백초 추출물(500 mg/kg)을 류마티스 관절염 유발 동물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실험동물의 다리 부종과 홍반 및 무릎 부위의 염증세포 침입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그동안 여러 한약재를 대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의 개선 효과를 연구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삼백초는 예로부터 이뇨를 촉진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이뇨소종(利尿消腫) 작용과 열을 내리거나 독성을 풀어주는 청열해독(淸熱解毒)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재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한약자원의 과학적 연구로 농가소득 창출은 물론, 한의약 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영국의 국제학술지인 BMC 보완대체의학술지 최근호에 실렸다.



박진규 기자

대구신문

우슬·지황·시호 등 12종 기원 한약재 종자 분양

보도일자
2019년 3월 5일(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서는 종자 보급을 위한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 종근, 종묘 12품목(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지황, 강황, 백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시호)을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약재 12품목의 종자는 유전자분석을 통한 기원확인과 품질을 검증한 우수 종자로 선별된 것이다.

올해 종자 보급량은 46ha 분량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며, 향후 종자 품목 및 보급량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농가는 한약재 종자보급은 물론, 재배교육 및 컨설팅을 받게 된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기원이 확인된 우수 한약재 종자·종묘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 확대와 한약자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원한약재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강병만 박사, 061-860-2852)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익 기자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기원확인 한약재 12품목 종자 보급

보도일자
2019년 3월 5일(화)

한약진흥재단이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12품목의 종자를 보급한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오는 15일 까지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 종근, 종묘 12품목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약재 12품목의 종자는 ▲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지황 ▲강황 ▲백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시호 등으로, 유전자분석을 통해 기원을 확인하고, 품질을 검증한 우수 종자다.

올해 종자 보급량은 46ha 분량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며, 향후 종자 품목 및 보급량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농가는 한약재 종자보급은 물론, 재배교육 및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응세 원장은 "기원이 확인된 우수 한약재 종자·종묘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 확대와 한약자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원한약재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숙현 기자

아이팝뉴스

14일 제8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9년 3월 11일(월)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주관하는 '제8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은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고성규 소장이 '국내 보건의료체계 현주소'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이 '국외 보건의료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약진흥재단 이화동 정책본부장, 대한한의학협회 이은경 부회장, 한국의료법학회 신은주 회장,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 경향신문 박효순 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정책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에 따라 한의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학은 의학과 함께 국내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해외 보건의료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의근 기자

한 의 신 문
hakminews.com

오는 14일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9년 3월 11일(월)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주관하는 '제8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고성규 소장이 '국내 보건의료체계 현주소'를,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의 '국외 보건의료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으로 한약진흥재단 이화동 정책본부장, 대한한의학협회 이은경 부회장, 한국의료법학회 신은주 회장,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 경향신문 박효순 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정책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에 따라 한의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학은 의학과 함께 국내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해외 보건의료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경향신문

국민건강의 보루 '한의학' 진흥, 연구
개발 투자와 시스템 법제화 시급하다

보도일자

2019년 3월 15일(월)

한의학이 국민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의사가 국민건강의 지킴이로 거듭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 이명수 의원과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8차 한의약보전정책포럼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선 한의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한 의약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성규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장은 “정부의 R&D사업 예산의 경우 한의관련사업은 지난 2017년 절정을 찍고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고 소장은 “R&D가 없고 산업이 없는 학문은 발전할 수 없다”면서 “올해는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84억원 감소한 155억원이 책정됐고, 신규사업과 범부처사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의약품 청구액 대비 한의학 청구액은 2015년 13조 9259억원 중 284억원, 2016년 15조 2905억원 중 309억원, 2017년 16조 2179억원 중 339억원 등 0.2%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의 보루 '한의학' 진흥, 연구개발 투자와 시스템 법제화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법제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推拿面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침술이나 약초의약품 등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편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유럽연합은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의 법적정의를 마련하고 인허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에 있어 각회원국들간의 규제체계를 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또한 중국은 중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했으며, 중의와 서의의 결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의 과학적 데이터 확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의학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스템 등을 정교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이사는 “한의학은 질병 중심이 아닌 건강 중심으로 가야하며 여기에는 방문보건이나 일차의료도 연관된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한방 진료에서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고 급여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법학회 신은주 회장은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넘어 화학적으로 융합해야하고 무엇보다 법률이 개정돼야 하며, 통합교육과 전통의약품 권리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한 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은 “전통의약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전통의약이 정착되고 사용량이 늘고 선택발전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런 시기를 놓쳤고 제도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지



만 자동차보험 적용처럼 제도화가 이뤄지면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정책센터장(본부장)은 “국민 대다수는 한의약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한다. 직역간 갈등이 커져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의학 R&D 관리는 전문인력과 지원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수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한의학정책의 전문기관으로의 일원화, 법제도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포럼을 주관한 한약진흥재단의 이응세 원장은 “한의학육성법의 개정으로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면서 “한의학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국민 의료수준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국가보건의료체계라는 큰 틀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의학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대한한 의사협회 회장 역시 학문의 융복합 발전 및 한의사가 보편적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의사와 한의사로 나누어진 독립된 카테고리가 아닌, 인접·유관 학문과 더 나은, 더 높은 수준의 의학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융복합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 의사가 의사의 한 종류로서 의사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사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영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지난 2월 18일 발령받은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학정책관도 참석,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한의학의 표준화, 산업화, 세계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방사능, 환경호르몬, 감염병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한의학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효순 기자

Break News

저소득층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 나서

보도일자
2019년 3월 21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이하 재단)은 지난 20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재단 직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장판교체, 도배, 전등교체, 화장실 수리, 정리 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집수리 가정의 선정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추천받아 1년에 5회 진행할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재단 조현우 한약자원개발본부장은“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사회적가치 창출과 나눔의 정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몰랐다”면서“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성현 기자

한 의 신 문
ahnnews.com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집수리 봉사

보도일자
2019년 3월 21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20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장판교체, 도배, 전등교체, 화장실 수리, 정리 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약진흥재단 조현우 한약자원개발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나눔의 정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몰랐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수리 가정 선정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추천받아 연 5회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서울신문

지역민과 함께하는 ‘NIKOM 열린 강연’ 개최

보도일자
2019년 3월 22일(금)

한약진흥재단은 27일 오후 2시 한약진흥재단 경산 본원 대강당에서 ‘제1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NIKOM 열린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열린 강연의 주제는 ‘1인 미디어의 시대, 1인 크리에이터 되는 법’으로, 김이기 전 EBS 제작국장이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알기 쉽게 강연할 예정이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임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고혁신은 물론, 지역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열린 강연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주민,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마련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인문교양, 한의건강 등의 주제로 정기 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강연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문의는 dari@nikom.or.kr (053)810-0358로 하면 된다.

한찬규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1인 크리에이터 되는 법’ 열린강좌 개최

보도일자
2019년 3월 22일(금)

한약진흥재단이 지역민을 위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강좌를 개최한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27일 한약진흥재단 경산 본원 대강당에서 ‘제1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NIKOM 열린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1인 미디어의 시대, 1인 크리에이터 되는 법’으로, 김이기 전 EBS 제작국장이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알기 쉽게 강연할 예정이다.

이응세 원장은 “임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고혁신은 물론, 지역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열린 강연을 기획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주민,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마련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인문교양, 한의건강 등을 주제로 한 정기 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박숙현 기자

연합뉴스

한약재 현초가 세포 내 활성산소 88% 제거

보도일자
2019년 3월 29일(금)

한약진흥재단은 한약재로 사용하는 현초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단이 한약재 30품목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한 결과 현초는 심장·뇌(신경)·폐·신장 세포 내 활성산소를 최대 88%까지 제거해 가장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특히 국내산 현초 주요 성분인 제라닌, 코릴라진, 퀘세틴, 캄페리트린 효능이 수입산보다 약 3배 높았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푸드 사이언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4월호에 게재됐다. 재단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자 재배법을 연구해 보급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동물 실험을 통해 현초가 관절염과 위염에 높은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재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현초의 항산화 및 관절염·위염에 효과 입증

보도일자
2019년 3월 29일(금)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한약재로 사용되는 현초를 대상으로 항산화, 항염증의 효능 및 성분을 연구 분석한 결과 관절염과 위염에 효능이 있으며,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음주 등의 요인이 늘어나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약진흥재단은 한약재 30품목에 대해 항산화 활성을 평가했으며, 이중 현초가 가장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현초는 심장, 뇌(신경), 폐, 신장의 세포손상 및 세포 내 활성산소를 최대 88%를 제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산 현초의 주요 성분인 제라닌(geraniin), 코릴라진(corilagin), 퀘르세틴(quercetin), 캄페리트린(kaempferitrin)이 수입산 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토종 한약자원의 과학적 가치와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종자 재배법의 지속적인 연구와 보급을 통해 산업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자원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우수한 한약재를 발굴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초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6(4)호에 게재된 바 있으며, 최근 동물 실험을 통해 관절염과 위염에 높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박종률 기자

Break News

한의학 세계화에 앞장

보도일자

2019년 4월 2일(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의학 영문 홍보 블로그 및 한의학 브랜드 개발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의학의 인지도는 중국 중의학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약진흥재단에서 2017년 한의학 전문가 1,665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세계화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경쟁 열위 항목으로 '한의학의 낮은 인지도'가 33.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한의학 해외진출 시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한의학 인지도 향상'이 24.6%로 나타났다.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한의학 국제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한의학 영문 블로그는 한의학에 대한 역사, 이론, 정책과 최신 동향 및 한의학 해외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한의학 정보를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호주, 베트남, 이탈리아 등의 해외 전통의학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동남아, 유럽, 중남미 및 러시아·CIS 국가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9년에는 해외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만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의료로서 한의학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한의학은 우수한 인력과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한의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해외전문가들이 많다”면서 “재단에서 제작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의 진면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국내 우수 임상치료기술 발굴 및 영상화, 해외 우수 전통의학 학회와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한의약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의학의 국제인지도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성현 기자



미디어뉴스

한의학 세계화 이끈다

보도일자

2019년 4월 2일(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의학 영문 홍보 블로그 및 한의학 브랜드 개발을 진행한다.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의학의 인지도는 중국 중의학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약진흥재단은 2017년 한의학 전문가 1665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세계화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경쟁 열위 항목으로 '한의학의 낮은 인지도'가 33.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한의학 해외진출 시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한의학 인지도 향상'이 24.6%로 나타났다.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한의학 국제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한의학 영문 블로그(<https://koreanmedicineworld.blogspot.com/>)는 한의학에 대한 역사, 이론, 정책과 최신 동향 및 한의학 해외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한의학 정보를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호주, 베트남, 이탈리아 등의 해외 전통의학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동남아, 유럽, 중남미 및 러시아·CIS 국가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9년에는 해외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만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의료로서 한의학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한의학은 우수한 인력과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한의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해외전문가들이 많다”면서 “재단에서 제작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의 진면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국내 우수 임상치료기술 발굴 및 영상화, 해외 우수 전통의학 학회와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한의약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한의학의 국제인지도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주재승 기자



경향신문

홍콩 최대 중의약그룹 퓨라팜과 손잡았다

보도일자
2019년 4월 25일(목)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용세)은 25일 경산 본원에서 홍콩 최대 중의약 과립제 제조·유통기업인 퓨라팜(회장 에브라함 쉐)과 전통의약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 한의약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용세 원장은 “이번 퓨라팜과의 업무협력은 한약제제의 해외 인지도 향상은 물론 한의약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향후 다양한 한의약 연구개발, 한약재 수출, 기술이전 등 한의약 산업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 홍콩 최대 중의약그룹 퓨라팜과 손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2017년 6월 홍콩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후 공동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고, 이번에 상호 이익이 예상되는 한약재 수출 및 자원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위 사진). 암환자 대상 기능성 천연화장품 개발 관련 연구용역 계약 체결, 한약진흥재단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농축 한약(과립) 제제 해외시장 진출 및 확산, 약용식물자원(한약재·중약재) 수집 및 제공 등에 적극 협력기로 했다.

한약진흥재단은 퓨라팜의 전통의약 분야 업무협력에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은 물론 한의약 해외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퓨라팜은 우선 한약진흥재단의 암환자를 위한 스킨케어 화장품 개발연구에 2만2000달러(USD)를 투자하며,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시 10년 간 126억원 이상의 수출 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또한 10년 간 한약제제 90억 원, 한약재 70억원 규모의 수출이 예상돼 한의약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퓨라팜은 1998년 설립된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CFDA)이 허가한 CCMG(Concentrated Chinese Medicine Granules :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의 약초 등 과립 혹은 알약 형태로 농축한 제제) 제조업체 5개 중 하나이다.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성도인 난닝에 중의약 제조공장(약 1만7141㎡)과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퓨라팜은 홍콩 중의약 과립제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 기업이다.



박효순 기자

대구일보

홍콩 중의약 그룹 퓨라팜 합의각서 체결,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보도일자
2019년 4월 29일(월)

한약진흥재단은 29일 홍콩 최대 중의약 과립제 제조 및 유통기업인 퓨라팜(회장 에브라함 쉐)과 전통의약 협력사업 합의각서를 체결, 한의약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날 양 기관은 2017년 6월 홍콩에서 양해각서 체결 후 공동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왔으며, 이번에 상호 이익이 예상되는 한약재 수출 및 자원정보 교류, 공동연구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암환자 대상 기능성 천연화장품 개발 관련 연구용역 계약체결 △한약진흥재단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농축 한약(과립) 제제 해외시장 진출 및 확산 △약용식물자원(한약재·중약재) 수집 및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약진흥재단과 퓨라팜의 전통의약 분야 업무협력은 국내 한의약 산업발전은 물론 한의약 수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퓨라팜은 한약진흥재단의 암 환자를 위한 피부관리 화장품 개발연구에 2만2천 달러(USD)를 투자한다.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시 10년동안 126억 원 이상 수출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또 10년간 한방제제 90억 원, 한약재 70억 원 규모의 수출이 예상돼 한의약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퓨라팜과 업무협력은 한방제제 해외 인지도 향상은 물론 한의약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한의약 연구개발, 한약재 수출, 기술이전 등 한의약 산업의 부가수익창출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퓨라팜은 1998년 설립된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FDA)이 허가한 퓨라팜은 홍콩 중의약 과립제 시장 점유율 70% 이상 차지한 기업으로 현재 홍콩 104개 직영 및 제휴 중의 클리닉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남동해 기자

경향신문

제2회 한약재 재배 및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개최

보도일자
2019년 4월 29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5월 19일 서울 총무로 정책본부 사무실에서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2회 한약재 재배 및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한약재의 재배 관리와 육묘 방법, 도시농업의 전반적인 이해 및 수경재배, 옥상 텃밭을 활용한 한약재 재배법을 배운다. 이론뿐만 아니라 황금·인삼·당귀 등 한약재 모종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현장실습의 기회도 주어진다. 교육은 서울에 이어 경북 경산(7월), 광주(10월)에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재단 측은 밝혔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약재 재배 및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정례화해 한의약 산업이 보고,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약재 재배 전문가 과정은 한의사들에게 국산 한약재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 한약재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5월 15일까지이다.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가족포함)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20명, 교육비 무료이다.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bmkang@nikom.or.kr) 또는 팩스(061-864-8706)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860-0852

박효순 기자



한 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및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개최

보도일자
2019년 4월 29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다음달 19일 서울 총무로 정책본부 사무실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2회 한약재 재배 및 도시농업 분야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인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은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약재의 재배 관리와 육묘 방법, 도시농업의 전반적인 이해 및 수경재배, 옥상 텃밭을 활용한 한약재 재배법을 배운다.

이론뿐만 아니라 황금·인삼·당귀 등 한약재 모종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현장실습의 기회도 주어진다.

교육은 서울에 이어 경북 경산(7월), 광주(10월)에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재 재배 및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정례화 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이 보고,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응세 원장은 "한약재 재배 전문가 과정은 한의사들에게 국산 한약재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 한약재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약재 재배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가족포함)는 누구나 가능하다.

선착순 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bmkang@nikom.or.kr) 또는 팩스(061-864-8706)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률 기자

왔체데일리

대한공중보건한의사 명예기자단 발대식 가져

보도일자
2019년 5월 8일(수)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은 지난 3일 한약진흥재단 서울 정책본부에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 명예기자단(이하 공보의 기자단)'의 발대식을 열고, 한의약 근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보의 기자단은 근거기반 한의약의 확산을 목표로, 연구 성과 확산 및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조직되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확산과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사업에 참여한 임상한의사 인터뷰, 한의약 연구 방법론 교육 및 사업단 주관 행사에 대한 취재 등 사업단 연구 성과 홍보 일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공보의 기자단의 활약상은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www.nck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업단 김남권 단장은 "공보의 기자단이 매개체가 되어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의약 임상연구에 대해 일반 한의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근거기반 한의약의 성과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운영,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등 한의약 관련 근거창출 및 확산·보급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근거기반 한의약 연구성과 확산 위해 공보의가 나선다

보도일자
2019년 5월 8일(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한의약 연구성과 확산과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자로 나선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은 지난 3일 한약진흥재단 서울 정책본부에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 명예기자단'의 발대식을 열고, 한의약 근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보의 기자단은 근거기반 한의약의 확산을 목표로 연구 성과 확산 및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확산과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사업에 참여한 임상한의사 인터뷰, 한의약 연구 방법론 교육 및 사업단 주관 행사에 대한 취재 등 사업단 연구 성과 홍보 일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공보의 기자단의 활약상은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www.nck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권 단장은 "공보의 기자단이 매개체가 되어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의약 임상연구에 대해 일반 한의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근거기반 한의약의 성과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숙현 기자



대구일보

‘제2회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과정’ 교육 성황

보도일자
2019년 5월 20일(월)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개발본부가 주최한 ‘제2회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과정’ 교육이 지난 19일 서울시 총무로 남산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약재 재배과정 교육에는 한의사 가족 60여 명이 참가해 도시 농법과 수경재배, 옥상 텃밭 및 실내 텃밭을 활용한 한약재 재배법과 인삼, 황금, 백출, 당귀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건강한 한약재 모종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전주에서 가족과 함께 교육에 참여한 삼성부부한의원 류지영 원장은 “한의사로 한약재를 취급하다 보니 한약재 종자와 원산지에 관심이 많았다”며 “교육을 통해 폭넓은 정보를 얻고 농가 계약 재배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사에게 국산 한약재의 이해를 높이고 6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된 한약재 재배 교육 과정을 7월 경북 경산, 10월 광주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가족 포함)는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061-860-0852.



남동해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과정’ 성황리 개최

보도일자
2019년 5월 20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에서 주최한 ‘제2회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과정’이 19일 서울 총무로 남산스퀘어에서 열렸다.

한의사 가족 60여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도시농법과 수경재배, 옥상텃밭 및 실내텃밭을 활용한 한약재 재배법과 인삼, 황금, 백출, 당귀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건강한' 한약재 모종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에서 가족과 함께 교육에 참여한 삼성부부한의원 류지영 원장은 “한의사로서 한약재를 취급하다보니 한약재 종자와 원산지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을 통해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농가 계약 재배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초등학생 두 딸도 한약재 화분을 만드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의사들에게 국산 한약재의 이해를 높이고, 한의약 산업이 보고,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된 한약재 재배교육 과정은 서울에 이어 경북 경산(7월), 광주(10월)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가족포함)는 누구나 가능하다.



박종률 기자



30개 질환 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 공개

보도일자
2019년 5월 27일(월)

한약진흥재단이 27일 예비 인증이 완료된 3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을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2016년~2021년)의 주요 중간 성과물로 국제표준인 AGREE II 방법론에 입각해 각 학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엄격한 검토·평가를 통해 예비인증이 완료된 자료다.

이날 발표된 예비인증본은 이 자료의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용목적과 주요대상에 따라 제공 범위를 3개 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 주요 내용은 △1단계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질환 권고문 및 확산도구 △2단계 각 권고문의 작성근거 △3단계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등이다.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돼 있는 1단계 자료를 제외하고 2, 3단계 수준의 자료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이번 예비인증본 공개를 통해 한의약 임상근거 확산, 학술적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방향 수립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예비인증본 공개

보도일자
2019년 5월 27일(월)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예비 인증이 완료된 3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본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2016-2021)의 주요 중간성과물로서 국제표준인 AGREE II 방법론에 입각, 각 학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엄격한 검토·평가를 통해 예비인증이 완료된 자료다.

사업단은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주요대상에 따라 제공 범위를 3개 단계로 구분했다.

단계별 주요 내용은 △1단계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질환 권고문 및 확산도구' △ 2단계 '각 권고문의 작성근거' △3단계 '구체적인 연구방법론' 등이다.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NCKM, www.nckm.or.kr)를 통해 공개돼 있는 1단계 자료를 제외하고 2, 3단계 수준의 자료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요청이 가능하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이번 예비인증본 공개를 통해 한의약 임상근거 확산, 학술적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방향 수립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운영,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등 한의약 관련 근거창출 및 확산·보급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설동훈 기자

국민일보

한의학진흥원 출범 '오천년의 한의학, 새로운 100년의 다짐' 선언

보도일자
2019년 6월 12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이 12일 경북 경산의 본원에서 업무협약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진흥원은 이날 '오천년의 한의학, 새로운 100년의 다짐'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출범식에 앞서 경북도는 전남도, 한국한의학진흥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한의학 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한의학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의학산업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전통 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한의학 시장은 매년 8%씩 성장하고 있어 2050년에는 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한의학 시장은 선호도 감소, 값싼 수입 한약재로 인한 국산 한약재 생산 위축, 농가 인건비 증가로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국한의학진흥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침체된 한의학산업을 살리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경북도는 한의학산업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산 기자

news1

한의학진흥원 출범 5천년 한의학 '과학·표준·세계화'

보도일자
2019년 6월 12일(수)

12일 오후 경북 경산시 갑제동 본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출범식에는 이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영성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장, 이재동 전국한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장,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장, 송민호 제주한의학연구원장, 최문석 대한한 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이응세 한국한 의약진흥원장은 한의학산업 육성·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주요 한약자원 생산지인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제천시, 봉화군, 산청군, 영양군, 장흥군, 진안군, 평창군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한의학진흥원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개 지자체와 한의학진흥원은 한약재 재배·관리·유통·가공 등을 공유하고 '한 의약 동맹'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전국 12개 한의학 대학교 '한의학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 협약도 맺고 한의학 소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연구, 과학적 검증을 통한 한 의약의 세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국산 한약재의 재배·보존·유통에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우수한약제제 현대화 및 산업화, 한의학 소재은행 구축을 통한 한의신약 개발, 한의의료기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보장성 강화, 한의학 세계화 한의학 산업 전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 기관이다.

이응세 원장은 "한국한의학진흥원 출범이 5000년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만들고 한의학 육성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용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국제학술대회서 우수포스터 발표상 수상

보도일자
2019년 6월 25일(화)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이 'HT-29에서 당귀육황탕 생물전환 추출물의 AKT pathway를 통한 세포증식 및 COX-2 발현 억제 효과(DYT-BE Suppress Proliferation and COX-2 Expression through the AKT pathway in HT-29)' 연구로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19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인간 대장암세포에서 당귀육황탕 생물전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주저자 박지은, 교신저자 박효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신약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물전환된 당귀육황탕 추출물이 대장암세포(HT-29)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성장과 진행의 주요 요소인 COX-2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밝혀냈다.

이응세 원장은 "생물전환된 당귀육황탕이 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암 관련 염증성 질환 개선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소재은행을 구축 중이며, 한의약 소재에 생물전환 기술을 접목해 기능이 개선된 한방바이오소재 6800여 종과 천연물질 1500여 종을 확보, 분양하고 있다.



박종률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당귀육황탕 추출물 항염증 효과' 우수 포스터상 수상

보도일자
2019년 6월 25일(화)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인간 대장암세포에서 당귀육황탕 생물전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19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HT-29에서 당귀육황탕 생물전환 추출물의 AKT pathway를 통한 세포증식 및 COX-2 발현 억제 효과'(주저자: 박지은, 교신저자: 박효현) 연구를 발표해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진흥원 한의신약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물전환된 당귀육황탕 추출물이 대장암세포(HT-29)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성장과 진행의 주요 요소인 COX-2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효과를 밝혀냈다.

이응세 원장은 "생물전환된 당귀육황탕이 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암 관련 염증성 질환 개선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소재은행을 구축 중이며, 한의약 소재에 생물전환 기술을 접목해 기능이 개선된 한방바이오소재 6800여 종과 천연물질 1500여 종을 확보, 분양하고 있다.



박숙현 기자

한국경제 한의학 세계화 위한 브랜드 공모

보도일자
2019년 7월 8일(월)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이달 26일까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를 공모한다. 영문 또는 국·영문을 결합한 브랜드다. 주제는 자연치유적 의학과 사람 중심 의학, 융합 의학, 전통적이고 건강한 이미지, 전통 의학의 새로운 계승, 미래 의학, 과학화 등이다.



연합뉴스

한의학 세계화 브랜드 공모 정체성·가치 함축

보도일자
2019년 7월 8일(월)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공모전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전통의학시장에서 한의학 차별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의료로서 한의학 가치를 세계시장에 알리려는 취지다.

영문 또는 국·영문을 결합해 자연치유적 의학, 사람중심 의학, 융합 의학, 전통적인 건강 이미지, 전통의학 계승, 미래의학, 과학화 등을 담아야 한다. 전문가 심사, 내외국인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와 한의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우수상(1명 상금 100만원) 등 4명을 뽑는다.

국적·연령에 관계없이 홈페이지(www.gongmo4u.com)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출품작 수에 제한이 없다.

이응세 한국한의학진흥원장은 "세계 전통의학시장이 급성장해 한의학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릴 대표 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각종 홍보물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한의학 브랜드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재혁 기자

서울경제 한의학산업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전통의학 산업전·컨퍼런스' 개최

보도일자
2019년 7월 10일(수)

국내 한의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통의학 산업대전 및 국제 컨퍼런스'가 10일까지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에서 개최된다.

9일 개막한 이번 행사는 '전통의학의 새로운 도전과 협력'을 주제로,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진흥원·대구한의대 등이 주관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산·학·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컨퍼런스는 기조연설에 이어 품질관리, 약리학·독성학, 한방제제·침술, 임상연구·침술 등 분야별 전문가 강연 및 토론이 이어진다.

영국의 모니크 시몬스 전통의학 우수임상 연구협회(GP-TCM RA) 회장은 첫날 기조강연(전통의학학을 위한 우수약재 공급의 보장방법)에서 전통의학 활성화를 위한 우수약재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분야별 주제발표에서는 9개국 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신 전통의학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대전에는 25개 기업이 56개 부스를 설치해 우수 한의학 관련 제품 및 의료 기기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한의의료체험관, 한약재표본전시관, 한의학산업관, 한의약식품관 등 테마별 전시관을 꾸며 국내 한의학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한의의료체험관에서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과 경북한의사회에서 맥진과 사상체질 검사를 통한 무료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한약재표본전시관에서는 한약재 재배, 약초화분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과 산업, 문화교류의 장"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학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손성락 기자

대경일보 대구한의대서 2019 전통의학산업 대전 및 국제컨퍼런스 열려

보도일자
2019년 7월 10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2019 전통의학산업대전 및 국제컨퍼런스'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한의학관에서 개최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및 대한한 의사협회, 한국한 의과대학장협의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구한의대학교 등이 후원하는 전통의학산업대전은 한의학산업 기술지원 및 진로상담관을 비롯, 한의의료체험관, 한약재표본전시관, 한의학산업관, 한의약식품관 등 25여개 기업 및 기관·단체가 총 56여개 부스에 참가해 열린다.

기술지원 및 진로상담관에서는 진흥원이 보유한 한의학산업 기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한의학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첫째날에는 한약재(제제) 제형 개발에 이어 둘째날에는 한약 소재발굴과 한의학 응용제품 및 한의약침약제에 대한 기술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초·중고생들을 위한 진로상담도 동시에 열린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및 경북도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한의의료진료와 대한맥진학회의 맥진 무료진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마련돼 외국인 및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 등 9개국에서 300여명의 전통의학 분야 학자와 연구원 및 학생 등이 참석했다.

영국 왕립 식물원 모니크 시몬스(Monique Simmonds) 교수와 대구한의대 변준석 의무부총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임상, 침술, 약리학, 독성학, 규제, 품질관리(QC) 등의 분야에서 3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결과와 동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다수의 해외 전통의학 전문가·연구자가 참석하는 국제 학술대회 유치로 한의학 산업 인프라 홍보 및 네트워킹을 통한 국내 업체 해외 진출 발판이 마련되는 한편 경북 지역 한의학 산업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 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에서 참석하는 관련업계·학계 종사자 간 학술·산업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연구성과 창출과 더불어 해외 초청자 및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한의학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 한의학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

한 의 신 문
ahomnews.com

해밀한의원·청연한방병원·기린 한의원 원외탕전실 '인증'

보도일자
2019년 7월 15일(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최근 해밀한의원, 청연한방병원, 기린한의원(구리 원외탕전실)의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 대해 원외탕전실 인증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총 5곳으로 일반한약조제 탕전실 4곳(모커리한방병원 2018년 인증)과 약침조제 탕전실(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 2018년 인증) 1곳이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들 원외탕전실은 이 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되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한의약진흥원(www.niko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를 통해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1주기(2018년~2021년)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으로, ‘약침’은 KGMP에 준하는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으로 평가받는다.

김대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해밀한의원·청연한방병원·기린한의원 원외탕전실 인증

보도일자
2019년 7월 15일(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해밀한의원 등 3곳의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라 해밀한의원 원외탕전실,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기린한의원 구리 원외탕전실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외탕전실 1주기(2018~2021년)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2018년 2개 포함 총 5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를 통해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종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경북지역 청년 귀농인 대상
맞춤형 한약재 재배 교육 실시**

보도일자
2019년 8월 14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14일 경북 경산 바람햇살농장에서 경북지역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약재 재배 종합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상생 협력과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경북지역 청년 귀농인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청년장기귀농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한약재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한약재 재배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지역 사회 청년귀농인과 상생하며 농촌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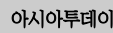
이날 교육은 ▲한약재의 일반현황 ▲한약재 재배 시 주의사항 ▲한약재의 미래 신소득 작물 등 사례 중심적인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 홍창우씨는 "교육을 통해 한약재 재배부터 한약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됐다"면서 "특히 경북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오미자, 도라지, 작약 재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한약재의 미래 신소득 작물 재배로 앞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응세 원장은 "국산 한약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에게 꾸준한 기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한약재 재배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종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률 기자



아시아투데이

**경북지역 청년 귀농인 대상
맞춤형 한약재 재배 교육 실시**

보도일자
2019년 8월 14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이 14일 경북지역 청년 귀농인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약재 재배 종합기술교육'을 실시했다.

15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 식품부가 주관하는 청년 장기 귀농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경산 바람 햇살 농장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한약재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한약재 재배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지역 사회 청년 귀농인과 상생하며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약재의 일반현황, 한약재 재배 시 주의사항, 한약재의 미래 신소득 작물 등 사례 중심적인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 홍창우씨는 "교육을 통해 한약재 재배부터 한약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됐다"며 "특히 경북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오미자, 도라지, 작약 등의 한약재가 미래 신소득 작물로 앞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한의학 세계화 위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도일자
2019년 9월 11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11일 오전 서울 정책본부에서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네이밍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상에 'K-Medi'를 선정했다.

이번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은 지난 7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해외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만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의료로서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시장에 알릴 수 있는 자연치유적 의학, 사람 중심 의학, 계승과 융합, 미래의학 등의 네이밍 방향을 제시했다.

국적, 연령 제한 없이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86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들의 1, 2차 심사와 내·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서베이APP,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4개 네이밍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K-Medi'는 한국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은 KOREA의 K를 사용해 외국인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현존하는 K-pop, K-beauty와 함께 한의약을 세계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 김수진씨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이밍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K-Medi 브랜드가 K-Pop처럼 전 세계에 나아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에는 한의학의 전통을 잇는 주체가 한국(KOREA)임을 각인시킨 동시에 미래성을 함께 도출한 명칭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의미를 담은 'K-Medicine'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약을 뜻하는 Medicine과 한국의 K를 합성해 한의학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은 'MEDI-K'와 단순치료의미가 아닌 몸의 기운을 관리해준다는 의미의 'K-Medicare'(한국K, 의학 Medi, 관리 Care) 두 작품이 선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한의학의 세계화에 부합되는 다양한 네이밍 아이디어를 알 수 있었고, 최종 결과를 토대로 BI(Brand Identity)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디자인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한의학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브랜드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과 국제행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과 연계해 해외에 알려 나갈 계획이다.

박종률 기자



한 의 신문
hannews.com

한의학 세계화 브랜드 네이밍 'K-Medi'

보도일자
2019년 9월 11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네이밍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K-Medi'를 선정했다.

해외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만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의료로서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시장에 알릴 수 있는 자연치유적 의학, 사람 중심 의학, 계승과 융합, 미래의학 등의 네이밍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86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1, 2차 심사에 이어 내·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서베이APP,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개의 네이밍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K-Medi'는 한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KOREA의 K를 사용해 외국인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고, 현존하는 K-pop, K-beauty와 함께 한의약을 세계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한의학의 전통을 잇는 주체가 한국(KOREA)임을 각인시킨 동시에 미래성을 함께 도출한 명칭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의미를 담은 'K-Medicine'이 뽑혔다.

장려상에는 약을 뜻하는 Medicine과 한국의 K를 합성해 한의학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은 'MEDI-K'와 단순치료의미가 아닌 몸의 기운을 관리해준다는 의미의 'K-Medicare'(한국K, 의학 Medi, 관리 Care) 두 작품이 선정됐다.

11일 한의학진흥원 서울 정책본부에서 가진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네이밍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상의 영예를 안은 김수진 씨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이밍을 생각하게 됐다"며 "K-Medi 브랜드가 K-Pop처럼 전 세계에 나아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한의학의 세계화에 부합되는 다양한 네이밍 아이디어를 알 수 있었고, 최종 결과를 토대로 BI(Brand Identity)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디자인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한의학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브랜드는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과 국제행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과 연계해 해외에 알려나가게 된다.

김대영 기자



원외탕전 인증탕전실 공표

보도일자
2019년 9월 24일(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용세)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약침조제 탕전실과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라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인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2018년 2개 포함 총 7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어 국민들이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설동훈 기자

Break News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 인증탕전실 공표

보도일자
2019년 9월 24일(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용세)은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약침조제 탕전실과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 일반한약조제 탕전실에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라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인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2018년 2개 포함 총 7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성현 기자

e-의료정보

한·양방 융합형 항암제 개발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보도일자
2019년 9월 26일(목)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립암센터는 2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산본원 1층 대강당에서 제4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항암제 개발을 위한 한의약기반의 한·양방 융합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기반 다중분자타겟 항암제 개발(한의기술R&D1팀 김효정 박사) △분자타겟 항암 유효물질 함유 추출물의 암예방 효과연구(산업화지원팀 강윤환 박사) △한의약소재 유래 천연물질의 안전성 연구(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연구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는 △NIKOM 천연물질: Anoikis 감작제 발굴(이행성연구부 김용연 연구부장) △한약재 유래 천연물질의 항암활성 연구(이행성연구부 윤경실 박사) △10B08의 KRAS 돌연변이 폐암 표적치료제로서의 가능성 탐색연구(이행성연구부 신동훈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공동연구 경험을 토대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서 양 기관이 고유 목표를 달성하고, 항암제 개발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그동안 연구해온 천연물의 항암 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세미나와 함께 ‘인권·청렴·소통의 날’로 지정해 인권교육과 인권 경영현장을 선포하고,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또한 기관장과 전 직원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통죽(通節)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김태완 기자

쿠키뉴스

한·양방 융합 항암제 개발 공동세미나

보도일자
2019년 9월 26일(목)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립암센터는 26일 오후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산본원 1층 대강당에서 제4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항암제 개발을 위한 한의약 기반의 한·양방 융합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기반 다중분자타겟 항암제 개발(한의기술R&D1팀 김효정 박사) △분자타겟 항암 유효물질 함유 추출물의 암예방 효과연구(산업화지원팀 강윤환 박사) △한의약소재 유래 천연물질의 안전성 연구(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연구원)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에서는 △NIKOM 천연물질: Anoikis 감작제 발굴(이행성연구부 김용연 연구부장) △한약재 유래 천연물질의 항암활성 연구(이행성연구부 윤경실 박사) △10B08의 KRAS 돌연변이 폐암 표적치료제로서의 가능성 탐색연구(이행성연구부 신동훈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공동연구 경험을 토대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서 양 기관이 고유 목표를 달성하고, 항암제 개발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그동안 연구해온 천연물의 항암 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세미나와 함께 ‘인권·청렴·소통의 날’로 지정해 인권교육과 인권 경영현장을 선포하고,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또 기관장과 전 직원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통죽(通節)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태욱 기자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0월 2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오는 10월 27일 10시부터 17시까지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제4회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서울과 경북 경산에서 두 차례 실시됐으며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한약재의 재배 관리, 도시농업의 국내외 동향, 한약재를 활용한 힐링·체험존 구성법 등이다. 이론교육 외에 황금·인삼·당귀 등 한약재 모종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현장실습의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10월 20일까지이며,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가족포함)는 누구나 가능하다. 선착순 20명, 교육비 무료. 한국한의학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설동훈 기자



광주서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 실시

보도일자
2019년 10월 2일(수)

한의학진흥원이 광주광역시에서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오는 27일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제4회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예정된 광주교육에서 올해 마무리를 짓는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의사는 한약재의 재배 관리, 도시농업의 국내외 동향, 한약재를 활용한 힐링·체험존 구성법을 배울 수 있으며, 황금·인삼·당귀 등 한약재 모종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현장실습의 기회도 주어진다.

한의학진흥원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재 재배 및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정례화 함으로써 한의학 산업이 보고,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숙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건강보험 교육 보험
한약제제 활성화 머리 맞대
보도일자
2019년 10월 11일(금)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와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공중보건한의사, 개원한의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이 '한약제제 정책 및 제도 현황' ▶제중한의원 구가람 원장(보험한약네트워크)이 '임상증례로 보는 한약제제사용:다빈도 처방중심으로' ▶경희김한겸한의원 김한겸 원장(보험한약네트워크)이 '근골격계 질환에서 한약제제 사용'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성수현 팀장은 국내 보험 한약제제 현황과 국외 한약제제 현황을 수치로 살펴본 것으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구가람 원장은 한약제제의 편리한 휴대성과 즉시처방 및 단기처방,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들었으며, 질환군별 보험 한약제제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김한겸 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사용하는 9개 보험 한약제제의 임상사례와 가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단미엑스제(보험용)를 발표했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교육은 보험 한약제제 정책과 임상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해 일선 임상현장에서 보험 한약제제 사용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약제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은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해 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일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사용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박종률 기자

경북매일
건강보험 교육 보험
한약제제 활성화 머리 맞대
보도일자
2019년 10월 14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용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학진흥원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중보건한의사, 개원한의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을 가졌다.



이곤영 기자

경향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시찰

보도일자
2019년 10월 22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18일 경북 경산 본원에서 2019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시찰 대표단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진선미, 김순례, 윤종필 위원이 참석해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연구시설 현장을 둘러봤다.

왼쪽부터 진선미 위원, 김상희 위원, 윤종필 위원, 이응세 원장, 기동민 위원, 김 이응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민 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 산업을 진흥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한의학진흥원 현장시찰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이어 이루어졌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한의학 산업 진흥기관이다. 한약기술 과학화, 한약자원 고도화, 한의의료 서비스 혁신 등 한의학 기반 조성과 효율화를 통해 한의학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고 있다. 이 원장은 “오랜 역사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을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한국이 세계적인 한의학 산업 국가로 발전하는데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한 의 신 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시찰

보도일자
2019년 10월 22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진선미, 김순례, 윤종필 위원은 지난 18일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 경북 경산 본원을 방문해 2019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시찰 대표단으로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이응세 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연구시설 현장을 둘러봤다.

이응세 원장은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 산업을 진흥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아이팝뉴스

제3차 한의약 미래 기획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0월 25일(금)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미래 기획 포럼'을 개최한다.

한의약 미래 기획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 기관, 정부 정책 관계자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과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진행해왔다.

이번 제3차 포럼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의 효과적 적응과 혁신을 위한 한의학 교육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한의약 교육현황 소개와 세계 의과 교육편승을 위한 전략 ▲한의 인력 수급의 적정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기초-임상 연계, 의료기기 활용 등 한의학 교육 발전 계획 ▲한의약 진료 표준화를 위한 교육 개선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 송미덕 학술부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인창식 인증기준개발 위원, 대한한의학영상학회 송범용 회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노혜린 교수가 참석한다.

패널 토론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이 좌장으로, 교육부 구영실 대학학사제도과장,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현대 선임연구위원, 대한한의사협회 송호섭 학술이사, 대한한 의사전공의협의회 이수환 회장, ㈜씨와이 윤영희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포럼은 세계 일류 의학으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한의학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한의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의근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한의학 교육 발전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0월 25일(금)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한의학 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오는 3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미래 기획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미래 기획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 기관, 정부 정책 관계자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과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의 효과적 적응과 혁신을 위한 한의학 교육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의약 교육현황 소개와 세계 의과 교육편승을 위한 전략 ▲한의 인력 수급의 적정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기초-임상 연계, 의료기기 활용 등 한의학 교육 발전 계획 ▲한의약 진료 표준화를 위한 교육 개선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 송미덕 학술부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인창식 인증기준개발 위원, 대한한의학영상학회 송범용 회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노혜린 교수가 참석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교육부 구영실 대학학사제도과장,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현대 선임연구위원, 대한한의사협회 송호섭 학술이사, 대한한 의사전공의협의회 이수환 회장, ㈜씨와이 윤영희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전 신청을 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해야 하며, 사전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미래정책팀 우종민 선임연구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의학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한의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숙현 기자

아시아투데이

9차 한의약 보건정책포럼· 국회 대토론회

보도일자
2019년 10월 29일(화)

한국한의학진흥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9차 한의약 보건정책포럼 및 국회 대토론회개최했다.

29일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으며 한의약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 등 미래 맞춤형으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진흥원 등은 한의약산업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전략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임병목 교수팀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9가지 핵심주제를 제안했으며 이어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등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장경국 기자

한 의 신 문
akomnews.com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보도일자
2019년 10월 29일(화)

인구 고령화로 만성·노인성 질병 관리를 위한 예방 및 건강증진이 강조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과 보건의료의 결합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의료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보완대체의약 시장 규모가 201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1441억 달러(약 166조원)에서 2022년이면 1716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려 한의약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영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추진 방향(부산대학교 임병목 교수)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원광대학교 기지에 교수) △한의약 첨단산업화 R&D 지원방안(부산대학교 하기태 교수) △한의약 정보 고도화 추진 방안(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 △미래 한의약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한국한의학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임병목 교수는 올해 12월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가칭)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 전략안은 세계 전통·보완의약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의약 공급체계 △한의약의 융복합 R&D 지원 △한의약 정보 고도화 추진 △미래 대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9가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기지에 교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의약 공급체계를 위해 규격품이 생산되지 않거나, 소량 생산되는 한약재의 공공 공급체계를 갖추고 품질인증 농산물로 제조된 한약재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인증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기태 교수는 한의약의 융복합 R&D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만성·노인성 질환을 한약으로 치료하기 위해 3만 여개 처방을 활용,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을 발굴하고 한방병원을 한의약산업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형 한방연구원’ 지정을 제안했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한의약 정보 고도화 추진을 위해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과 한약재 실험정보 지원시스템 운영을, 한현용 정책본부장은 미래 대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로 한의약 제약·의료기기 혁신형 기업 인증, 우수인력 양성 지원, 국제 임상연수원 건립 방안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 보완해 12월 말 (가칭)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021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세부사업별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혁신형 한의약기업 인증 등 사업근거 확보를 위해 한의약 육성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창호 교수는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발굴과 관련해 약효중심의 분류체계가 필요하고 한약제 안전성 제고는 개별연구단계에서 할 수 없는 만큼 관의 역할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형권 대표도 우리나라 한약 산업은 일본, 중국, 대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들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우수한 약효를 내기위한 적정 도즈를 찾아내 근거가 충분한 의약품들을 만들어 낸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문석 부회장은 임상현장에서 활용도를 얼마나 높여주는냐가 한의약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기저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건강보험 등재문제까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는 개발 후 한의사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허가 및 신고 트랙이 개선되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통해 소비를 늘려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생약제제 정의 개선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뿐 아니라 기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약 시장 축소 이유로 실비보험과 홍보 문제를 꼽은 고호연 과장은 한약재 기원 문제는 공공기관과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 함께 속도를 맞춰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비용문제로 환자의 접근성이 막혀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치료법과 약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약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처방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일원화는 장기적으로 접근돼야 할 문제로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개원을 통한 협진으로 갈등이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협력, 보완관계로서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점차 일원화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과정에서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의 의료 건강보험제도에 진단수가가 거의 없다는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특히 진단기기에 대한 빅데이터 생산을 위해 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개발될 것이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문석 부회장은 “학문은 계속 발전하고 기기는 각자의 학문에 맞춰 응용하는 것이다. 한의학적 원리, 양의학적 원리가 따로 있지 않다. 원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호연 과장도 “원리보다 어떠한 활용목적으로 쓰여 지는지가 중요하다. 한식 요리사라고 아궁이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 목적과 국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 역시 “현대의료의 발전은 도구의 발전이지 이론의 발전이 아니다. 다만 보험해주면 기기를 개발하겠거나 기기가 개발되면 보험해 주겠다는 답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하는 식의 논란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한의약 산업이 취약하니 공적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의약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한의약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사들이 세계적인 우수한 의료기술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한의술도 뛰어나다는 명성을 얻어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한의약이 발전해 나가는 기틀을 꼭 마련해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더 갖고 한의약산업에 대한 혁신성장 추진방안도 곧 나오게 될 예정인 만큼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발전전략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한의 건강보험 급여문제가 30년간 묶여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은 한의약 산업에 대한 그간의 보건의료계, 사회, 정부의 관심 정도가 투영된 결과”라며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의약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한의약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오랜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한의약산업이 미래에 만성·노인성 질환을 극복하는데 활용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드리며 기업에게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추진전략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형용 회장은 “이웃나라 중국, 일본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이 산업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원화된 기형적 의료제도에서 비롯된 한·양방 갈등에 있다”며 “산업화가 되려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 원인을 혁신해야 한다. 서로 공동영역을 정하고 협업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영 기자

충청리뷰

장흥군, 한약비임상시험센터 6일 준공

보도일자
2019년 11월 6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6일 오전 전남 장흥군에서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과학화·세계화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연구시설이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등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는 30여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한약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한약을 활용한 치매, 난임 등 각종 난치성 질환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이곳에서 연구되는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한의약 보장성 확대와 한약제제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8천㎡ 부지에 총사업비 95억원이 투입돼 지난 8월 완공됐다.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한약제제 분석실 등 주연구동과 부속 5개 동 규모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향후 한의계 및 관련기관과 연계해 한의약 안전성, 국가치매관리, 한방난임치료 연구,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응세 한국한의학진흥원장은 "GLP센터는 한약제제 산업 육성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핵심 인프라로서, 한의약의 경쟁력, 기술력,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등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 한의약을 온고지신 정신으로 계승 발전해 국민이 '믿고 먹는 한약'을 보증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오는 14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GMP센터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GLP, GMP 센터는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성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준공

보도일자
2019년 11월 6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6일 오전 전남 장흥에서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과학화·세계화 기능을 수행할 첨단 연구시설을 갖춘 전임상시험기관인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등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GLP센터에서는 30여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한약 안전성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한약을 활용한 치매, 난임 등 각종 난치성 질환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곳에서 연구되는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한의약 보장성 확대와 한약제제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대지면적 8000㎡ 부지에 총사업비 95억원이 투입된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는 지난 8월 완공돼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한약제제 분석실 등 주연구동과 부속 5개동 규모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향후 한의계 및 관련기관과 연계해 한의약 안전성, 국가치매관리, 한방난임치료 연구,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응세 원장은 "GLP센터는 한약제제 산업 육성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핵심 인프라로서 한의약의 경쟁력, 기술력,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등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약을 온고지신 정신으로 계승 발전해 국민이 '믿고 먹는 한약'을 보증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오는 14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GMP센터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GLP, GMP 센터는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률 기자

경북일보

한약제제생산센터(GMP) 준공

보도일자

2019년 11월 15일(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14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반이 될 한약제제생산센터(GMP)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약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지난 6일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를 준공한데 이어 이번에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생산센터(GMP)를 완공했다.

한약제제생산센터는 한의약 제형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위약) 생산, 공급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약제제 전문 인력 양성과 한의약 산업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한의계 숙원사업이자 한의약 핵심 공공 인프라인 한약제제생산센터는 연면적 3251㎡ 부지에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한약제제 제조시설, 추출 농축실, 한약제제 제형개발실, 품질 분석실, 미생물 실험실 등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췄다. 이응세 한국한의학진흥원장은 “앞으로 한약제제 전문 위탁생산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다”면서 “한약제제생산센터는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 관련 산업이 한국을 넘어 해외로 뻗어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대구일보

한약제제생산 센터 준공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보도일자

2019년 11월 15일(금)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한약제제생산센터(GMP)를 준공하는 등 한의약 경쟁력 증진과 해외진출 교두보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자리한 한약제제생산센터는 연면적 3천251㎡ 규모다. 한약제제 제조시설, 추출 농축실, 한약제제 제형 개발실, 품질 분석실, 미생물 실험실 등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췄다. 사업비는 총 95억 원이 투입됐다.

한약제제생산센터는 한의약 제형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위약) 생산, 공급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약제제 전문 인력 양성과 한의약 산업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응세 한국한의학진흥원장은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한약제제 의약품 생산과 한약제제 전문 위탁생산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며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 관련 산업이 한국을 넘어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아이팝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설명회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1월 19일(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진흥원은 19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원외탕전실 및 한방의료기관 탕전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 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 및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설명회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을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증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개정사항과 원외탕전실에 필요한 인증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서 △한국한의학진흥원 성수현 팀장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안내 및 주요 개정사항' △동의한방바로스 원외탕전실 안성신 차장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준비'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 김형태 차장이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준비'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제 한약과 약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의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설명회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1월 19일(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19일 오전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원외탕전실 및 한방의료기관 탕전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 및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설명회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을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증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개정사항과 원외탕전실에 필요한 인증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서 ▶한국한의학진흥원 성수현 팀장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안내 및 주요 개정사항' ▶동의한방바로스 원외탕전실 안성신 차장이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준비'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 김형태 차장이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준비'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제한약과 약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률 기자

대구일보

한의학 관련 공공기관 최초 ISO9001:2015 인증 획득

보도일자

2019년 11월 21일(목)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약소재은행은 한의학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ISO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따르면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 중 하나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규정된 요구 사항에 만족한 것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ISO9001:2015 인증에 따라 한의약소재은행의 생물전환추출물과 천연물질은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는 것을 인정받았다. 한의학 소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응세 한국한의학진흥원장은 “국내 한의학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ISO9001 획득은 한의학 소재의 제조 공정을 표준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한의학 소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의 하나로 천연물질은행과 한방바이오소재은행을 구축해왔다. 2016년부터는 한의약소재은행으로 통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남동해 기자

경북매일

한의학 공공기관 첫 ISO9001 인증

보도일자

2019년 11월 21일(목)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약소재은행이 최근 한의학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ISO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 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 중의 하나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규정된 요구 사항에 만족한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번 ISO9001:2015 인증에 따라 한의약소재은행의 생물전환추출물과 천연물질은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학 소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국내 한의학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ISO9001 획득은 한의학 소재의 제조 공정을 표준화 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한의학 소재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한식 기자

공감신문

토종한약자원의 산업화 전략 마련해야

보도일자

2019년 11월 25일(월)

토종한약자원의 종자확보 등 토종한약자원의 산업화 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종한약자원 산업화 전략 심포지엄'(더불어민주당 남인순·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 공동주최)이 열렸다.

지난 2014년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 간에 '종자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자원 주권 확보와 종자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종자는 농업분야의 반도체로 미래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신약 등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소재다.

한국한약진흥원은 지난 2012년부터 토종한약자원 종자확보와 재배법 연구, 유전학적 분석, 기원감별법 개발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한약 자원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토종한약자원의 생물주권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환 기자



의약뉴스

토종한약자원 산업 육성해야

보도일자

2019년 11월 25일(월)

한약 발전을 위해 한약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토종한약자원을 확보해 산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주최, 한국한약진흥원 주관으로 '토종한약자원 산업화 전략 심포지엄'이 열렸다. 첫 발제를 맡은 오현경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대응 동향 분석'을 주제로 이에 얽힌 우리나라에 생물자원에 대해 발표했다.

오현경 연구관은 "우리나라는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아 예측불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각국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호하고 복잡해 R&D 및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명자원 가치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구축해 대량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연구관은 "나라마다 유전자원의 범위, 허가 절차, 이익공유 당사자 등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을 통해 유전자원 수입국 선정 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바이오 소재의 수입 대체, 자원 국산화를 위해 산업적 잠재력이 있는 소재의 정보 공유 및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안병관 한국한약진흥원 센터장이 '토종한약자원 한약재기반 구축사업 실적'을 주제로 진흥원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진행된다. 안병관 센터장은 "토종 한약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연구를 통해 특허 21건을 출원·등록 했으며 논문 54건을 게재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진흥원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자원의 효능 연구와 사업화를 돕는 등 지원을 하고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세 번째 발제는 구교영 이암허브 대표가 '산업계에서 본 토종한약자원의 중요성'을 주제로 국내외 한약자원 산업과 정책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교영 대표는 "현재의 글로벌 한약자원 정책동향은 나고야의정서 기조에 따라 원산지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자유 이용 시대가 끝나 접근허가 취득 및 발생 이익 공유의 시대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각국은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토종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지호 기자



뉴스제주

JDC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자

2019년 11월 26일(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26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용세)과 제주도 한의약 산업의 발전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헬스케어타운 내 한의약 활용 연구·생산·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제주도 한약자원 재배단지 조성에 협력하고,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홍보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한의약 혁신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세미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제주도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타운의 복합의료관광단지 역할을 확대해 새로운 한의약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시초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8년부터 JDC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약 47만평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의료관광단지로서, 사업비 약 1조 5000여 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녹지그룹의 투자로 일부 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JDC 자체 사업으로서 지역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기관,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 의료서비스센터를 추진 중이다.

박가영 기자

투어타임즈

JDC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자

2019년 11월 26일(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26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용세)과 제주도 한의약 산업의 발전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헬스케어타운 내 한의약 활용 연구·생산·교육 시설을 설치하고, 제주도 한약자원 재배단지 조성에 협력하고,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홍보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한의약 혁신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세미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제주도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타운의 복합의료관광단지 역할을 확대해 새로운 한의약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시초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JDC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도 한의약 산업의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약·웰니스가 제주도의 새로운 전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헬스케어타운 활성화에 새로운 추진력이 더해질 것"이라면서 "제주도 청정 자연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한약자원 활용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새로운 먹거리로서 제주도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8년부터 JDC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약 47만평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의료관광단지로서, 사업비 약 1조 5천여 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녹지그룹의 투자로 일부 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JDC 자체 사업으로서 지역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기관,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 의료서비스센터를 추진 중이다.

정기환 기자

대구일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자

2019년 11월 29일(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전통의학 분야 남북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남북 한의학 분야 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북한 관련 인도적 지원 사업(정보교류 및 학술 연구 포함) △간행물 발행 등 정보 공유 및 활동 홍보 등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보 공유, 학술연구 및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해 남북 전통의학이 교류협력,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남북교류에 전통의학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이 한의학 분야 남북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북한은 1차 보건의료의 70~80%를 고려의학(전통의학)이 담당할 정도로 전통의학의 비중이 크다”며 “남북의 전통의학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후생신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자

2019년 11월 29일(금)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강영식)와 전통의학 분야 남북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남북 한의학 분야 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북한 관련 인도적 지원 사업(정보교류 및 학술 연구 포함) ▲간행물 발행 등 정보 공유 및 활동 홍보를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보 공유, 학술 연구 및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해 남북 전통의학이 교류협력,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남북교류에 전통의학의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한의약진흥원이 한의학 분야 남북교류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은 “북한은 1차 보건의료의 70~80%를 고려의학(전통의학)이 담당할 정도로 전통의학의 비중이 크고 남북의 전통의학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유일한 한의학 산업 공공기관으로서 한의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경험, 사회문화교류, 대북인도지원, 개발협력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조우진 기자



경북도민일보 한의학 발전 미래 대응전략 모색

보도일자
2019년 12월 3일(화)

경산시에 소재한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한의학 미래 기획 포럼을 통해 한의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호텔에서 '제4차 한의학 미래 기획 포럼'을 연다.

한의학 미래 기획 포럼은 고령화·저출산 등의 인구구조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융합 가속화 현상,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급성장 등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의학 발전에 필요한 미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격월 단위로 진행돼 왔다.

제1차 포럼에서는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혁신', 제2차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학 건강증진 돌봄 사업', 제3차에서는 '미래 보건환경의 효과적 적응을 위한 한의학 교육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유관 기관, 정부 정책 관계자들까지 모두 참여해 한의학의 당면 현안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의 장이 돼 왔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4차 포럼에서는 한의학 분야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의학의 독립 영역 발굴과 해당 영역에서의 의료기술 발전·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한의학의 강점을 활용한 경쟁우위 영역 발굴 및 기술개발 전략 △한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야의 한의학 활용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환 임상의학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월숙 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한해 팀장이 각 주제별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을 좌장으로, 이은경 대한한 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위원장, 최현 성동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최유진 ㈜픽플러스 대표, 이상철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전략부장, 이승현 사계절한의원 한방음양치료센터장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교원 기자



포커스데일리

제4차 한의학 미래 기획 포럼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2월 3일(화)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삼성호텔에서 '제4차 한의학 미래 기획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학 미래 기획 포럼은 고령화·저출산 등의 인구구조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융합 가속화 현상,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급성장 등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한의학 발전에 필요한 미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격월 단위로 진행되어 왔다.

제1차 포럼에서는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혁신', 제2차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학 건강증진 돌봄 사업', 제3차에서는 '미래 보건환경의 효과적 적응을 위한 한의학 교육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유관 기관, 정부 정책 관계자들까지 모두 참여하여 한의학의 당면 현안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어 왔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4차 포럼에서는 한의학 분야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의학의 독립 영역 발굴과 해당 영역에서의 의료기술 발전·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한의학의 강점을 활용한 경쟁우위 영역 발굴 및 기술개발 전략 △우수한 효능을 갖는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 전략 △지역사회 건강증진 분야의 한의학 활용현황과 발전방안을 발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환 임상의학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월숙 팀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한해 팀장이 각 주제별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을 좌장으로, 이은경 대한한 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위원장, 최현 성동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최유진 픽플러스 대표, 이상철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전략부장, 이승현 사계절한의원 한방음양치료센터장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독립영역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그 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의학의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독립된 의료영역을 도출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전 신청을 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해야 하며,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미래정책팀 우종민 선임연구원(02-3393-4552, jmwoo@nikom.or.kr)으로 하면 된다.

김재욱 기자



국립민중뉴스
NEWSIS

대구한의대, 러시아 의대에 한의학 정규 교육과정 개설한다

보도일자
2019년 12월 3일(화)

대구한의대학교가 러시아의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 정규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대구한의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국립의학대학과 한의학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의 해외 한의학 교육사업의 하나다.

3개 기관은 한의학 교육 정규 프로그램 개설과 교수 인력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협력 분야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국립의학대학 의과대학 학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방재활의학, 한방내과 등 한의학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 자료를 개발해 2020년 시범과정을 거쳐 2021년까지 한의학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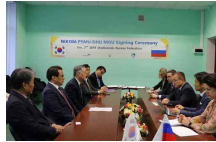
태평양국립의학대학은 우랄산맥 동쪽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 연해주·캅카스·사할린 등 극동지역 의학대학 클러스터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다. 이곳 의료인 교육과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2014년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해 한의학 개론, 경혈학, 침구학 등 기초와 임상 강의를 특강 형태로 진행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 정규 프로그램화와 현지 교수진 양성으로 러시아 한의학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한의대는 협약 이후 태평양국립의학대학 총장, 의사, 학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특강을 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시립병원을 방문해 침구과 교수들과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은 "한의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산업연계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대학이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러시아에 과학화, 표준화된 한의학 임상 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 기자

한 의 신 문
akomnews.com

러시아 의사·의대생의 한의학 정규교육 길 열린다

보도일자
2019년 12월 3일(화)

오는 2021년까지 러시아 의사·의대생을 위한 한의학 정규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의학 교육은 물론 현지 교수진 양성 등을 통해 러시아 한의학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의 해외 한의학 교육사업 일환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국립의학대학(총장 V.B. Shumatov)과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3자간 러시아 한의학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서 세 기관은 한의학 교육 정규 프로그램 개설과 교수 인력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육협력 분야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국립의학대학 의과대학 학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방재활의학, 한방내과 등 한의학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자료를 개발, 2020년 시범과정을 거쳐 2021년까지 한의학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다.

태평양국립의학대학은 러시아 수도권(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 우랄산맥 동쪽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 연해주·캅카스·사할린 등 '극동지역 의학대학 클러스터'의 코디네이터 역할과 이곳 의료인 교육과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 2014년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해 한의학 개론, 경혈학, 침구학 등 기초와 임상 강의를 특강 형태로 진행해온 태평양국립의학대학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러시아 한의학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학의 유라시아 진출 거점 확보는 물론 향후 북한과의 전통의학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러시아 태평양국립의학대학을 발판으로 국내 한의학 관련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해외 곳곳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은 "한의학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산업연계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대학이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러시아에 과학화, 표준화된 한의학 임상 교육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의 대표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초청연수, 해외 교육, 한의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EU,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의약을 세계에 전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중앙뉴스

한의학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 공청회 개최

보도일자

2019년 12월 11일(수)

이번 공청회는 한의학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청회에는 정부, 지자체, 지역 한의사회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과 대한한의학협회 최혁용 회장의 인사말,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공청회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이 '지역사회 한의학 서비스 현황 및 유형 소개' ▷대한한의학협회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위원장이 '한의학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확산 필요성' ▷대한한방신경정신 과학회 정선용 교수가 '한의 치매환자 건강관리 사업매뉴얼'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성수현 팀장은 지역 보건소와 한의사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되고 있는 한의약 서비스 현황과 유형을 소개했으며, 한의학 서비스 수요자 및 제공자(보건소 및 지역 한의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은경 원장은 한의학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의학 건강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한의 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성과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선용 교수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한의원에서 치매 관련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진료매뉴얼을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도입되고 있다"며, "표준화된 한의학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의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 의사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원에 종사하고 있기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한의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진료매뉴얼 개발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지역사회 내 생활건강 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화 기자

아이팝뉴스

‘한의학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 공청회 열려

보도일자

2019년 12월 11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과 대한한의학협회(회장 최혁용)는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한의학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의학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부, 지자체, 지역 한의사회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과 대한한의학협회 최혁용 회장의 인사말,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공청회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이 '지역사회 한의학 서비스 현황 및 유형 소개' ▷대한한의학협회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위원장이 '한의학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확산 필요성' ▷대한한방신경정신 과학회 정선용 교수가 '한의 치매환자 건강관리 사업매뉴얼'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성수현 팀장은 지역 보건소와 한의사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되고 있는 한의학 서비스 현황과 유형을 소개했으며, 한의학 서비스 수요자 및 제공자(보건소 및 지역 한의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은경 원장은 한의학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의학 건강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한의 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성과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선용 교수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한의원

에서 치매 관련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진료매뉴얼을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도입되고 있다"며 "표준화된 한의학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의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 의사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원에 종사하고 있기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한의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진료매뉴얼 개발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지역사회 내 생활건강 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의근 기자

쿠키뉴스

경산 고교생 대상 한의학 연구체험 진행

보도일자
2020년 1월 17일(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경북 경산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수업을 진행한다. 진흥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지역 고교생 대상 ‘한의학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첨단 실험장비를 활용한 연구과제 활동 체험수업(R&E)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에는 진흥원 연구진이 멘토로 나설 예정. 경산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지역 소재 무학고, 문명고 학생 7명이 멘티로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한약재 관능검사, 지표 분석, 세포실험 등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연구실습 등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특히 과제연구는 학생들이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연구역량 강화 및 과학연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진흥원은 지난 2017년부터 경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화학·생명과학 2개 분야의 과학영재 창의연구도 지원해 왔다.



한성주 기자

노컷뉴스

고교생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

보도일자
2020년 1월 17일(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6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경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융합형 과학인재 육성에 나선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학과 함께하는 진로탐색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첨단 실험장비를 활용한 창의적인 연구과제 활동 체험수업(R&E)을 실시한다. 진로탐색 특화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연구실습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공유·협력하는 등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된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연구 능력을 신장시켜 장래에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현 기자



한국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기술 배우러 왔어요

보도일자
2020년 2월 4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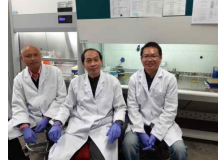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라오스 보건부 산하 전통의학연구소의 마놀락 반나누봉 연구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이 대구 품질인증센터에서 지난 20일부터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실습 교육을 실시, 오는 14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 연수지원사업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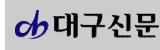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는 2017년 몽골, 2018년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라오스 국가 연구원 교육을 맡게 됐다.

라오스 연구원들은 품질인증센터에서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검사와 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 분석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라오스 건강식품 및 의약품품질관리 연구원 찬사파 파마니봉씨는 “한국의 품질인증센터에서 선진 분석법을 배우고 고국의 연구원들에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이번 연수과정은 라오스 전통의약품의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추교원 기자



개발도상국 전통 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 나서

보도일자
2020년 2월 4일(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개발도상국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나섰다.

4일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라오스 보건부 산하 전통의학연구소(Ministry of Health, 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ine)의 마놀락 반나누봉(Manoluck vanthanouvong) 연구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이 대구 품질인증센터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주간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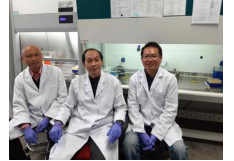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연수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는 지난 2017년 몽골, 2018년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라오스 국가 연구원 교육을 맡게 됐다.

라오스 연구원들은 품질인증센터에서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검사와 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 분석 실습교육을 받는다.

라오스 건강식품 및 의약품품질관리 연구원 찬사파 파마니봉씨(Chansapha pamanivong)는 “한국의 품질인증센터에서 선진 분석법을 배우고 고국의 연구원들에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이번 연수과정은 라오스 전통의약품의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응세 원장은 “우리 기관은 3여 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에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첨단 연구기술을 해외국가에 전수하고,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익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제10차 한의약 보건정책포럼'
개최

보도일자
2020년 2월 5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0차 한의약 보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한의약(전통의약)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전자의료기기 국제표준(ISO 18615)이 제정된 맥진기를 활용한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맥진기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한의 진단 표준화, 객관화가 실현되고, 국산 맥진기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등 한의약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2008년부터 우리부가 국가R&D를 지원해서 개발된 맥진기 원천기술을 2012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된 맥진기 국제표준이 올해 1월6일 제정되어 한의약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를 발표한 대요메디(주) 강희정 대표이사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시작된 맥진기 국제표준은 한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전자의료기기이므로 맥진기 전문가 실무회의 뿐만 아니라, 국제전자기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전자의료기기 기술분과(SC62D)와 공동협업을 하는 등 8년간 힘든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고 감회를 밝혔다.

두번째 주제를 발표한 한국한의약연구원 김재욱 책임연구원은 "맥진은 한의학에서 질병 유무를 판별했던 중요한 진단법이지만 객관화가 어려웠으나, 맥진기의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조만간 병원용 및 ICT 헬스케어 산업 콘텐츠 개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는 남동현 한의진단학회 총무이사, 김재효 원광대학교 경혈학 교수, 한의생태연구소 박경숙 소장, 손준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기술R&D 1팀장, 최문석 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참석해 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에 대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진단·측정기기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맥진기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므로 국산 맥진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 따라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한의의료기기 제품을 발굴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률 기자



경북일보

**제10차 한의약
보건정책포럼 개최**

보도일자
2020년 2월 5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0차 한의약 보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했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해 한의약(전통의약)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전자의료기기 국제표준(ISO 18615)이 제정된 맥진기를 활용한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008년부터 국가R&D를 지원해서 개발된 맥진기 원천기술을 2012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된 맥진기 국제표준이 올해 1월 6일 제정돼 한의약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포럼의 좌장을 맡은 김선철 계명대 의용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2개주제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됐다.

'제10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회는 남동현 한의진단학회 총무이사, 김재효 원광대학교 경혈학 교수, 한의생태연구소 박경숙 소장, 손준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기술R&D 1팀장, 최문석 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참석해 맥진기 국제표준을 활용한 산업화 전략에 대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진단·측정기기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우리나라가 주도해 맥진기 국제표준을 제정, 국산 맥진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한의의료기기 제품을 발굴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경향신문

라오스 보건부 연구개발본부장 "한의학 첨단기술이
라오스 천연 약재와 접목하면 큰 결실 거둘 것"

보도일자
2020년 2월 18일(화)

“한국에서의 한의학 교육프로그램은 라오스 전통의약품의 과학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강의와 실습을 통해 라오스 연구원들에게 기술을 전파하고, 연구현장에 꼭 꼭히 적용해나갈 생각입니다.”

라오스 보건부 전통의약품연구소 ‘마놀락 반나누봉’ 연구개발본부장(사진)을 비롯한 연구원 일행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4주 동안 한국한의학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한약제제의 안전과 직결된 미생물검사와 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한약재 위해물질 분석 실습을 마쳤다.

마놀락 반나누봉 본부장은 경향신문과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한약재와 한약제제가 매우 안전하고, 과학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라오스 한약재의 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확립해나가는 데 한국의 약전 또한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한국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실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마련한 개발도상국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연수지원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방문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며, 당시 오송 식약처에서 관능검사, 중금속 함량 측정법 등을 배웠어요. 올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한국한의학진흥원을 식약처에서 연결해 주었으며, 품질인증센터의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한 품질관리법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 품질인증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약재 위해물질인 잔류농약, 이산화황, 벤조피렌을 검출하는 방법과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습했습니다. 실험 대부분이 처음 접해본 것들이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지난해 중국의 도움으로 한약재 160종을 담은 라오스 약전이 처음으로 발간됐지만 한약재, 전통의약에 대한 연구는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일본, 한국의 약전을 두루두루 참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전은 무려 601종의 한약재가 수재되었는데 이번의약품 규격에 근거한 실험법을 배우면서 라오스 약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 다른 국가와의 전통의약 교류나 교육에 참여한 적은 없나요.

“일본에 2주간 연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의약품 생산 공장을 둘러보거나 약재 가공 현장을 살펴보는 정도였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과 MOU를 맺고, 전통의약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라오스는 중국의 전통의약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중국 도움으로 라오스 약전을 만들었죠.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한국 한의학에 주목하고, 관련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교육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인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나라가 없는 거 같습니다.”

— 라오스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며,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나갈 계획인가요.

“라오스 정부는 현대 의약품보다는 한약재 소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약재 구하기가 쉽고, 커뮤니티(communitiy)에서 생약(raw material)을 구매해 치료제로 쓰는 전통방식을 따릅니다. 한국처럼 과학적 시험분석에 의한 고품질 한의학 생산체계가 거리가 멀어요.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고국에 돌아가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한국 정부에서 분석 장비나 표준시약을 지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 지원도 중요하지만 라오스에서는 표준시약을 쉽게 구할 수 없어 분석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주요 약재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오스의 대표 한약자원은 강황입니다. 라오스는 평야가 드물고 산간지형이 많으니 한약재를 재배할 넓은 땅이나 농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전통의약품연구소에서 재배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선 강황 2종(Curcuma longa, Curcuma zanthorrhiza)과 고양이수염(Orthosiphon aristatus)을 주로 재배하며, 만삼(Codonopsis pilosula), 사인(Amomia Fictus)을 키우기도 합니다. 라오스에서 자라는 약재는 약 2000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 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라오스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치료물질을 개발했다면 좋겠습니다.”

—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다면.

“한국의 한약재 재배·관리·유통 기술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한의학 연구개발 등 선진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관능검사, 심도 깊은 미생물 검사, 새로운 약초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 방법과 한국의 침술, 한방 치료 기술도 궁금합니다. 국가 간 교류협력의 폭도 넓어지길 바랍니다. 한국의 기술지원, 한약재 협동조사, 치료효과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박효순 기자

경북일보	한약재 보급 22일까지 15품목 분양신청	보도일자 2020년 2월 27일(목)
------	-----------------------------------	-------------------------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 종근, 종묘 15품목(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지황, 강황, 백출, 독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시호, 작약, 반하)을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약재 종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원확인 및 품질검증으로 선별된 우수 종자이며 선정된 농가에는 한약재 종자보급은 물론, 재배교육과 컨설팅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종자 보급량은 약 50ha에 재배할 수 있는 분량이며, 전국 5개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보급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약재 종자 품목과 보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약재 종자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는 한국한의학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오는 3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윤섭 기자

경북신문	우수한 '종자·종근·종묘' 15품목 보급	보도일자 2020년 2월 27일(목)
------	-----------------------------------	-------------------------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 종근, 종묘 15품목(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지황, 강황, 백출, 독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시호, 작약, 반하)을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약재 종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원확인 및 품질검증으로 선별된 우수 종자이다. 선정된 농가에는 한약재 종자보급은 물론, 재배교육 및 컨설팅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종자 보급량은 약 50ha 분량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며, 전국 5개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보급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약재 종자품목과 보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약재 종자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한국한의학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오는 3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을호 기자

한 의 신 문
hakomnews.com

2020 임상증례 발굴 연구지원 공모

보도일자
2020년 3월 24일(화)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등)의 일선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경험한 독특한 질병 치료 경험이나 치료에 대한 부작용, 새로운 이론, 타 의료인의 임상 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료 사례들을 공모한다.

증례 보고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모집대상은 임상 증례 보고자(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한의사)와 임상 증례 연구자(석사이상 한의사 또는 한방병원 수련의, 한의임상연구자 등)로 임상 증례 보고자는 임상에서 경험한 증례 가치가 있는 진료 사례들에 대해 보고하고 공동연구를 수행, 임상 증례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다.

임상 증례 연구자는 선정된 임상 증례와 매칭돼 임상 증례 보고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며 IRB 승인, 논문 초안 작성, 논문 제출 등 각 단계별 소정의 자문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임상증례 보고 논문 출판 경험자 및 논문 출판을 필요한 한방병원 수련의를 우대하며 각 소속 기관에서 IRB 심의 절차를 진행하되 소속기관에서 IRB 심의가 불가할 경우 공용 IRB로 진행하게 된다.

연구기간은 임상 증례 선정 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지만 일정에 따라 연구 기간은 변동될 수도 있다. 신청은 3월23일부터 4월23일 오후 6시까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을 통한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다.

임상증례는 1차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2차 서면(필요시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10건의 증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상증례 연구자는 인원 제한 없이 자격조건에 만족하는 지원자 모두 선별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2020년도 임상 증례 발굴 연구 지원 사업’ 공모

보도일자
2020년 3월 24일(화)

한의학진흥원이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이 진료 과정에서 경험한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공모해 증례 보고 연구를 지원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2020년도 임상증례 발굴 연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의 모집대상은 크게 임상 증례 보고자와 연구자로 나뉜다.

임상 증례 보고자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로, 임상에서 경험한 증례 가치가 있는 진료 사례를 보고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임상 증례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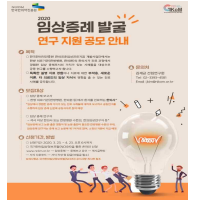
임상 증례 연구자는 석사이상 한의사 또는 한방병원 수련의, 한의임상연구자 등으로 이들은 상기 선정된 임상 증례와 매칭되어 임상 증례 보고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며 각 단계별로 소정의 자문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올해 12월까지이며, 이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오는 6월 ▲공모 및 증례 모집 ▲선정평가 ▲평가결과 안내 및 매칭 ▲공동연구 협약 임상증례 ▲연구 방법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7월에는 IRB신청을 하며,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연구를 수행한 뒤, 9월부터 12월에 성과를 창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23일까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을 통해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임상증례 보고자의 경우 신청서 및 증례소개 양식, 임상증례 연구자의 경우 이력서 및 지도교수동의서(필요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숙현 기자



경북일보 2차 우수 한약재
종자 4월 20일까지 보급
보도일자
2020년 3월 30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한약재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의 한약재 생산을 위해 2차 한약재 종자 보급을 실시한다.

보급 한약재 종자는 우슬, 식방풍, 일당귀, 강황, 독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시호 등 10품목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원확인하고 품질이 검증된 우수 종자다. 선정된 농가에는 한약재 종자보급은 물론, 재배교육 및 컨설팅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 3월 중순 1차 분양한 종자는 전국 8개 시·도 21개 지자체(40개소)에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번 2차 분양은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잔여량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한약재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강병만 박사 061-860-285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섭 기자

경북매일 2차 우수 한약재 종자 보급
보도일자
2020년 3월 30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한약재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고품질의 한약재 생산을 위한 2차 한약재 종자 보급을 한다.

보급 한약재 종자는 우슬과 식방풍, 일당귀, 강황, 독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시호 등 10품목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기원확인하고 품질이 검증된 우수 종자다.

선정된 농가에는 한약재 종자보급은 물론, 재배교육 및 컨설팅 기회를 준다.

이번 2차 분양은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잔여량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기원한약재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심한식 기자

한국일보

짚신나물의 위염 개선 효능을 아세요

보도일자

2020년 4월 1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일 한약재로 이용되는 짚신나물(용아초) 추출물이 위염 개선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이 위염을 유발시킨 동물에 짚신나물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위점막 손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자극과 점막의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면역조절인자인 프로스타그란딘 이투(Prostaglandin E2)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인증 우수등재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2019 27호에 게재됐다.

지금까지 짚신나물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진통과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높은 농도로 너무 많이 복용하면 구역질 구토 현기증 안면홍조 심계항진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짚신나물의 유래는 과로로 길에 쓰러진 선비가 두루미가 던져준 풀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뒤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학초(仙鶴草)'라 부른 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 잎 모양이 용의 이빨과 비슷해 '용아초(龍牙草)'라고도 불린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산 한약재를 대상으로 위염을 비롯한 여러 염증질환에 대한 효능을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약비임상시험센터에서 독성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한약재의 안정성과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연구는 토종한약자원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 한약재를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한약 자원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높여 한의약 산업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메디팍뉴스

한약재 용아초, 위염 개선 예방 효과 탁월

보도일자

2020년 4월 1일(수)

짚신나물(한약재명: 용아초)이 위염 증상 개선은 물론 위염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은 "한약재로 이용되는 토종한약자원 중 짚신나물 추출물이 위염 개선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위염을 유발시킨 동물에 짚신나물 물 추출물(100, 500mg/kg)을 투여한 결과, 위점막 손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 외부자극과 점막의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면역조절인자인 Prostaglandin E2(PGE2)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산 한약재를 대상으로 위염을 비롯한 여러 염증질환에 대한 효능을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에서 독성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약재의 안전성과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연구는 토종한약자원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 한약재를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약자원의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높여 한의약 산업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진통작용과 항염증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돼 온 짚신나물은 높은 농도로 과하게 복용하면 오심, 구토, 현기증, 안면홍조, 심계항진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짚신나물의 유래는 과로로 길에 쓰러진 선비가 두루미가 던져준 풀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뒤 과거에 급제해 "선학(仙鶴)이 신성한 풀을 줬다"며, 이 풀을 '선학초(仙鶴草)'라 부른 게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짚신나물은 잎 모양이 용의 이빨과 비슷해 '용아초(龍牙草)'라고도 불린다.

한편 이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인증 우수등재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rop Science' 2019년 27(2)호에 게재됐다.



주재승 기자

아시아투데이

‘짜먹는 한약’ 등 건보적용 한약제제 소비 증가세

보도일자
2019년 4월 3일(금)

연조엑스(짜먹는약), 정제(알약)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4월 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이후 산제(가루약) 뿐만 아니라 제형 변화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액은 2016년 3억9000만원, 2017년 41억4000만원, 2018년 85억8000만원, 2019년 144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2019년 전체 청구액의 37%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로 복용과 휴대가 편리해져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품질 및 약효의 일관성과 동등성 확보로 한약제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56종 기준 처방에 대한 제형을 개발해왔으며 복용 및 휴대 편리성 증대,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에 힘써왔다.

이에 2018년부터는 저 빈도 처방을 임상 활용도 및 요구도가 높은 처방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형개발을 통한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과 보험등재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원료 한약재의 규격화와 한약처방에 최적화된 제조공정, 성분프로파일 및 효능평가를 통해 고품질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품질 일관성 확보로 제약사의 한약제제 제형개발과 품질관리 기술 및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원과 제약사의 참여 확대로 현재 경방신약, 신화제약, 아이월드제약, 정우신약, 한국신약, 한국신평제약, 한풍제약, 함소아제약 8개 제약사에서 단미엑스정 2품목, 혼합단미연조엑스 83품목, 혼합단미엑스정 29품목 등 총 114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장경국 기자

약업신문

‘짜먹는 한약’ 등 급여적용 한약제제 소비 꾸준히 늘어나

보도일자
2020년 4월 3일(금)

2016년 4월 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이후 산제(가루약) 뿐만 아니라 연조엑스(짜먹는약), 정제(알약)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의약품 청구실적에 따르면, 제형 변화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액은 2016년 3.9억원, 2017년 41.4억원, 2018년 85.8억원, 2019년 144.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2019년 전체 청구액의 37%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로 복용과 휴대가 편리해져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품질 및 약효의 일관성과 동등성 확보로 한약제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56종 기준처방에 대한 제형을 개발해왔으며 복용 및 휴대 편리성 증대,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에 힘써왔다.

2018년부터는 저빈도 처방을 임상 활용도 및 요구도가 높은 처방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형개발을 통한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과 보험등재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원료 한약재의 규격화와 한약처방에 최적화된 제조공정, 성분프로파일 및 효능평가를 통해 고품질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품질 일관성 확보로 제약사의 한약제제 제형개발과 품질관리 기술 및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원과 제약사의 참여 확대로 현재 경방신약, 신화제약, 아이월드제약, 정우신약, 한국신약, 한국신평제약, 한풍제약, 함소아제약 8개 제약사에서 단미엑스정 2품목, 혼합단미연조엑스 83품목, 혼합단미엑스정 29품목 등 총 114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승덕 기자

경향신문

결명자 추출물, 골다공증 억제에 효과

보도일자
2020년 4월 6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의 한약비임상시험센터(센터장 정용현)는 14일 “한약재로 이용되는 결명자 추출물이 골다공증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명자 추출물은 혈중 지질 저하, 항산화, 상처 치유, 강심, 항기생충, 항궤양 활성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이미 밝혀졌으나 여성 갱년기 및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이무진 박사 연구팀은 실험용 쥐의 난소를 적출해 골다공증 모델을 유도한 후 하루 체중 1kg당 200mg(성인 기준 하루 12g 섭취 시)의 결명자 추출물을 투여해 골다공증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했다.

정용현 센터장은 “분석 결과 골다공증 억제 효능이 검증되어 골대사 건강에 유의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항골다공증 효과 규명과 함께 아만성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억제효과가 있는 결명자 추출물을 13주간 경구 투여한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특허청 특허등록원부에 등재됐으며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자원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또 한 번 확인했다”면서 “한약비임상시험센터를 통해 한약과 한약재의 효과 규명과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명자는 콩과에 속하는 1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식물의 성숙한 종자이다. 결명자는 변비 개선, 항염증, 시력 개선, 간 보호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돼왔다.



박효순 기자

경북일보

결명자 추출물, 골다공증 억제 효과 탁월

보도일자
2020년 4월 6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센터장 정용현)는 “한약재로 이용되는 결명자의 주정 추출물이 골다공증 억제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명자의 주정 추출물은 혈중 지질저하, 항산화, 상처치유, 강심, 항기생충, 항궤양 활성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여성 갱년기 및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이무진 박사 연구팀은 골다공증 모델을 유도한 후 결명자 주정 추출물을 투여해 골다공증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200 mg/kg/day(성인기준 하루 12g 섭취 시)의 결명자 주정 추출물은 난소 적출 랫드에서 골다공증 억제효능이 검증돼 골대사 건강에 유의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항골다공증 효과규명과 함께 아만성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 자료를 확보했다. 골다공증 억제효과가 있는 결명자 주정 추출물을 13주간 경구 투여한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독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특허청 특허등록원부(10-2029147)에 등록됐으며, 국제학술지(SCI)인 Regulatory Toxicology Pharmacology, 109:104487호에 게재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자원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를 통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경쟁력을 높여 한의학 산업이 국민 건강은 물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명차(Cassia tora L.)의 종자인 결명자(決明子)는 콩과(Fabaceae/Leguminosae)에 속하는 1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식물의 성숙한 종자로 한의학에서 변비개선, 항염증, 시력개선 및 간 보호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김윤섭 기자

경북매일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보도일자
2020년 5월 7일(목)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이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감염 방지에 애쓰는 국민들에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구일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보도일자
2020년 5월 7일(목)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도전’ 캠페인에 동참했다.



남동해 기자

메디컬투데이

한의학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발대식 가져

보도일자
2020년 5월 14일(목)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4일 16시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3차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발대식은 이응세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공동 추진단장 아래 3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고성규 경희대학교 교수가 '의료이용' 분과장을, 오단이 숭실대학교 교수가 '건강돌봄' 분과장을, 임병묵 부산대학교 교수가 '혁신성장' 분과장을 각각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한현용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한의약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미래 사회상을 예측해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2부에서는 발제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과 향후 추진단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원회 운영방법과 추가적인 전문가 위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제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응세 원장은 "지난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5개년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약업신문

한의학 5개년 종합 계획 수립 발대식

보도일자
2020년 5월 14일(목)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1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3차 종합계획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발대식은 이응세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공동 추진단장 아래 3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고성규 경희대학교 교수가 '의료이용' 분과장을, 오단이 숭실대학교 교수가 '건강돌봄' 분과장을, 임병묵 부산대학교 교수가 '혁신성장' 분과장을 각각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한현용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한의약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미래 사회상을 예측해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2부에서는 발제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과 향후 추진단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원회 운영방법과 추가적인 전문가 위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제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응세 원장은 "지난 성과와 한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5개년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덕 기자

대구일보

한약제제 ‘삼소음’ 안전성 국제학술지 최초 게재

보도일자

2020년 5월 25일(월)

한국한의학진흥원이 건강보험용 한방제제인 삼소음의 물 추출물 반복경구투여 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자료를 국제 학술지에 최초 게재했다.

25일 한국한의학진흥원에 따르면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연구원이 삼소음은 갈근, 반하, 전호, 인삼, 감초, 진피 등 11개 종류 한약재로 이뤄진 한의약 처방으로 오한, 발열 및 두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기침, 가래, 콧물 등 감기 증상에 큰 효능을 확인했다.

현재 대부분 한약 처방은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이에 따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용 산제, 임의조제 처방, 대한약전 및 생약 규격집 한약재를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부작용 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따르면 특정 약물은 반응과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연구진은 삼소음 물 추출물을 13주간 경구로 암컷과 수컷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고 잠재적인 독성을 관찰했다.

체중, 혈액분석, 요분석, 장기 조직 분석 등 여러 평가를 진행한 결과 모든 시험 물질 투여군의 평가항목에서 독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삼소음 물 추출물의 무해용량은 암수 모두 4천mg/kg/일 이상을 보였으며 특별한 독성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다. 대체의학분야에서 전통의학의 용도를 검토하는 국제약리학회지에 게재됐다.



남동해 기자

아시아투데이

한약제제 ‘삼소음’ 안전성 국제학술지 최초 게재

보도일자

2020년 5월 25일(월)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연구원이 대표적인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인 삼소음의 물 추출물 반복경구투여 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자료를 국제 학술지에 최초 보고했다.

25일 한의학진흥원에 따르면 삼소음은 갈근, 반하, 전호, 인삼, 감초, 진피 등 11가지 한약재로 이뤄진 한의약 처방으로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 오한, 발열 및 두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기침, 가래, 콧물 등의 감기증상에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용 산제, 임의조제 처방, 대한약전 및 생약 규격집 한약재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실시한 독성시험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된 안전성 평가로 새롭게 개발되거나 알려진 물질이 과학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시험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부작용 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따르면 특정 약물의 경우 반응과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더 민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한의학진흥원 연구진은 삼소음 물 추출물을 13주간 경구로 암컷과 수컷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고 잠재적인 독성을 관찰했다.

이에 체중, 혈액분석, 요분석, 장기 조직 분석 등 여러 평가를 진행한 결과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의 평가항목에서 독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삼소음 물 추출물의 무해용량은 암수 모두 4000 mg/kg/day 이상을 보였으며 특별한 독성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보고했으며 대체의학분야(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서 전통의학의 용도를 검토하는 국제약리학회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게재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전남 장흥)와 한약제제생산센터(GMP, 대구광역시)를 구축했다.

이용세 원장은 “한의약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근거를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한약자원의 경쟁력과 역량을 증가시키고 한의약 산업을 체계화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경북일보

경산·장흥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활성화 자매결연 협약

보도일자
2020년 5월 27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경북 경산 본원과 전남 장흥 본부가 위치한 경산공설시장, 정남진장흥도요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날 경산에서는 권익수 한국한의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과 김종근 경산공설시장 상인회 이사장이, 전남 장흥에서는 정용현 한약자원개발본부장과 김영실 정남진장흥도요시장 상인회장이 자매결연을 맺고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한의학진흥원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는 등 시장 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후에는 각종 행사를 전통시장 인근 식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산공설시장과 장흥도요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전통시장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 협약은 그간 선언에 그쳤던 전통시장 이용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윤섭 기자

대구일보

경산전통시장 활성화 자매결연 협약

보도일자
2020년 5월 27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지난 26일 오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산공설시장 상인회(회장 김종근)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남동해 기자

경북일보

출범 1주년 기념식 헌혈봉사·청렴캠페인 대체 '눈길'

보도일자
2020년 6월 11일(목)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봉사와 청렴캠페인 활동으로 대체해 눈길을 끌었다.

진흥원 임직원들은 11일 경산 본원 용호광장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봉사에 참여했고 청렴실천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업무이행을 약속했다.

진흥원은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본원, 본부가 위치한 각 지역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남 본부(전남 장흥군)는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 참배 및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응세 원장은 기념사에서 “오천 년의 한의약을 새로운 백 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출범한 진흥원이 어느새 1년을 맞았으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헌혈봉사, 청렴 캠페인 등을 함께 기획했다”면서 “한의약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한약진흥재단에서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산업 전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국산 한약재의 재배·보존·유통에서부터 GMP, GLP 공공인프라를 통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우수한약제제 현대화 및 산업화,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과 한의신약 개발, 한의의료기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보장성 강화, 한의약 세계화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윤섭 기자



대경일보 출범 1주년 기념식 개최

보도일자
2020년 6월 11일(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 펼쳐 -

한국한의약진흥원은 11일 경북 경산 본원 용호광장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진흥원은 기념식과 함께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봉사와 청렴캠페인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기념행사에서 탈피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었다.

진흥원 임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봉사에 참여했고, 청렴실천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업무이행을 약속했다.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본원, 본부가 위치한 각 지역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전남 본부(전남 장흥군 소재)는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 참배 및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응세 원장은 기념사에서 “오천년의 한의약을 새로운 백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진흥원이 어느새 1년을 맞았으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헌혈봉사, 청렴 캠페인 등을 함께 기획했다”면서 “한의약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한약진흥재단에서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산업 전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아울러 국산 한약재의 재배·보존·유통에서부터 GMP, GLP 공공인프라를 통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우수한약제제 현대화 및 산업화,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과 한의신약 개발, 한의의료기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보장성 강화, 한의약 세계화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조영준 기자



충청리뷰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보도일자
2020년 6월 30일(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학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을 하반기에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른 조치이다.

* 출입국 제한 및 비자발급 중단, 항공편 감소, 출입국 시 격리 등

그간 한의학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 육성 및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학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영어 등 3~5개 외국어 지원)”을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 이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의학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오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학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 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한의학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청원한방병원)은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한의학 기본지식, 정책, 임상 실습 등 85편 제작 중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학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학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학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영석 기자

뷰어스

한의학 세계화 사업,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 인터넷 홍보관 개설, 교육·연수 등 추진

보도일자
2020년 6월 30일(화)

‘한의학’ 세계화 사업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학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이동이 제한된 데 따른 조치이다.

그간 한의학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 육성 및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학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영어 등 3~5개 외국어 지원)”을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이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학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학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한의학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청원한방병원)은 영상교육 콘텐츠 85편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8월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김미라 기자

매일일보

맥문동 염록체 게놈 염기서열 해독

보도일자
2020년 7월 22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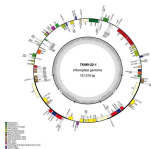
한국한의학진흥원 토종한약자원연구팀은 22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국내에 자생하는 한약재 '맥문동' 기원식물의 염기서열을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기원식물 맥문동은 비짜루과에 속하며 전통의학에서 강장·거담·이뇨제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 연구에서는 항염증, 간 보호, 항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독한 맥문동 염록체 게놈은 총 129개의 유전자로 이뤄져 있고 전체 길이는 157,076 bp(베이스페어, 염기개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한의학진흥원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세계유전자은행에 염록체 게놈 서열과 암호화된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맥문동과 유사한 자원들과의 유전적 다양성과 식물학적 진화과정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국제저널인 Mitochondrial DNA Part B에 게재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국내 한약재 중 혼용 우려가 있는 자원을 선정, 동속 자원 및 해외자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감별법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김찬규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맥문동’ 기원식물 염기서열 해독

보도일자
2020년 7월 22일(수)

한의학진흥원이 맥문동 기원식물의 염기서열 해독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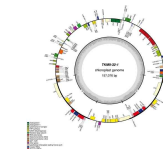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 토종한약자원연구팀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국내에 자생하는 한약재 '맥문동' 기원식물의 염기서열을 완전히 해독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원식물 맥문동은 비짜루과에 속하며 전통의학에서 강장·거담·이뇨제로 사용되어 왔고, 최근 연구에서는 항염증, 간 보호, 항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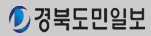
해독한 맥문동 염록체 게놈은 총 129개의 유전자로 이뤄져 있고, 전체 길이는 157,076 bp(베이스페어, 염기개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세계유전자은행에 염록체 게놈 서열과 암호화된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맥문동과 유사한 자원들과의 유전적 다양성과 식물학적 진화과정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국제저널인 Mitochondrial DNA Part B에 게재하였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국내 한약재 중 혼용 우려가 있는 자원을 선정하여 동속자원 및 해외자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감별법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응세 원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생물주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앞으로 연구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많은 토종 한약자원이 해외에 알려지는 동시에 소중한 우리 한약자원의 주권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숙현 기자



대마 원료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길 열렸다

보도일자
2020년 8월 26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헴프 소재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전환해 의약품 원료 및 제품으로 산업화하는 길이 열렸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THC(tetrahydrocannabinol) 환각성분이 0.3% 미만으로 낮은 저마약성 헴프 품종군에서 고순도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정제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생명자원인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이 필요하며, 농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받은 대마 주산지인 안동시(임하면, 풍산면 일대),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업 등과 스마트팜 및 ICT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헴프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의약품 소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마에 포함된 성분인 CBD 등은 의학적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큰 바이오의약품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뇌전증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CBD 소재 산업은 현재 시장규모로도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고, 향후 관련 제품(식품, 화장품 등) 개발로 확대될 경우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용세 원장은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원자재부터 소재연구, 의약품개발까지 전주기적인 품질관리로 헴프 산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교원 기자



대마 이용한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의 길 열려

보도일자
2020년 8월 26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헴프 소재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전환해 의약품 원료 및 제품으로 산업화하는 길이 열렸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THC(tetrahydrocannabinol) 환각성분이 0.3% 미만으로 낮은 저마약성 헴프 품종군에서 고순도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정제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생명자원인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이 필요하며, 농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받은 대마 주산지인 안동시(임하면, 풍산면 일대),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업 등과 스마트팜 및 ICT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헴프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의약품 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마에 포함된 성분인 CBD 등은 의학적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큰 바이오의약품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뇌전증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CBD 소재 산업은 현재 시장 규모로도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고, 향후 관련 제품(식품, 화장품 등) 개발로 확대될 경우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마 이용에 관한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합법화 국가 증가, 시장성장 측면에서도 한국의 대마 활용을 위한 산업적 기술 확보, 제도·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 헴프 기반 바이오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고정밀, 고부가가치 헴프 유래 CBD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해 총 22개의 기업,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협력해 헴프 산업화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용세 원장은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원자재부터 소재연구, 의약품개발까지 전주기적인 품질관리로 헴프 산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프레스안

2020 블로그 기자단 모집

보도일자

2020년 9월 18일(금)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2020 한국한의학진흥원 블로그 기자단’은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통해 산업화를 이뤄가고 있는 한의약의 발전 과정을 국민의 눈으로 전달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약 산업화의 모습을 기사화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게 된다.

평소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약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자단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취재 콘텐츠 분야 8명, 영상 콘텐츠 분야 2명 등 총 10명이다.

기자단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6개월이며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선발된 기자에게는 위촉증, 기자증, 기자단 키트 등이 제공되며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자 3명을 선정해 표창장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자단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최종 합격자 명단은 오는 10월 7일 진흥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우 기자



한의약 소식 전달 하는 블로그 기자단 모집

보도일자

2020년 9월 18일(금)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한의약 인식개선 및 발전과정 등 기사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약진흥원에서 SNS를 통해 한의약 관련 정보를 전달할 기자단을 모집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 이하 진흥원)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 한국한의학진흥원 블로그 기자단’은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통해 산업화를 이뤄가고 있는 한의약의 발전 과정을 국민의 눈으로 전달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약 산업화의 모습을 기사화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게 된다.

평소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약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자단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취재 콘텐츠 분야 8명, 영상 콘텐츠 분야 2명 등 총 10명이다.

기자단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6개월이며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또한 선발된 기자에게는 위촉증, 기자증, 기자단 키트 등이 제공되며 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자 3명을 선정하여 표창장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자단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명단은 10월 7일 진흥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한국한의학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숙현 기자



경북일보

‘NCKM 생생하니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보도일자
2020년 9월 22일(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은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 정책본부에서 ‘NCKM 생생하니(生生Hanui)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발대식을 통해 ‘생생하니 기자단’은 앞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한의약 근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홍보 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한의대생, 청년한의사 36명으로 구성된 ‘생생하니 기자단’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한의약 연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로 NCKM 활성화와 홍보채널 다각화 역할을 맡는다.

김남권 사업단장은 “젊은 한의인재들로 구성된 ‘생생하니 기자단’을 통해 사업단에 대한 범한의학계 관심 유도과 기자단의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생산되는 참신한 콘텐츠가 NCKM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사업단장의 인사말과 함께 기자단 위촉장 수여 및 조장선출, 기자단 활동과 관련된 간단한 브리핑 등을 소개했다. ‘생생하니 기자단’ 활동소식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www.nck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단은 현재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운영 등 한의약 근거창출 및 확산·보급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윤섭 기자

메디팍뉴스

‘NCKM 생생하니(生生Hanui) 기자단’ 발대

보도일자
2020년 9월 22일(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은 지난 11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 정책본부에서 ‘NCKM 생생하니(生生Hanui)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발대식을 통해 생생하니 기자단은 앞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한의약 근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 및 홍보 활동에 본격 나서게 된다.

한의대생, 청년한의사 36명으로 구성된 생생하니 기자단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한의약 연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 개발로 NCKM 활성화와 홍보채널 다각화 역할을 맡는다.

김남권 사업단장은 “젊은 한의인재들로 구성된 생생하니 기자단을 통해 사업단에 대한 범한의학계 관심 유도과 기자단의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생산되는 참신한 콘텐츠가 NCKM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은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사업단장의 인사말과 함께 기자단 위촉장 수여 및 조장선출, 기자단 활동과 관련된 간단한 브리핑 등을 소개했다. 생생하니 기자단 활동소식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www.nck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사업단은 현재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운영 등 한의약 근거창출 및 확산·보급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재승 기자

대구일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보도일자
2020년 9월 23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이 23일 코로나19 극복과 조기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에 동참했다.



경북도민일보

‘스테이 스트롱’ 동참 코로나19 극복과 종식 응원

보도일자
2020년 9월 23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2일 오후 경북 경산본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으로부터 다음 참여 기관으로 지목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응세 원장은 “코로나19에 맞서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께 응원 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한의약진흥원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올해 3월 외교부가 시작했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참여기관으로 경산과 학교등학교를 지명했다.



추교원 기자

한 의 신 문
akomnews.com

한약제제생산센터 'GMP 인증'

보도일자
2020년 9월 23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제제생산센터가 지난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완제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서를 받았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으로 의약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다.

한약제제생산센터가 GMP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한약제제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GMP 적격 공공기관으로서 원료부터 완제 생산, 품질관리까지 One-stop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고품질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생산공급으로 한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한의약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응세 원장은 “한약제제 생산시설과 품질관리장비의 GMP 인증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약사나 한방병원, 연구기관 등에 폭넓은 연구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제제 생산시설, 품질분석실, 제형개발실 등 최첨단 연구시설과 전문 연구인력을 갖춘 한약제제생산센터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의 생산·공급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위탁생산(CMO)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됐다.



김대영 기자

메디컬투데이

한약제제생산센터, 식약처 GMP 인증 취득

보도일자
2020년 9월 23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제제생산센터가 지난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완제의약품 GMP 인증서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GMP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으로 의약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다.

한약제제생산센터는 GMP 인증을 취득하면서 한약제제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GMP 적격 공공기관으로서 원료부터 완제 생산, 품질관리까지 One-stop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하다. 고품질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생산공급으로 한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한의약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응세 원장은 “한약제제 생산시설과 품질관리장비의 GMP 인증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약사나 한방병원, 연구기관 등에 폭넓은 연구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약제제생산센터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의 생산·공급과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위탁생산(CMO)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되었으며 한약제제 생산시설, 품질분석실, 제형개발실 등 최첨단 연구시설과 전문 연구인력을 갖췄다.



박수현 기자

약업신문

2020년 한약재 재배교육 실시

보도일자
2020년 9월 24일(목)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20년 한약재 재배과정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한약재 재배과정은 당초 대면교육으로 전국(서울, 대전, 광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된다.

올해 한약재 재배과정에서는 △한약재 재배학 원론 △한약재를 활용한 도시농업 △한약재 생산 및 소득분석 등을 배운다.

교육 신청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선착순 60명이다. 한국한의학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061-860-2852)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덕 기자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2020 한약재 재배과정 비대면 교육 실시

보도일자
2020년 9월 24일(목)

한의학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한약재 재배과정 교육이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20년 한약재 재배과정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한약재 재배과정은 당초 대면교육으로 전국(서울, 대전, 광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된다.

올해 한약재 재배과정에서는 ▲한약재 재배학 원론 ▲한약재를 활용한 도시농업 ▲한약재 생산 및 소득분석 등을 배운다.

교육 신청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선착순 60명이다. 한국한의학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061-860-28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숙현 기자

메디팍뉴스

한약비임상시험센터 GLP 인증 획득

보도일자
2020년 9월 25일(금)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GLP 인증은 표준작업지침서(SOP)와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한 후 정해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 수행능력과 적절성을 평가받아 인증된다.

정용현 한약비임상시험센터장은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식약처 GLP 인증기관이 되면서 신뢰성 있는 한약 독성평가와 유해성평가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안전한 한약재 근거와 한약제제 개발 및 한약 전임상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전남 장흥에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한약제제 분석실 등 주연구동과 부속 5개동 규모로 건립됐다.



주재승 기자

한 의 신 문 한약비임상시험센터, GLP 인증

보도일자
2020년 9월 25일(금)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GLP 인증은 표준작업지침서(SOP)와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한 후 정해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 수행능력과 적절성을 평가받아 인증받는다.

정용현 한약비임상시험센터장은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식약처 GLP 인증기관이 되면서 신뢰성 있는 한약 독성평가와 유해성평가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안전한 한약재 근거와 한약제제 개발 및 한약 전임상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전남 장흥에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한약제제 분석실 등 주연구동과 부속 5개동 규모로 건립됐다.



김대영 기자

경북매일

한방의료·한약소비실태조사 연말까지 실시

보도일자
2020년 10월 5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국가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9월 말부터 3개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자료 구축에 따른 한의약 정책수립에 활용되며, 일반국민 및 한의 외래·입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이 대상인 '한약소비실태조사'로 구성된다.



이근영기자

메디칼뉴스

한방의료이용·한약소비실태조사 실시

보도일자
2020년 10월 5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와 처방과 한약제제 등 한약의 처방현황, 다빈도 처방 등의 국가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9월말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마다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한의약 소비 실태 분석을 통한 국가승인통계 자료 구축으로 한의약 정책수립에 활용되며, 일반 국민 및 한의 외래·입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이 대상인 '한약소비실태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만 19세 이상 한의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방의료 실태와 인식 정도, 수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게 된다.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 28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의 연간 처방 현황 및 소비 실태 등을 파악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조사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외에 설문지를 가구 문 앞에 전달 후 추후 회수하는 방식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응세 원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자료 생산으로 한의약 정책수립 및 한의약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www.koms.or.kr)를 통해 운영 중이며, 조사의 목적, 배경, 내용, 주기 등 기초 보고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술용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자료 이용 목적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주재승 기자

중양일보 제1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보도일자
2020년 10월 7일(수)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 한의학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1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은 표준화,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 변화 발전하는 한의학 산업을 창의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의학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한의학 소비 촉진 및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및 팀(3인 이하)) 참여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영상, 만화, 포스터, 캐릭터 4개 부문이다.

응모 주제는 ‘한의학 인식개선 및 변화·발전하는 한의학(산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이며 세부 주제와 응모 서류는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며 출품 규격 및 공모 절차 준수 여부, 평가 기준에 의해 내·외부 전문 심사위원 5인이 작품 심사를 진행한다.

시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300만원) 1작품, 한국한의학진흥원 원장상(200만원) 2작품, 장려상(50만원) 4작품으로 구성된다. 최종 수상자 명단은 11월 4일 진흥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지원을 원하는 자는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덕용 기자



경향신문 제1회 한의약 홍보 공모전 ‘후끈’

보도일자
2020년 10월 9일(금)

“한의학 인식개선과 변화·발전하는 한의학 산업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한의학 박사)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 한의학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표준화,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 변화 발전하는 한의학 산업을 창의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의학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한의학 소비 촉진 및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열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개인 및 팀(3인 이하) 참여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영상, 만화, 포스터, 캐릭터 4개 부문이다. 응모 주제는 ‘한의학 인식개선 및 변화·발전하는 한의학(산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이며 세부 주제와 응모 서류는 공모전 홈페이지(nikomcont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다. 출품 규격 및 공모 절차 준수 여부, 평가 기준에 의해 내·외부 전문 심사위원 5인이 작품 심사를 진행한다.

시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300만원) 1작품, 한국한의학진흥원 원장상(200만원) 2작품, 장려상(50만원) 4작품으로 구성된다. 최종 수상자 명단은 11월 4일 한의학진흥원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홈페이지(nikomcontest.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nikom201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박효순 기자



경북일보

노종현 주임연구원 한국약용작물학회 심포지엄 '학술상' 영예

보도일자
2020년 10월 14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주임연구원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약용작물학회 심포지엄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약용작물 및 토종한약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 학회 발전과 한의약 연구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현재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고 있으며 토종자원 확보와 기술혁신, 융합으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김윤섭 기자

아이팝뉴스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상 수상

보도일자
2020년 10월 15일(목)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주임연구원이 지난 7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약용작물학회 심포지엄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약용작물 및 토종한약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 학회 발전과 한의약 연구에 높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현재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고 있으며, 토종자원 확보와 기술혁신, 융합으로 한의약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노의근 기자



풍도대극의 항암제 부작용 개선 효과 입증

보도일자
2020년 10월 22일(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풍도대극에서 분리된 성분인 감마-피론-3-O-β-D-(6-갈로일)-글루코피라노사이드(이하 PGP)가 항암제인 시스플라틴(cisplatin)에 의한 신장 독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스플라틴은 항암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1차 항암제로 사용량 및 주기에 따라 신장과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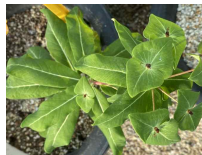
풍도대극은 한약재인 낭독(狼毒)의 기원 식물로 대극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예로부터 병이 나게 하는 나쁜 기운, 즉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뱃속의 덩어리적취(積聚)와 담(痰)을 제거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풍도대극은 붉은 대극의 변종으로 우리나라 서해의 풍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자세한 효능과 분리성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을 통해 신장 독성이 유발된 동물에 PGP를 투여한 결과 신장 조직 손상을 유의적으로 예방했으며, 신장 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한약재뿐만 아니라 한국약용작물의 유효성을 입증해오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에 풍도대극 성분에 관한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길이 열렸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용세 원장은 “국내 약용작물 및 토종한약자원을 이용한 연구 개발 및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



풍도대극, 항암제 부작용 개선 효과 입증... 한의약진흥원 특허 등록

보도일자
2020년 10월 22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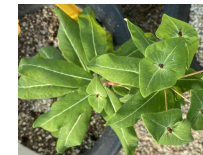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한의약진흥원(경북 경산시 소재)은 22일 풍도대극에서 항암제 부작용 개선 효과를 입증해 특허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풍도대극은 한약재인 낭독(狼毒)의 기원 식물로 대극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예로부터 사기를 제거하고 뱃속의 덩어리와 담을 제거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풍도대극에 대한 과학적으로 자세한 효능과 분리성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의약진흥원 연구팀은 항암제(cisplatin)를 통해 신장독성이 유발된 동물에 풍도대극에서 분리된 성분을 투여한 결과 신장독성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

신장조직 손상을 유의적으로 예방했고 신장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의약진흥원은 풍도대극 성분에 관한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고, 이를 이용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용세 한의약진흥원장은 “국내 약용작물 및 토종한약자원을 이용한 연구 개발과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서 기자



매일경제 결명자, 위염 예방 효과 있다

보도일자
2020년 10월 27일(화)

한국한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한약재로 이용되는 토종한약자원 중 결명자 물 추출물이 위염을 개선하는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9년부터 결명자 물 추출물 (100, 500 mg/kg)을 위염이 유발된 동물에 투여한 결과 위점막 손상을 개선시키고, 위조직 내에서 점막 손상을 차단시키는 'Prostaglandin E2'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약진흥원에서는 현재 국산 한약재를 대상으로 위염,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여러 염증질환을 평가 중이며, 이번에 결명자 물 추출물의 위염 예방효능을 입증해 특허를 등록함에 따라 결명자를 이용한 우수 제품 개발과 한의약 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명은 '결명자 추출물을 포함하는 위장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공개번호 10-2020-0052770)'이다.

한약재로 사용되는 결명자는 씨앗의 일종으로, '눈을 좋게하는 씨'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예로부터 눈의 피로와 건조감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변비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 일상에서 쉽게 사용된다. 결명자의 주요 성분은 anthraquinone 계열의 화합물로 emodin, physcion 및 chrysophanol과 같은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예방, 항산화 및 간세포 보호 등 이로운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성이 높은 우수 품질의 국산 한약재를 개발·보급해 자원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아시아투데이 결명자 추출물 위염예방 효과 있다

보도일자
2020년 10월 27일(화)

한국한약진흥원은 한약재로 이용되는 결명자 물 추출물이 위염을 개선하는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결명자 물 추출물 (100, 500 mg/kg)을 위염이 유발된 동물에 투여한 결과, 위 점막 손상을 개선시키고 위 조직 내에서 점막 손상을 차단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E2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약진흥원은 현재 국산 한약재를 대상으로 위염,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여러 염증질환을 평가 중이며, 이번에 결명자 물 추출물의 위염 예방효능을 입증해 특허를 등록함에 따라 결명자를 이용한 우수 제품 개발과 한의약 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재로 사용되는 결명자는 씨앗의 일종으로 '눈을 좋게하는 씨'라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예로부터 눈의 피로와 건조감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변비를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 일상에서 쉽게 사용된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예방, 항산화 및 간세포 보호 등 이로운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이에 대한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성이 높은 우수 품질의 국산 한약재를 개발·보급해 토종자원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아이팝뉴스

제1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 개최

보도일자
2020년 11월 2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그레이프 라운지 을지로점에서 '제1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임상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의학 연구자, 한의사 및 임상연구에 관심 있는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방법론 및 연구가이드 제공을 위한 교육을 3일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임상연구 방법론(11일) ▲경제성 평가(12일) ▲임상연구 제도 및 인·허가(13일)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강연자로는 사업단 김남권 단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현정 부연구위원, 이월숙 평가사업단 단장, 메디팁 윤지혜 차장 등이 참석한다.

한외과대학 재학생, 병원 및 대학의 연구자,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등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11월 9일까지 국가한임상정보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 교육으로 50명 내외를 선착순 모집하며, 온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김남권 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한의사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제공해 한의약 임상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2016년 출범 이래 매년 근거중심 임상연구 방법론 등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근거기반 한의약 R&D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노의근 기자

경북일보

제1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 개최

보도일자
2020년 11월 2일(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그레이프 라운지 을지로점에서 '제1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한의약 임상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의학 연구자, 한의사 및 임상연구에 관심 있는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방법론 및 연구가이드 제공을 위한 교육을 3일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임상연구 방법론(11일) △경제성 평가(12일) △임상연구 제도 및 인허가(13일)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강연자로는 사업단 김남권 단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현정 부연구위원, 이월숙 평가사업단 단장, 메디팁 윤지혜 차장 등이 참석한다. 한외과대학 재학생, 병원과 대학의 연구자,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등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11월 9일까지 국가한임상정보포털(www.nckm.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교육으로 50명 내외를 선착순 모집하며, 온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김남권 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한의사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제공해 한의약 임상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2016년 출범 이래 매년 근거중심 임상연구 방법론 등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근거기반 한의약 R&D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사항은 임상연구지원팀 권수현 선임연구원(shkwon@nikom.or.kr)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섭 기자



아이팝뉴스

3종 한약제제 러시아로부터 건기식 인허가 취득

보도일자
2020년 11월 3일(화)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3종의 한약제제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최종 인허가 취득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한의학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한의학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경방신약의 경옥고, 사물탕, 보중익기탕이 1년 6개월의 노력을 통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승인받았다.

러시아에서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중약제제를 러시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해 현지 의료인 교육과 판매를 통해 중약제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러시아 수출 인증을 받은 제품은 경방신약의 경옥고, 사물탕엑스과립, 보중익기탕엑스과립 3개 한약제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과 국산 한약재로 제조한 제품으로 선별했다. 러시아에서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재와 러시아인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으로 유기적인 컨설팅과 분석, 증빙자료를 통해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복지 감독청(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에서 인허가 등록 승인을 받았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이번 러시아 인허가 취득은 한의학산업 해외진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등 한의학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한약제제 해외 인허가 연구, 외국 의료인 연수와 한의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의학 제품(제약, 의료기기) 수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의 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학 제품,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의근 기자



프레시안

3종 한약제제 러시아로부터 건기식 인허가 취득

보도일자
2020년 11월 4일(수)

한국한의학진흥원은 3종의 한약제제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최종 인허가 취득을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한의학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한의학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경방신약’의 경옥고, 사물탕, 보중익기탕이 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승인받았다.

러시아에서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러시아 수출 인증을 받은 제품은 경방신약의 경옥고, 사물탕엑스과립, 보중익기탕엑스과립 등 3개 한약제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과 국산 한약재로 제조한 제품으로 선별했다. 러시아에서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재와 러시아인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으로 유기적인 컨설팅과 분석, 증빙자료를 통해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복지 감독청(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에서 인허가 등록 승인을 받았다.

이응세 한국한의학진흥원장은 “이번 러시아 인허가 취득은 한의학 산업 해외진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등 한의학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창우 기자



한 의 신 문
hankomnews.com

한의학진흥원, 외국인 대상 한의학 온라인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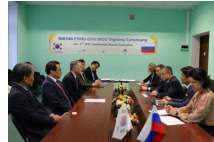
보도일자
2020년 11월 10일(화)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 사업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은 2019년부터 한국한의학진흥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청연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 참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술을 교육하는 '임상 연수', 외국에 한의학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해외교육', 한의학 제도 및 한의 의료보험 등을 교육하는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상 연수'과정은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 5개 기관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학 개론을 비롯해 사암침 등 한의학의 대표 침법과 척추질환, 비만, 파킨슨병, 중풍, 안면마비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강의한다. 해외 고등교육기관 내 한의학 정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외 교육' 과정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엘바인캠퍼스(경희대), 독일 괴팅겐대학교(부산대), 미국 아칸소 보건의료교육대학(자생메디컬아카데미), 키르기스스탄 아스펜자로프 국립의대(청연한방병원),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한국한의학진흥원, 대구한의대학교 공동 운영) 등 6개국 9개 협력 기관에서 재학생 및 교수진 등을 대상으로 한의학 시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정책 연수'과정은 전통의학 분야 정부간(G2G) 협력에 기반해 각국 보건부 전통의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학 역사, 정책, 교육, 건강보험제도, 연구개발, 치료기술, 한약제제 등을 교육한다. 올해는 13개국 60여명이 해당 과정에 지원해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 총괄을 맡고 있는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교육 및 연수 과정이 온라인으로 기획·진행돼 우려가 있었으나, 각 기관이 만든 교육영상에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축적돼 전달력과 전문성이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의학 정책, 임상 교육 등 선진화된 한의 시스템과 우수한 한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 의료인 연수를 비롯해 한약제제 해외 품목 인허가 지원, 한의학 해외진출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학이 해외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혜 기자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한의학진흥원, 외국 의료인 대상 온라인 한의학 연수 실시

보도일자
2020년 11월 10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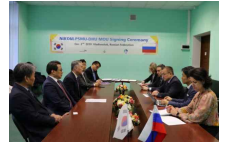
전 세계 의료인,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한의학 교육 및 연수 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한의학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 사업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은 지난해부터 한국한의학진흥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청연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 참여기관자격으로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술을 교육하는 '임상 연수', 외국에 한의학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해외교육', 한의학 제도 및 한의 의료보험 등을 교육하는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상 연수'과정은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 5개 기관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학 개론을 비롯해 사암침 등 한의학의 대표 침법과 척추질환, 비만, 파킨슨병, 중풍, 안면마비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강의한다. 해외 고등교육기관 내 한의학 정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외 교육' 과정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엘바인캠퍼스(경희대), 독일 괴팅겐대학교(부산대), 미국 아칸소 보건의료교육대학(자생메디컬아카데미), 키르기스스탄 아스펜자로프 국립의대(청연한방병원),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한국한의학진흥원, 대구한의대학교 공동 운영) 등 6개국 9개 협력기관에서 재학생 및 교수진 등을 대상으로 한의학 시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정책 연수' 과정은 전통의학 분야 정부간(G2G) 협력에 기반하여 각국 보건부 전통의학 정책결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학 역사, 정책, 교육, 건강보험제도, 연구개발, 치료기술, 한약제제 등을 교육한다. 올해는 13개국 60여명이 해당 과정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응세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교육 및 연수 과정이 온라인으로 기획·진행되어 우려가 있었으나, 각 기관이 만든 교육 영상에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달력과 전문성이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의학 정책, 임상 교육 등 선진화된 한의 시스템과 우수한 한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숙현 기자

한국한의학진흥원
이응세 원장 인터뷰
(2018~2020)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론직필 정신으로 한의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민족의학신문의 신년 특집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황금개띠의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한의학 산업 진흥기관입니다. 지난해 다사다난한 환경 속에서도 재단은 분주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로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세계적인 한의학 산업 국가로 도약하는데 또 하나의 주춧돌을 쌓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검증된 한의학은 그 가능성이 무한하며 미래국가 성장 동력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고혈압, 당뇨 등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할 인류의 희망이며 함양신약의 블루오션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전통의학 시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약진흥재단은 2018년 새해를 혁신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한약 기술 과학화, 한약자원 고도화, 한의의료 서비스 혁신 등 한의학 기반 조성 효과 증진을 통해 한의학의 미래가치 창조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현대적 제형을 개발해 한약에 대한 편리성을 높이고, 고품질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국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의신약 개발, 토종 한약자원 보존·보급, 한약재 유통 체계 선진화, 정책개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한의약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한 자생식물 자원화, 국제포럼 구축, 한의학의 4차 산업화, 한약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제에 기여할 막중한 임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융합의 시대입니다. 세계는 IT와 BT, N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세계화 또한 과학기술과의 융합연구가 절대적입니다. 재단이 세계 한의학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민족의학신문의 신년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더욱 유익하고 알찬 지면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론지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He is 1962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경희대에서 한의학을 전공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 정교수, 유라시아의학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전 세계적으로 웰스케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전통의학이 기반인 한의학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와 산업화 등이 진행되며 근거 없는 선입견과 안정성·효능에 대한 논란, 비싸다는 편견 등이 하나둘 배일을 벗고 있다. 2015년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 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전남 장흥)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한약진흥재단’이 그 선봉에서 한의학의 무한 변신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약진흥재단의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응세 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학 기술개발,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며 “세계 한의학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망한 2050년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5조 달러(한화 약 6000조원)에 이른다”며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의학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한의학

▷한약진흥재단 원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미션을 갖고 있으며, 한의학 혁신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막중한 임무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한 지 2년 차가 됐습니다. 올해는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유일의 한의학 산업 진흥기관으로 자존감을 확보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에 본원, 서울과 전남 장흥에 본원, 대구의 품질인증센터까지 조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업무분야도 각각 다른데요.

현재 세계 한의학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영효율을 위해 임무와 역할을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데요. 경산 본원은 경영지원과 한방의료행위,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장흥 본원은 한약사를 중심으로 한 업무, 서울은 정책개발과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등

으로 업무영역을 재정비해 전문화할 예정입니다. 한약진흥재단은 올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기관의 명칭이 바뀔 예정이에요. 앞으로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한의학 분야에 국가차원의 산업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IMF 외환위기 때 연구 수행 차 외국에서 지낸 적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경제 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하면서 산업화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한의학도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기본 임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산업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전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의학 산업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질병치료와 예방에 전통의학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의학,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어요. 수치상으로도 근거가 명확하죠. 세계 보완대체 의학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98%, 시장규모는 2015년 1141억 달러에서 2020년 154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에요. 한의학의 산업화는 곧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안전성, 유효성의 근거를 위한 부단한 연구와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 난치 질환에 대한 한의신약 개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의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의 강점이 궁금해지는데요.

한의학은 수천 년의 임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고령사회를 맞아 만성, 난치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약재에서 분리한 천연물질은 다양한 약용효과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는데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는 중국의 한약재 팔각화향에서 분리한 천연물질로 만들었습니다. 한약진흥재단에선 서양의학 치료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비만, 당뇨, 아토피, 고혈압, 고지혈, 천식 등의 질환에 한의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재단 내에 아주 특별한 은행이 있어요. 한방바이오소재은행과 천연물물질은행입니다. 한약재, 생약재에 생물전환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한방바이오 소재 4000여 종과 한약재에서 천연물질을 분리해 만든 천연물물질 1200여 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단 내의 자원을 통해 관련 제품도 개발하는 겁니까.

한의학 소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특히 미백, 주름개선, 체지방 감소 등 한방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음료 개발에 사용됩니다. 재단에선 현재 한의학 처방을 이용한 인삼 함유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간 기능, 기관지, 불면증에 효과 있는 음료를 개발 중입니다.

올해는 한의학 기반 조성과 효율화에 역량 집중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우선 한의학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영문 소식지, 홍보물 제작처럼 한의학 관련 해외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의학의 역사, 이론, 정책 등을 제공하는 다국어 포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 현지 수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온·오프라인 한의학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해 해외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별로 관련된 법과 제도,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한의학 진출 방안과 한약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체계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중국중의과학원, 2017년 미얀마 보건부, 홍콩 푸라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주요 전통의학 기관과 교류를 추진하고, WHO 등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한의학 입지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재단의 업무 특성상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융합해 연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죠. 이른바 한의학의 두뇌집단으로 정부와 민간을 잇는 정책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13년부터 국제동양의학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세계 여러 기관과 연구인력 교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선 제도와 인력운용의 합리적인 개선, 한약기술 과학화, 한약자원 고도화, 한방의료 기술개발 등 한의학 기반 조성과 효율화에 역량을 모을 생각입니다.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 토종 한약자원 보급, 재배·제조·유통 등 한약재 고품질화, 한방의료 진단 및 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술도 개발할 계획이고, 좀 더 나아가 보장성 강화, 한의학 콘텐츠 산업, 국제포럼 구축, 남북한 토종한약자원 고도화, 한의학의 4차 산업화 및 한약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건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한의학이 좀 더 일반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 휴대와 복용이 편리한 한약제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한의가 비용부담이 높다는 인식도 있는데, 그만큼 보험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개선이 중요합니다. 또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도 한의학이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이죠.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근거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어요.

또 기술혁신과 융합연구로 한약자원 생산, 보관, 관리,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약(생약) 제제 안전성을 평가하는 GLP 시설과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 원료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GMP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 보면 단순한 게 가장 어려워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소식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키기 어렵지요. 내 몸이 건강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면.

몸이 약하면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육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면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스트레스는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독성이 몸에 쌓이면 몸에 열이 오르지요. 전 메밀차를 즐깁니다. 메밀이 몸에 오른 열을 내려주고 독성물질을 해독해 주거든요. 여기에 속보로 걷는 운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몸의 노화는 하체근육이 빠지면서 진행되는데, 하루에 한 두 시간 걸으며 명상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안재형 기자

EBS

EBS 초대석 인터뷰

보도일자

2018년 6월 17일(일)



아리랑TV

아리랑TV 하트투하트 토크쇼 인터뷰

보도일자
2018년 9월 3일(월)



세계일보

“전통의약은 훌륭한 미래 먹거리
한의학도 해외로 적극 눈돌릴 때”

보도일자
2018년 10월 28일(일)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240조원입니다. 삼성전자 1년 매출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50년에는 무려 5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급속한 전통의약 시장 성장 추세에 발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특히 세계 전통의약의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당국이 제도·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의약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의 해외 진출이 촉진된다면 한의학의 산업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26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에 입주한 한약진흥재단 서울정책본부에서 만난 한약진흥재단 이응세(56) 원장은 인터뷰 내내 “한의학을 더는 ‘낡고 고루한’ 분야로 치부하기보다는 국가 미래 먹거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일반에는 생소하나 2016년 정부가 전남한방산업진흥원과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해 설립한 보건복지부 소속 유일한 한의학 국가기관이다.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가 주된 업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의학의 안전성과 효과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고품질 한약제제 개발과 한의 신약 개발, 보험급여 확대, 한의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학을 산업화가 가능토록 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일이다. 현재 본원인 경북 경산을 비롯해 장흥, 대구, 서울 4곳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원장은 재단의 한의학 세계화 전략에 관해 묻자 “보건복지부와 ‘한의학 세계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다. 기존의 한의학 관련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진행해온 한의학 해외 홍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다. 임상, 문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한의학 홍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꼽았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의학 전문가와 학생들에게 한의 피부미용, 스포츠 한의학, 사암침 등 한의학의 강점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0여명이 수강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중국 중의과학원 투유유 교수가 개뿔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이후 세계가 천연물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한약재에서 분리한 천연물질은 다양한 약용효과가 있어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다.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는 한약재 팔각회향에서 분리한 천연물질로 만들었다. 그런 만큼 우리 재단에서도 수천 종의 천연물질 은행, 즉 한의학소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전통의학 차이에 대해 그는 “중국의 중서의결합과 일본 한방의학은 주로 서양 의학적 진단에 맞춰 단일한 증상별로 한약을 처방한다. 이에 비해 한의학에서는 서양의학 병명을 참고로 하되, 환자가 나타내는 다양한 증상들을 종합한 한의학적 변증으로써 환자를 이해한다. 이를테면 기침이라는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모두 동일한 기침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소화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기침과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상태들도 참고해 환자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처방한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한국에서는 치료하는 약재들이 꾸준히 세분돼 왔다. 기존의 처방들도 부작용이 작으면서 효과가 좋은 약재들로 대체되는 등 독자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의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제형 현대화) 진행 정도를 묻자 “2013년 국내 최초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연구를 시작해 지금까지 연조엑스제(짜먹는 약), 정제 등 처방에 적합한 맞춤형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해 평위산 갈근탕, 오적산, 보종의기탕 등 22품목을 보험등재했다. 앞으로도 한약제제 한의학적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으로 유효성, 안전성, 편의성을 확보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최근 남북관계가 평화 모드인 만큼 북한과의 한의학 교류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남북 교류를 대비한 한의학 역할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한의약보건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의학 남북 교류사업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분야는 2001년 7월 1차 대표단 방북을 시작으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왔고, 당시 저도 방북단의 일원으로 7차례 북한을 방문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남북한 한의학의 특징은, 자본이 부족한 북한은 전통적인 방법을 유지하고 있고, 남한은 현대적이고 산업적 측면이 발전했어요. 우리는 이가 아니면 치과를 가지만 북한은 양약이 귀하니까 가능한 한 한의학으로 어떻게든 치료해보려고 전통적인 방식을 연구해왔어요.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수법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은 우리가 더 좋으니까 협력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남북한의 한의학 교류가 활발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새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태해 선임기자

한 의 신 문
khannews.com

“한의학 산업화 꽃을 피워 국부 창출의 열매 맺어야”

보도일자
2018년 12월 14일(금)

최근 국회에서 한약진흥재단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한의’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약진흥재단은 명실상부한 한의학 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한약진흥재단 2대 원장으로서 임기 1년을 맞은 시점에 한약진흥재단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이응세 원장. 그는 한의학도 산업화를 통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부창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한의학 산업화라는 꽃을 피워 국부창출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약진흥재단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이 원장으로부터 한약진흥재단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미와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학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은 업무 범위가 ‘한약’으로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재단의 업무 또한 시행령에서 간략히 규정돼 있었다. 재단의 설립 목적과 업무에 부합되도록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기관의 명칭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바뀌게 됐으며 시행령에 있던 업무도 법적 사업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업무범위가 ‘한의’까지 넓어졌다. 이로써 명실공히 한의학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것이다.

Q 향후 방향과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 관련 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취지와 목표는 변함이 없다. 우선 표준화·과학화를 기반으로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휴대와 복용이 편리한 한약제제 개발, 토종 한약자원 보존·재배·보급, 한약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제조·관리·유통의 선진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공의료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한의신약 개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의학으로 혁신해 나아가자 한다. 이와 함께 한약재 생산과 치유형 체험농장을 결합한 신산업 발굴이나 암환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연구 등 한의학 산업의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기존 한의학 산업에 ICT 등 한의의료기술을 접목한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선도가

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의약 세계화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한다. 한의약 해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한의약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국가별 관련 법·제도 및 사례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한의약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 한약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체계 구축, 남북한 협력을 통한 토종한약자원 고도화 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정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사회에서 한의약의 입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산업화가 차세대 국가 먹거리로서 국부 창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다.

Q 임상한의사들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생각이십니까?

궁극적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 임상한의사들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범 한의계의 의견을 반영한 우선순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다빈도 약침 개발 및 관련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가 한의약 보장성 확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상한의사들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한약진흥재단 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는 어떠하신지요?

한의학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기본 임무와 함께 국가 산업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지난 1년은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자존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리고 마침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국 한의약진흥원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이러한 뜻깊은 결실은 한의계 많은 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기관이 될 것임을 약속한다.

Q 2020년 ICOM은 한약진흥재단이 주최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회가 되도록 하고 싶으신가요?

ICOM은 1976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통과 역사가 깊은 전통의학학술대회다. 올해 대만에서 19회 대회가 열렸고 2020년에 열리는 20회 대회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이며, 천년고도 경주는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적합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ICOM을 모티브로 지자체와 한약진흥재단, 대한한의사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상생과 한의약 세계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ICOM 유치를 계기로 한약진흥재단은 세계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제컨퍼런스 및 산업대전 개최를 정례화해 경주를 전통의학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5000년 역사의 한국 한의약과 천년고도 경주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ISOM과 ICOM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역사와 의미를 갖고 있는 국제동양의학학회(ISOM)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학술단체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를 통해 각국 전통의학의 최신 연구와 학술정보를 교류하며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왔다. 현재 중국은 WFCMS, WAFS 등의 국제학술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중의학 세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ISOM을 출범시킨 선각자들이 품었던 의지를 되새겨보고 한의학 세계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한다. 제20회 ICOM을 계기로 그러한 한의계의 의지와 힘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란다.

Q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앞으로 한의계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200조원이 넘는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보더라도 한의약 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미래 국부창출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다. 이제 한의약도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천년 한의학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해 흐름을 리드해 간다면 한의학은 충분히 미래 의학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산업화다. 한약진흥재단은 이를 토대로 한의약 산업화라는 꽃을 피우고 국부 창출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한의계가 한의학을 통해 국가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한의약을 통한 인류 건강과 국부창출’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화합과 상생의 원칙을 잘 알기에 한의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 한의약의 표준화된 진료행위와 근거 확보, 한약제제와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한의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한의약진흥원이 한국은 물론 세계 한의약 분야에서 선도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김대영 기자

경향신문 **한의학 근거 확립과 국약창출 상품 개발에 힘 쏟겠다**

보도일자
2019년 1월 23일(수)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57)은 22일 “원료인 한약재의 표준화를 시작으로 한약 제제의 표준화와 현대화와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인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국민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표준화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국약을 창출할 다양한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새로운 개발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의학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고,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산업화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으로 2016년 2월에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다양한 한약 제형을 개발해 복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약침의 제조공정을 규격화했다. 또한 한약재의 재배, 관리, 유통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했고, 지표성분 시험법을 개선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성과들의 확산을 위해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등의 정책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은 최근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비임상연구시설을 착공했으며, 탕약 표준조제시설이 곧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원장은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을 짜고 관련 법률과 정책 개발, 글로벌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Q.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한의 진료는 비용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방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청구되는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을 처방받는다면 진료비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 재단은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통해 복용과 휴대가 간편하고 효과가 있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제(가루약)로 나오던 보험한약을 연조엑스(농축액)나 정제(알약) 형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보험한약이 56개 처방(단미엑스혼합제)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기준처방 개선으로 보장성 확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단에서는 그 기초 작업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강점을 갖고 있는 질환인 화병, 편두통, 고혈압, 치매, 알레르기성 비염 등 30개 질환의 근거중심 연구와 임상실험을 시행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

사에게 가장 표준화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의 의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전통의약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현재 약 24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점점 늘어 2050년에는 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남북 한의학 교류를 위한 정책 포럼, 국제 한의학임상진료지침 심포지움, 국제 전통의학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홍콩·러시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한의학 제품의 해외진출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뉴스레터, 블로그, 다큐멘터리, 나고야 의정서 이익공유에 대한 한의학 가이드북 등 다양한 한의학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Q. 한의학 유라시아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의계는 2014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유라시아의학센터를 개설해 남·북·러 공동 협의를 기반한 남북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고, 러시아 의대생과 의사 대상으로 한의학 강좌를 운영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중입니다. 또한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관과 개인들에게 현지 의료행정과 제도에 대한 자문역할을 겸하고 있고요. 북한도 구소련 시대부터 전통의약에 대한 연구와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고려의학 본초학 서적들이 러시아어로 번역되기도 했고, 고려의학 임상사들이 러시아의 사립의료기관에 진출해 한의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전통의학 세계화’라는 공동의 목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Q.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 연설을 통해 북한의 제약산업을 발전시켜 의료기관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한의학은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의 상징성뿐 아니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선진화된 서비스산업과 북한의 고려의학 기술, 천연의 풍부한 한약자원을 결합하면 호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중국방문에서 한방 제약사 동인당(同仁堂) 공장을 방문, 제약산업 현대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약 제약 생산 라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약진흥재단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인 한약재의 품종연구, 재배, 생산 및 한약제제 현대화사업 등과 북한의 고유한 전통약제기술을 결합하면 세계적인 한방제제 개발이 가능합니다. 국내 및 세계 한의약품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를 통해 균질화된 우수한 북한산 한약재가 생산된다면 중국 중심의 한약재 시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8월 11월,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약진흥재단은 빠르면 상반기 중에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업무 범위가 단순히 한약에 관한 사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 원장은 “한의약 산업 육성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임상 의사와 기초 연구자, 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중계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을 촉진하고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Q.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특히 건강을 지키는데 한의약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2019년 1월호는 ‘전통 치료법이 어떻게 현대 의학을 변화시키는가(How ancient remedies are changing modern medicine)’ 라는 제목으로 서양 과학계에서 오래도록 경시되어 온 전통 한의약이 최첨단 치료제들을 탄생시키는 데 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고만하던 주제였고 그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집결된 것이 한의약입니다. 위생 수준이 좋아지고,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암,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난치성·만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들이 남아 우리들의 삶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노년까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양생지도(養生之道)를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약에는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며 대응하는 치미병(治未病)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Q. 한의약 연구개발(R&D) 기반 산업화는 어디쯤 가고 있나요.
“저희 재단의 대표적인 연구개발을 기반 산업화한 사례로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약제제 생산액은 3000억원 정도로, 전체 제약시장 규모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숫자도 적고 규모도 영세한 편입니다. 이러한 한약제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탕약 위주의 한약 시장을 한약제제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약제제의 과학화와 표준화 노력에 더하여 탕제와 약효가 동등한 현대적인 제형인 정제, 연조엑스제, 과립제 등을 개발하여 관련 제약회사에 기술이전을 통해 품목허가를 추진하고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Q. 한의계 정보 표준화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한의약의 낮은 정보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약재의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약재의 유통생산과정부터 유통되어 의료기관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표준화 등 한의약에 관한 포괄적인 부분의 정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암이나 만성질환들에 대한 한의신약 개발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소재은행을 운영, 한약재 속의 단일성분은 물론 한약재의 발효(생물전환)를 통한 기능성이 증강된 소재를 보유하고, 이 소재들을 대학·연구소·기업 등에 분양하여 한의약 소재를 이용한 한의신약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소재를 이용해 한약진흥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한의약 소재를 개발하고 중입니다. 한약재들의 새로운 조합을 통하여 항혈전 및 여성갱년기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소재 개발하여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또한 국립암센터와의 양한방 융합연구를 위해 한약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로부터 유래된 단일 성분을 이용해 암 전이·악성화 억제 및 치료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Q. 국민의 건강한 장수를 위한 요체를 꼽으신다면.
“음식을 적절히 먹는 것과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간과되는 것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양생(養生)이라 하여, 정서의 안정이나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 등 인체의 정기를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조합니다.”

Q. 한의약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규제 개혁입니다. 국민 건강에 한의약이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한의 의료행위를 위해 현대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한의약 산업은 1차 산업인 한약재 재배부터 4차 산업인 정보화 산업을 포함하는 범부처 산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의약육성이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한의약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로 정책 시행을 일원화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제도적 측면입니다.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배경은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한의약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정해 한의약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한의약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은 의료법, 약사법, 보건의료기기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의료기기법 같은 타법률 개념에 혼재되어 있어 한의약육성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습니다. 한의약육성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한의약이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박효순 기자

머니투데이 더리더 “한의학이 의학의 미래”

보도일자
2019년 2월 11일(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9년 1월호 커버스토리로 ‘의학의 미래 (The Future of Medicine)’가 실렸다. 여기서 미래의학으로 주목받는 3가지 분야가 언급됐는데 유전공학, 3D프린터, 그리고 전통의학(Ancient Remedies)이었다. 그동안 서양의 학계에서 경시됐던 전통의학이 미래 의학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첨단의학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명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한의학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한의학 산업을 일으켜 세계화를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최종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한약의 우수성에 대해 묻자 “역사적으로 〈동의보감〉이 가장 뛰어난 의학 서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양생(養生)의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즉, 심신을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력을 기른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대 서양의학이 풀지 못하는 답을 미래에는 한의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Q. 한약진흥재단은 언제, 어떤 목적을 갖고 설립됐나

▶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 2월에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조엑스, 캡슐 등 다양한 한약 제형을 개발해 복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약침의 제조공정을 규격화했다. 또한, 한약재의 재배·관리·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 했고, 지표성분 시험법을 개선했다. 이러한 성과들의 확산을 위해 한약제제 보험 급여화 등의 정책 개발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Q. 전통의학 시장의 세계 시장 규모와 한의학에 대한 국내 수요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

▶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 증가와 웰빙 수요 증가, 그리고 치료 개념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는 약 24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점점 늘어 2050년에는 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의학의 점유율은 3%대로, 한의학의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학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Q. 재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한의학의 세계화인데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전통의약을 접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이 생소한 국가가 많다. 전통의약 시장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전통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다. 일반적인 서양의 약은 화학제품으로 단일성분이다. 반면 한약은 약재 하나에도 몇 십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이를테면 인삼을 먹고 좋아졌다고 해도, 정확히 어떤 성분 때문에 치료됐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기 위해 성분 프로파일링 등을 통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효뿐만 아니라 약의 안전 여부도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요소에 대해 독성실험 등이 필요하다. 재단은 현재 전남 장흥에 한약비임상연구시설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연구시설이 완성되면 한의학에 관련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생적이고, 먹기 좋고, 간편한 약을 생산하기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 복합단지 내에는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생산시설(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건설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한의학 핵심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면 한의학 산업발전의 토대가 마련돼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학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간의 기대수명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암, 고혈압, 당뇨 등 난치성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들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한의학은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 하고 관리하며 대응하는 ‘치미병(治未病)’의 지혜가 담겨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본연의 자가 치료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능력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학문이 한의학이다. 현대 용어로 설명하자면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가면역질환은 현대사회로 오며 환경이 바뀌면서 생긴 것이다. 산업화와 공업화로 향신료 등 화학물질이 가미된 식품으로 바뀌면서 내 몸속 세포가 기억 못하는 물질이 들어오니까 교란이 되면서 이상질환이 생기는 것이다. 서양의학에도 이런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한의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신물질은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본다면 새로운 것을 이제는 자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질은행, 소재은행, 그리고 한의학이 앞으로 더 각광받을 것이다.

Q. 재단 내에 ‘한방바이오소재은행’과 ‘천연물물질은행’이 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들인가

▶ 재단은 한약재, 생약재에 생물전환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한방바이오 소재 6000여 종과 한약재에서 천연물질을 분리해 만든 천연물물질 1300여 종을 구축

하고 있다. 한의약 소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미백, 주름 개선, 체지방 감소 등 한방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음료 개발에 사용된다. 특히 한의약 소재는 만성, 난치 질환을 치료할 한의신약 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재단에서는 한의약 소재를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분양해 한의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한의약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한약재들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항혈전과 여성갱년기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 소재를 개발해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이전을 했으며 새로운 한약제제를 제품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와 한양방 융합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로부터 유래된 단일 성분을 이용해 암 전이, 암 악성화 억제제와 치료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암모델을 이용하여 한의약 소재로부터 새로운 항암소재 개발하는 중이다.

Q. 한의약은 서양의약에 비해 다소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나

▶ 서양 의학에서 주로 처방하는 화학합성 약품은 현대 과학적 기전 연구를 통해 분석이 완료된 것이 많다. 약물의 기전과 약동학을 분석하고 임상 시험을 거쳐 효과와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측하며 약물을 투여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질환 또는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약물을 혼합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복합 처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한약의 경우 한 가지 약물이라고 해도 수천, 수만 성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전을 온전히 예측하고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가장 함유량이 높은 물질을 기준으로 연구하고 기전을 설명한다. 대신 한약은 우리가 수천년 동안 생활 속에서 사용해온 임상경험이 있으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고문헌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해나가고 있다.

재단에서는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한의약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약제에 대한 지표성분 분석과 효율적인 추출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용이 간편하고 약효를 최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한약 제제를 개발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약 제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 복용과 휴대가 편한 연조엑스(농축액), 정제 등 다양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Q. 한약제는 일반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공공 의약재로 보장 받을 수 있는가

▶ 국민들은 한의 진료를 비용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청구되는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을

처방받는다면 진료비는 저렴하다. 재단은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 복용과 휴대가 간편하고 효과가 있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제(가루약)로 나오던 보험한약을 연조엑스(농축액)나 정제(알약) 형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에 힘써왔다. 하지만 아직은 보험한약이 56개 처방(단미엑스혼합제)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기준치 방 개선으로 보장성 확대가 중요한 상황인데, 재단에서는 그 기초 작업으로 한 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한의학이 강점을 갖고 있는 질환인 화병, 편두통, 고혈압, 치매, 알레르기성 비염 등 30개 질환의 근거 중심 연구와 임상 실험을 시행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장 표준화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의의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뢰도를 제고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지난해 남북관계 물꼬가 터지면서 국회에서 '남북교류를 대비한 한의약 역할 강화방안' 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한의약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기존의 남북교류는 대부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나 순간순간 단기 행사 위주로 진행됐다. 교류가 활발해 지려면 과거 10년 전 방식을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상품으로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분야가 몇 개나 남아 있을까 생각 했을 때 몇 가지 없다. 언어나 환경 등이 다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학은 유일 하게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은 분야 중 하나다. 한의학에 대해 남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다. 한국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의료서비스와 현대적 기술이 있다.

북한의 경우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통방식을 고수 해왔고, 고문서에 나타나 있는 치료에 대한 방식, 번역 등을 충실히 해왔다. 그들과 우리의 장점을 결합하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과거의 교류는 민간 위주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한다면 산업구조까지도 변화할 수 있지 않겠나.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남북교류를 대비한 한의약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이 열렸다.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방중 일정 중 전통 중의약 업체인 동인당(同仁堂)을 시찰했다. 동인당은 중국 최대 한의약제조사로 3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시찰이 평양제약공장 현대화에 적용하려는 시도임이 증명된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과 의료기구 공장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가장 빠르게 제약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는 한약제제다. 그리고 약의 생산

부터 관리, 독성 안전 등을 증명해야만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국내 한의약 기관들 중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재단인 만큼 우리가 가진 기술과 북한의 고려 약재 관련 노하우를 결합하면 동인당보다 더 좋은 제약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족의학이라는 자산을 갖고 힘을 합친다면 그것이 진정한 남북협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 사업은 서로 왔다 갔다 하 기만 했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3세계를 돕거나, 산업화를 통해 세계화를 한 예가 없다. 그런 역할을 할 분야 중 하나가 단연코 한의약 분야라고 생각한다.

Q. 올해 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2018월 11월,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 되어 우리 기관은 오는 6월 한국 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기관의 업 무 범위가 단순히 한약에 관한 사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됨을 명시한 것이다.

한의약 산업 육성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기관은 임상 의사와 기초 연구자, 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중계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을 촉진하고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 해내겠다.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로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또한 우리 기관의 역할은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한의약의 종주국으로서 물질,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식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의약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

Epilogue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이응세 원장은 졸업 후 운동 재활에 관심이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자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스포츠생리를 전공했다. 스포츠의학과 관련돼 태릉선수촌 스포츠과학연구소에 1988년,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스포츠한의학이 없었던 시절 한의학과 스포츠의 학을 공부한 연구 1세대다. 이후 그는 상지대 한의과대 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기도 했다. 그는 '의료라는것은 단순히 의료행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산업에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는 한국에 돌아와 의료 산업 벤처회사를 경영하기도 했다. 그 시기에 대한한 의사협회에서 국제업무 부회장직을 맡아 국제교류 업무도 했다. 사회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 북한 등 우리시대 접하고 있는 문제를 한의학 쪽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고민했다. 모든 일이 지속,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낀 그는 대한한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러시아에 유라시아의학센터를 만들어 교류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의과대학에 교수로 1년 재직했다. 이후 다음 행보로 현 한약진흥재단 원장으로 오게 됐다.

한방과 양방의 통합에 대한 견해는 과거에 지인인 치대 교수 한 분이 미국 하버드대로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침술로 치통을 해결하는 연구를 했다고 했다. 처음에 이 분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침술을 가르쳐달라고 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의대와 치대 학생들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동아리 지도교수를 하면서 서클을 끌어갔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한방과 양방이 융합을 통해 윈윈을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240조 규모다. 삼성전자 매출과 맞먹는다. 내거다 니거다 할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현대인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데 한방 꿀팁을 준다면 인체에는 물과 불의 속성을 가진 음양이 있다. 음은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시켜주고, 양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흥분하고 조급하게 한다. 음양은 순환이 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순환이 되지 않고 화가 오르기만 하면 상열이라 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열을 낮춰주고 완화시켜줘야 음양의 조화가 맞는다. 심리적으로 안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식품을 통해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메밀은 신체의 열을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 소바나 냉면 등 메밀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메밀은 몸 안에서 불순물을 배출시키는 해독작용도 한다. 커피보다 메밀차를 꾸준히 마시면 일반 신경안정제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편승민 기자

BBS NEWS

BBS가 만난 사람

보도일자
2019년 4월 5일(금)



약업신문

"한의+한약 과학화 추진으로 산업발전 이룬다"

보도일자
2019년 6월 11일(화)



한의학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등 한의약산업 중요 활동을 해온 한약진흥재단이 '한의학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응세 한국한의학진흥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가자협의회와 만나 새롭게 출발하는 한의학진흥원의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세계화로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2월 경북에 설립된 복지부 산하 유일한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이다.

여기에 이번 한의학진흥원(이하 진흥원) 출범을 통해 기존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으로 한정된 업무범위가 한의약기술 진흥 지원으로 확대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약진흥재단 2대 원장인 이응세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진흥원 초대 원장으로서 확대된 진흥원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진흥원은 한의약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한의약 산업 육성으로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한의약분야 대표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응세 원장은 특히 진흥원의 역할로 한의약의 객관성과 표준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시대에는 한의약이 국민을 상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의학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중심 객관성, 표준화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의약을 이야기할 때에는 독성이 없어도 안정성이 결여됐다 하고, 약제 생산이 불안정하며, 약제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복지부와 진흥재단이 협력해 이러한 과정을 불식하기 위해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공공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월 전남 장흥에 전문 한약비임상독성실험실(GLP)을 완공하고, 아울러 대구첨단복합단지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만 전문으로 생산하는 전문공장(GMP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 원장은 "GMP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취약점이 있다. 캐미컬(합성의약품)은 GMP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한약재는 GMP 이전 원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오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GLP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남 장흥본부에서 약제에 대한 종자, 기원, 생산방법부터 우수한약재 재배를 위한 시설 등 한약제 고도화를 시범사업중으로, 이러한 방법을 농민에게 알려주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공공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표준화 과정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우, 한약진흥재단 3년 간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진흥재단은 과거 3년간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을 해 왔으며, 한의원 에서 만형 발생하는 질환 30개를 잡아 진료지침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진료지침은 다 나왔고, 이제 할 일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임상 에서 표준지침으로 쓴 약으로 정해진 것들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덕 기자

KBS NEWS

한의학 중심지 발돋움 기대

보도일자
2019년 6월 12일(수)

[앵커멘트]

한의학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기관인 한의학 진 흥원이 오늘 경산에서 출범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한약 유통 인프라를 갖 춘 대구,경북이 한의학 산업 중심지로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영 기잡니다.

[리포트]

한약재와 의약품, 의료서비스를 아우르는 한의학 산업, 세계시장은 2백 조 원 규 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데다 전문 의료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양약에 비해 미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한의학 진흥 원이 기존 한약재단의 기능을 확대해 출범했습니다.

이응세/한국 한의학진흥원장[인터뷰]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한약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롭게 태 어나는.."

진흥원은 한의학 과학화와 표준화, 우수 한약재 재배와 유통지원, 각종 정책개발 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의료단지에 임상용 한약재 생산시설을 건립 하고, 만여 종의 한약재 은행도 운영합니다. 또 한의 표준임상진료 지침을 마련 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은 약령시장 등 전국 최대규모 의 한약 유통망과 풍부한 인력 등 산업육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인터뷰]

"한의학 관련해서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에 있는 한의학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도록. 또 바 이오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대구,경북이 한의학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TBC NEWS

'한의학 동맹'으로 세계시장 노크

보도일자
2019년 6월 12일(수)

우리나라 한의학산업을 육성하는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오늘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주요 한약재를 생산하는 전남등 12개 시군과 전국 한의과대학들과 손잡고 세계 시장을 노크합니다.

보도에 송태섭기잡니다.

경산에 있는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한약재 중심이던 업무영역이 한의학 산업 전분야로 확대되면서 명실공히 한의학산업 발전과 육성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응세/한국한의학진흥원장 "한약진흥재단이 한약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었다고 하면 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 분야에 걸쳐서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에 맞춰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등 광역자치단체 2곳과 영호남 한의학 동맹을 맺고 한의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철우/경상북도지사 (한의학시장이 세계적으로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한의학시장의 메카로서 역할을 하리라 믿고 우리 지역 한의학산업의 큰 발전을 주는 중심체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경산시와 전남 나주시,충북 제천시등 우리나라 주요 한약재 생산지인 12개 시군들과도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또 전국 12개 한의과대학들과도 손잡고 한의학 소재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의학 세계화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200조원 규모인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2050년이면 무려 60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한의학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큰 이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M 민족의학신문
THE MINJOK MEDICINE NEWS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약으로 국한 됐던 업무범위 확대 의의"

보도일자
2019년 6월 20일(목)

지난 12일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산업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 및 한의과대학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한약에서 더 나아가 한의학 관련 산업까지 업무범위를 넓힌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한의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나갈지 이응세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한약진흥재단에서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한약진흥재단이 탄생하던 당시 그 근거가 된 것은 2004년 한의학육성법에 '한약진흥재단을 둘 수 있다'는 단 한 줄 뿐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남과 경북에 한방진흥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고, 이들이 시행령에 의해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행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서 업무추진이 불안정했다. 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적인 의료행위와 한약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룬다. 반면 한약진흥재단은 한약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그동안은 한약으로 업무가 국한되어 있기에 다양한 의료기술이나 서비스, 의료기기 등의 업무를 하지 못했다. 이에 한의학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조항으로 한의학진흥원의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가 포함되면서 이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Q. 출범식과 함께 전남과 경북 등의 광역단체 및 13개 기초지자체들과 한의학 산업 육성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전국한의과대학과는 한의학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체결했다. 이 협약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한의학 관련 산업을 각자 추진하다보니 중구난방이었고 혼선이 많았다. 그래서 이를 누군가 책임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자체들과 mou를 체결하게 됐다. 다행히 다들 이 제안에 동참해줬다. 또한 한국한의학진흥재단은 처음에는 전남과 경북이라는 영·호남지역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들이 한의학에 대한 산업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한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동맹을 맺자는 취지에서 mou를 제안했다.

한의학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한의과대학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결했다. 한의학진흥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한의학 소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기관의 독점적인 소유이지만 동시에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기에 다른 기관과의 협약을 고민했다.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보면 약재의 성분을 추출할 일이 생기는

데 이는 한의약진흥원에 비해 전문적이지 않고 수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관에서 대학에 교육도 제공하고, 각 대학에서 추출한 소재를 우리 기관에 있는 시설에 대신 보관해줄 예정이다. 요구에 따라 연구용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실험환경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발전하면 한의계 전체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Q. 한의약진흥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획은 무엇인가.
경산본원의 경우 경영과 연구개발본부가 있다. 이곳에는 R&D팀이 있는데, R&D 1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진흥원으로 발전할 것을 대비해 미리 만들어 둔 조직이다. 이 곳에서는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등을 맡게 된다. 이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업무다. R&D 2팀은 기존처럼 한약제형의 변화를 담당한다.

한의신약팀에서는 한의신약의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한약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왜 치료됐는지 무슨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 오해를 사기도 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소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천연물질을 통해 1700여종의 한의약소재를 추출해냈다. 단일한약제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러한 소재를 다른 효소 등과 결합시켜 새로운 성분을 만드는데 이를 포함하면 대략 1만 여종의 한의약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암센터와 교류를 하고 있다. 암센터에서는 각종 암의 종류별 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암세포에 우리의 한약재소재가 항암효과가 있을지 연구해왔고, 2년 동안의 연구 끝에 600여 개 중 25개를 추렸다. 이는 의미가 있는 결과다. 현재는 더욱 상세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암센터는 진세노사이드의 항암효과 연구를 진행하고, 한의약진흥원은 진세노사이드가 있는 인삼을 어떻게 조합하면 항암효과가 있을지도 연구하고 있다.

산업화 지원팀은 한의약 산업에 보탬이 되도록 기존 연구의 산업화나 기술전수 등을 지원한다. 한국한의약연구원이 기초 R&D를 했으니 우리는 이를 산업화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품질인증센터에서는 식약처의 위탁을 받아 한약재 독성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 약령시에 건물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곳에서 독립적으로 수입약재 관련 검사와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동물성 한약재의 기준이 무엇인지, 웅담의 어떤 물질이 지표물질이 돼야 할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케미컬 약은 GMP부터 시작해서 주사제나 제약 등으로 사용되지만 한의계는 약초를 땅에 심을 때부터 문제가 된다. 관련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런 것에 문제가 많아서 품질인증을 하려면 약초가 자라고 유통되는 등의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 전남 장흥에 자원본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토종한약재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의 수입한약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편중되어 있다. 다행히 10년 전부터 전남함향산업진흥원

은 약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왔다. 토종약재 240여종이 한국자생식물이라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어떻게 재배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우수한 한약재로 재배할 수 있을지 연구해왔다. 이 한약재의 유전자분석도 실시해 미국 NCDI 등록도 해냈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토종한약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올해 말까지 도록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한약재를 생산할 때 이를 대량으로 실험할 GMP시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대구첨복의료단지에 공공인프라시설로서 한약제제 임상시험용 GMP시설을 만들고 있다. 1000평이 넘는 규모로 어지간한 제약회사보다 크다. 이것이 완성되면 한약재 임상시험으로는 국내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약 독성문제는 늘 이슈다. 한약에 너무 여러 가지 약이 있어서 독성이 있어도 무엇인지 모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한약에 대한 불신을 씻기 위해 장흥에 비임상 독성센터(GLP 기관)를 만들기로 했다. 대략 100억 원이 들 예정이다.

서울 정책본부는 정책을 담당하는데 미래정책팀은 제도개선, 공공정책팀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협약급여화가 좋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의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어떤 조건이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의 경우 원래 별개로 활동했지만 올해부터는 한의약진흥원으로 들어왔다. 30개 질환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이를 식약처 IND 인증이나 임상시험으로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의치료행위의 근거를 창출하려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한의 기술이 급여화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를 하나씩 급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한의약진흥원은 한약재를 심을 때부터 임상시험에 이르기까지 한의계 전주기의 모든 일을 다 수행한다. 이런 기관은 세계적으로 없다. 이를 제대로만 수행할 수 있다면 한의약진흥원은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 한의약진흥원으로 출범한 것이다.

Q. 한편으로는 한의약진흥원이 너무 많은 일을 부담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한다. 양방은 그런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는데 한의약진흥원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한의계의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우리기관 뿐이다. 한의계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기관이 우리밖에 없다보니 이를 모두 끌어안고 가고 있다. 한의계가 점점 발전해서 분화되길 바랄 뿐이다. 제약은 제약대로 공공인프라는 공공인프라대로 분화되는 타이밍이 빨리 왔으면 한다.

Q. 한의약은 아직까지 산업화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의료는 의료 하나로만 존재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 제약 등 다양한 분야가 얹혀 있다. 양방의 경우는 의료기기개발은 의료기기개발회사가 하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의사가 산학연 분야를 모두 다 한다. 각 분야가 서로 협력하고 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한의약은 한의학 관련 의료행위와 업무를 뜻한다. 한의약이 발전하려면 한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산업이 형성되고, 의료도 발전해나간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이를 위한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대만 등 다른 나라를 보면 대체의학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를 넘어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산업으로 진출해야 의료가 발전한다. 한의계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Q. 유라시아센터장을 역임하며 남한과 북한의 한의학 교류를 위해 일했었다. 한의학진흥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나.

한의계에서 남북교류와 관련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한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문제는 지금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 교류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뿐이다. 이외에 약에 관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한의협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어려워졌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남북교류를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자원을 우리의 기술로 자원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Q. 한국한의학진흥원의 비전은 무엇인가.

한의학 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기여하자는 것이 우리기관의 비전이고 목표다. 단순히 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계 내외 여러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다.

박숙현 기자

이투데이

[정책발언대] 한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과학화·표준화

보도일자
2019년 7월 9일(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각종 난치·만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통의학은 수천 년 임상을 통해 검증된 치료의학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대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와 안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효능과 효과, 안전성에 대한 양질의 임상 근거 확립은 한의약 신뢰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전통의학이 직면한 과학화, 표준화의 과제를 극복하고 한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근거 중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이다. 한의약 및 전통의학 분야의 근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질환에 따른 치료방법을 도출하는 프로세스에 의해 개발된다. 침, 추나, 뜸, 부항, 탕약, 약침, 한약제제 등 일선 한의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술·처방되는 의료행위와 의약품을 활용해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2020년까지 30개 임상 과제를 인증 완료하며, 2021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에 보급된다. 한의과대학과 의료기관,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위임받은 연구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진료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한의계 발전에 큰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견비통, 안면신경마비, 족관절염좌, 경항통, 만성요통, 요추추간판탈출증, 화병, 슬통 등 8개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했고,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턱관절장애, 암 관련 증상, 자폐스펙트럼장애, 편두통, 불안장애, 지속성·만성 피로, 파킨슨병, 중풍, 감기, 알레르기 비염, 현훈(어지럼증), 유방암의 보완치료, 기능성 소화불량, 고혈압, 월경통, 갱년기 장애 및 폐경기 후 증후군, 수술 후 증후군,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 치매, 수족냉증, 불면장애 등 22개 질환 진료지침을 연구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련 임상연구 등 한의약 분야 최신 근거들을 모아놓은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NCKM:National Clearinghouse for Korean Medicine)'는 한의 임상 정보 교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30개 질환 진료지침은 물론 국내외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모든 한의약 임상연구들이 NCKM에 등록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상 한의사들이 최신 진료지침 근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결정 단계에서도 진료지침 근거들이 적극 활용되어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 치료기술 발굴과 근거 창출 및 공유, 실용화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은 한의 의료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표준화·산업화를 견인할 임상시험용 한약 제제 생산시설(GMP)과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또한 근거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의계 숙원사업이자 한의약 공공 인프라 핵심인 GMP, GLP는 오는 8월 건립되며, 한의약의 경쟁력, 기술력,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등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약 제제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GMP는 임상시험용 한약 제제 및 위약, 한약 제제 원료의약품 생산과 한약 제제 전문 위탁생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SPF 청정 동물실, 세포 실험실 등 첨단시설을 갖추게 될 GLP는 한의계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한의약 안전성 확보, 국가치매관리, 한방난임치료연구 등을 지원한다.

한의약은 미래 국가 산업 블루오션으로 국민 건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친 우수 한의치료기술 발굴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GMP·GLP 공공 인프라는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 한의약은 이제 표준화·과학화의 기반을 다지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립해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KTV 뉴스중심

전생애 건강보장 한의약 등 보장성 단계적 확대

보도일자
2019년 7월 18일(목)

임소형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요.

높은 비용으로 부담이 됐던 한의약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문재인 케어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국민건강보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3천 6백만 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2일, 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보고회)

"임기 내 전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녹취>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존 비급여, 특히 치료 목적 관련 비급여를 전면 제도권으로 포함 시키겠다...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가 되겠죠. 이런 목적을 갖고 현재까지 착각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계획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큰 의약품의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높은 약값에 비용 부담이 컸던 한의약 부문도 단계적으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용 한약 개발과 표준화에 한창인 한국한의학진흥원을 찾았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한국 한의학진흥원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가보겠습니다."

선반을 채운 다양한 한약재와 조제 기구들.

부피가 크고 복용량도 많아 불편했던 탕약을 알약이나 가루처럼 간편한 형태로 개발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영욱 / 한국한의학진흥원 연구원

"한약성분만 추출해서 복용량도 줄이고 휴대성도 간편하게, 모든 면에서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형 개발을 함으로써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보 등재를 통해 국민이 좀 더 저렴하고 값싼 한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한쪽에서는 한약재에서 필요한 성분만 추출하는 공정이 이어집니다.



한약제제의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한의학 소재은행에는 이곳에서 개발한 기능성 한방바이오 재료가 보관되었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에 분양돼 한의신약 개발에 쓰입니다.

"과거에 한약이라고 하면 이런 기구에 갈아 첩약으로 포장된 것을 아마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는 짜 먹는 약이나 알약 형태로 시중에 판매됩니다. 이곳 한의약진흥원에서 이렇게 개발한 27개 한약 제제가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습니다."

한의학 건보 적용 확대로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근거 중심 연구와 임상 시험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응세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만성질환으로 대두 되고 있는 30개 질환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서 국민 모두가 어떤 질환이 오더라도 저렴한 비용과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치료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고려해 한의학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 영상편집: 최아람)

한방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와 표준화 작업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인, 이해진입니다.

월간 인물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

보도일자
2019년 11월 21일(목)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제9차 한의학 보건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는 '한의학, 국가 전략산업 육성 방안', '한의학산업 혁신성장 전략방안 연구 제안', '한약재 안전체계 강화', '한의학 첨단산업화 임상 R&D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의학산업 우수인력 양성' 등의 혁신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그간 진흥원의 노력과 이번 토론회를 발판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한의학 산업 혁신성장 추진 전략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그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제제생산센터(GMP)와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등의 한의학 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이는 한의학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로서 지난 11월부터 한의학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학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2월호 보건복지부 특집을 맞이해 국내 한의학의 과학화 및 산업화, 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부 정책과 이응세 원장의 비전을 전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Q.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이응세입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학 산업 분야 선도 기관으로서 '한의학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라는 목표 아래 본원인 경북 경산과 대구 품질인증센터를 필두로 전남 장흥 한약 자원개발본부, 서울 정책본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을 두고 있으며, 본부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 성과들은 연조엑스, 캡슐 등 다양한 한약 제형을 개발해 복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약침의 제조공정을 규격화했습니다. 또한 한약재 재배부터 관리,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했고, 지표성분 시험법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확산하기 위해 한약제제 보험 급여화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청년인턴 채용, 장애인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위한 전환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 취임하신지 700여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칭기스칸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의약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 그리고 한의약 세계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임직원과 함께 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의약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며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국내 유일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자존감 확보 및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여 전문성을 높은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관의 미션과 비전 구현에 적합하고, 세계 한의약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속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업무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통측 미팅을 통한 소통문화를 정착했으며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기관 경영을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뜻 깊은 해입니다. 이제 기관 업무 범위를 한약으로 국한하지 않고 의료기기, 의료행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장하며 한의약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5000년 민족의학인 한의약이 새로운 100년을 여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발판삼아 전문성, 혁신, 상상, 협력, 신뢰를 핵심가치로 국민건강 증진과 국부창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국민들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료인 한약재 표준화를 비롯해 한약 제제의 표준화와 현대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인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국민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우수 한약제제 연구개발을 통한 보장성 강화, 토종자원 기원감별법 개발, 물적·지적 재산권 보호 외 여러 전문 지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산업을 촉진하고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의약은 전통적인 진료 차원을 넘어 미래 국가전략 산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국익을 창출할 다양한 한의약 상품을 개발하고, 한의약 산업육성의 토대가 될 한약제제생산센터(GMP)와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의약이 세계시장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화 전략을 짜고, 관련 법률과 정책 개발, 글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남북 한의학 교류를 위한 정책 포럼,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국제 심포지엄, 국제 전통의학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 홍콩·러시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 한의약 제품의 해외진출까지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Q. 원장님께서 취임 당시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등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기관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각국이 전통의약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전통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입니다. 저희 기관은 한약재 소재 발굴, 다양한 제형의 한의약 개발, 그리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임상시험 등을 통해 한약의 치료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사업을 통해 나온 성과들을 해외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우수한 한의 기술과 제품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각국 정보 제공과 기업컨설팅 등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의료로서 한의약 가치를 브랜드화하고 국가별 의료 환경과 문화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한의약만의 차별성을 갖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국제 인지도를 높여 한의약이 세계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은 한의 진료를 비용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청구되는 치료를 받고, 보험한약을 처방받으면 진료비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 복용과 휴대가 간편하고 효과가 있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루약으로 나오던 보험한약을 연조엑스(농축액)나 정제(알약) 형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아직은 보험한약이 56개 처방(단미엑스혼합제)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기준처방 개선으로 보장성 확대가 중요한 상황인데, 저희 기관에서는 그 기초 작업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강점을 갖고 있는 고혈압, 치매, 알레르기성 비염, 화병, 편두통 같은 30개 질환의 근거중심 연구와 임상실험을 시행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사에게 표준화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의의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앞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멀리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만큼 소통, 상상, 협력, 융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의약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과의 다양한 ‘융합연구’ 또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이 잘하는 분야와 다른 기관이 잘하는 분야가 만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기관은 국립암센터와 한·양방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로부터 유래된 단일 성분을 이용해 암 전이 및 악성화 억제 치료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암모델을 이용하여 한의약 소재로부터 새로운 항암소재를 개발 중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한약제제가 지속적으로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국가 기관인 한국한의학진흥원과 국립암센터의 융합연구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 등을 수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의약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한의학진흥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자생한방병원, 청원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의학 세계화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저희 기관은 사업 대표기관을 담당하며 한의약의 오랜 경험을 외국의료인, 의대(병원) 등에 전해주고,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한의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는 외국인 한의학 연수, 해외 의대(병원)와의 한의약교육 업무협약 체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 대상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기획, 강사진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 합니다. 저희 기관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한의사와 한의약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 의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의약이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끝으로 국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는 한의학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기본 임무에서 나아가 국가 산업에 도움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의약은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 질환 증가와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전통의약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시장 선점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lobal Industry Analysts(GIA)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학 시장규모는 2015년 135조 원에서 2020년 182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의약은 세계 시장에서 4%대 점유율로, 한의학분야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해외진출 사업을 통해 한의약이 세계 제일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예진 기자



“국내 시장 넘어 세계무대로 한의학 위세 떨칠 원년”

보도일자
2020년 1월 1일(수)

존경하는 민족의학신문 애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쥐띠의 해 경자년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민족의학신문은 한의학의 학술적 가치와 효용성의 재조명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민족의학의 미래를 제시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세계화와 인류복지의 증진 및 문화시대의 창조’라는 가치아래 시대를 선도하는 분석과 대안, 소신으로 올바른 보건정책과 여론형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민족의학신문이 독보적인 민족의학 매체로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해온 것처럼 한국한의학진흥원 또한 지난 2019년은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한 뜻 깊은 해였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목표로 새롭게 출범하여 우수 한약자원 관리 및 보급, 근거중심 연구와 임상실험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로 한의의료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신뢰도를 높이는 등 크고 작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약제제 생산시설 GMP센터와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GLP센터를 잇달아 준공하며 한의학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의약 표준화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20년 새해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한의약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무대로 위세를 떨칠 원년이 되는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의학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의사 해외진출 지원, 국제 컨퍼런스는 물론, 전 세계에 한의학 정기 강좌 및 연수를 개최해 해외 인력을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새해에도 한의학 산업 육성 선도 기관으로서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사명감을 잊지 않고 만성·난치 질환 치료를 위한 한의신약 개발 및 공공의료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기관 경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족의학신문의 신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유익하고 알찬 지면으로 변함없이 사랑받는 정론지로 발전해나가길 기원합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응세 원장

한 의 신 문
akomnews.com

한의학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비상(飛上) 준비

보도일자
2020년 1월 1일(수)

존경하는 한의신문 애독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가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가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한의신문은 1967년 창간 이래 유용한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한의계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의신문의 공이 지대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한의학 전반의 소식과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며 국민에게 열린 창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학진흥원 또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사명감을 잃지 않고 한의학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라는 목표로 5천년 역사의 한의학이 새로운 100년을 여는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구축한 한약제제생산센터(GMP)와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를 기반으로 올해는 근거중심 연구와 임상실험으로 한의학 기술 과학화·표준화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한약자원 관리·보급, 유통 선진화, 고품질 한약제제 현대화, 한의학 소재 및 신약 연구 등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장성 강화로 한의의료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신뢰도는 더욱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제 한의학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각국은 시장 선점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발맞춰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우리 한의약을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의사 해외진출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해외 정기 강좌 및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약을 세계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한의신문 신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의학 가치 제고와 한의학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유익하고 알찬 신문으로 변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응세 원장



내일신문

"공급자 아닌 국민이 치료 결정권 가져야"

보도일자
2020년 7월 2일(목)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취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6월 29일 이응세(58) 한국한의학진흥원장 인터뷰 당시 보건복지부가 한방 취약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 원장은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이 치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며 예들려 표현했지만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읽혀졌다. 이 원장과의 인터뷰는 6월 29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한국한의학진흥원(진흥원) 서울 정책본부에서 이뤄졌다.



Q. 취약 급여화를 둘러싼 현장의 갈등이 첨예하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다. 국가승인통계인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을 복용하고 싶은데(78.9%), 한약 값이 비싸서(44.3%) 복용을 꺼린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취약 급여화는 국민들이 한약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취약 급여화에 따라 질환별로 자주 사용하는(다빈도) 처방에 대한 위해물질 모니터링과 독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약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탕약현대화 사업과 한약비임상시험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개발한다. 고혈압, 치매,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30개 질환의 근거중심 연구와 임상실험을 시행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사에게 표준화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Q. 의약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의 과학화, 균질화 등을 추진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의계 편익을 위한 조치라는 시선이 있다.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게 더 편한지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반드시 한의학일 필요도, 양의학일 이유도 없다. 선택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정보의 우위가 국민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의료시스템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 한의학 혹은 양의학 등이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는 소비자가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통의학 육성은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GIA)'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는 약 185조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학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학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다.

Q.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중의약에 비해 낮은 인지도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미비, 한의약 산업 규모화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한의약의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의약과 차별화된 한의약의 정체성 확립,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한의약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혁신적인 한의약 개발과 각국 의료 환경과 문화에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각국이 전통의학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과학화와 표준화다. 우리 기관은 한약재 소재 발굴, 다양한 제형의 한의약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임상시험 등을 통해 한약의 치료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표준화하고 있다.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사업을 통해 나온 성과들을 해외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 알리며 우수한 한의 기술과 제품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정보 제공과 기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Q.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서양 의학에서 주로 처방하는 화학 합성 약품과 달리 한의약은 한 가지 약물이 아니라 해도 수천, 수만 성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그 기전을 온전히 예측하고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함유량이 높은 물질을 기준으로 연구하고 기전을 설명해야 한다. 대신 수천 년 동안 생활 속에서 사용해온 임상경험과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고문헌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해나가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원료인 한약재 표준화를 비롯해 한약 제제의 표준화와 현대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인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한약제제 생산센터(GMP)와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한약제제현대화(약효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약제제의 주요 흡수성분의 혈중 약물거동을 조사하여 의약품으로서 한약제제의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고 있다. 다빈도 한약제제 주요 성분 15품목에 대한 약동학(★) 정보를 확보했다. 또한 한약제제 사용 확대를 위해 한약과 양약을 실험동물에 병용투여 했을 때의 약동학적 흡수변화를 추적, 182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50여건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30여건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는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약물상호작용 임상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Q. 중국산 ‘이엽우피소’가 백수로 둔갑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한약재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

우수 한약 확보는 의약품 수준의 균일하고 뛰어난 품질과 농약 및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며 이력관리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서부터 출발한다. 진흥원에서는 의약품용 표준 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양질의 한약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표

준재배와 생산지집을 마련하는 등 한약재 생산 기반을 조성 중이다. 특히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기원이 확실하고 발아율이 높은 종자를 전국 한약재 재배 농가에 보급해 재배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5개(평창 안동 진안 화순 제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꾸려 한약재 생산과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Q. 양방과 한방의 융합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립암센터와 양한방 융합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 진척 상황은.

2018년부터 국립암센터와 한의약 소재로부터 새로운 항암소재를 개발하는 중이다. 한의약소재 및 한의약소재 유래 천연물의 항암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양방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 여러 암 관련 기전에서 효능을 갖는 후보물질을 선별하고 표적암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안전성 평가와 함께 검토해왔다. 그 결과, 후보물질 940종 가운데 항암효능을 갖는 유효소재 26종을 발굴했다. 국립암센터와 양한방 융합연구 외에도 삶의 질 개선 관점에서 새로운 한의약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한약재들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항혈전(★) 및 여성갱년기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 소재를 개발해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이전, 새로운 한약제제를 제품화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 한의약소재은행이 보유한 단일 천연물 1500여종과 한약재 발효소재 8000여종을 이용해 중국중의과학원(★)과 코로나19 감염 및 예방을 위한 한의약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용어설명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3일 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7월말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한다. 연간 500억원 이내의 재정이 투입, 3년간 실시한다. 1년에 10일분 첩약 한제에 대해 절반은 환자가 나머지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 약동학 = 생체에 투여한 약물이 체내 인자들에 의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항혈전 =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동맥 혈전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중의과학원 = 1955년 설립, 중의학 분야 종합 연구기관이다. 2015년 중국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투유유 교수는 중의학과 현대 의학을 접목해 약초 '개똥쑥'에서 항말라리아제 성분인 아르테미시닌을 발견했다.

김아영 기자



"한의약산업 진흥 위해 달려온 3년 시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보도일자
2020년 11월 5일(목)

지난 2017년 한약진흥재단 원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해 새롭게 발족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초대원장으로 활동해온 이응세 원장. 그는 오는 23일부로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예정이다. 퇴임을 앞둔 이 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소회와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지난 3년 동안 한약진흥재단의 마지막 원장이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초대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그 동안의 소회가 궁금하다.

3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내야 하는 경영평가나 국정감사 등 1년 동안의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 있었다. 그렇기에 처음 취임할 때부터 임기동안 진흥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의약산업을 진흥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겠다는 것이 취임 초기 목표이자 한의약진흥원의 비전이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Q. 그동안 어떤 성과를 이뤘나.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자평하자면.
우선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한의약진흥원을 출범한 일을 언급하고 싶다.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2004년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시행령에 의해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의약진흥원이 출범하면서 한약으로 국한되어 있던 업무범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었고,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또, 한의약진흥원은 한의계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한의사를 비롯해 특정 직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한의약의 과학화를 통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한의약 3대 공공인프라 중 두 곳인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한약제제생산센터(GMP)에 착수했고, 올해 완공됐다. 지난 9월에는 식약처의 GMP와 GLP 인증서를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WHO 전통의약 협력센터 신규지정을 앞두고 있다. 한의약진흥원의 유기적인 국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협력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WHO 전통의약 협력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WHO와 주기적으로 협력을 했다는 기록이 필요하기에 취임 초기부터 이를 준비해왔고, 2년이 되자마자 협력센터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마무리단계다.



이외에도 한의약진흥원의 조직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등 5개의 신규사업을 유치했으며, 토종 한약자원 유전자분석 신기술을 개발해 산업화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는 외부의 평가가 더 정확할 것 같다. 보건복지부의 경영평가에서 한의약진흥원은 지난해와 올해 B등급을 유지했고, 개인 리더십분야 평가에서는 3위를 기록하는 성과가 있었다. 나 스스로는 지금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Q. 반면 임기동안 해내지 못해 아쉬운 일이 있다면.

공공기관의 업무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 동시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산업현장의 의료기기 및 한의약 관련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술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에 편드를 조성해 인력을 지원하는 식의 시스템을 갖췄지만 우리는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줬고, 이를 기반으로 서서히 준비해나간다면 후일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Q. 한의약 산업 진흥을 위해 활동해왔는데, 한의약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통의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만 예외적으로 답보 상황에 있다. 이는 산업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의계에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국내의 훌륭한 인력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기관의 힘이 필요하다. 한의약진흥원이 기관으로서 이를 지원한다면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Q. 퇴임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다. 우선은 쉬고 싶다. 한의계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나서겠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다. 우선은 임기 마지막까지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Q. 한의약진흥원 직원과 차기 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약진흥원에서 일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덕분에 행복했고, 덕분에 내가 지지 않을 수 있었다. 200여명의 직원들 중에는 한의사 뿐 아니라 한약사, 화학자, 유전학자 등 다양한 직종이 분포되어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의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셈이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군이 많다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고 감사하다.

한의학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한의학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이 철학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 차기 원장 역시 이를 가장 중요시했으면 한다. 기관의 행보에 있어서 선택은 한의학 산업 진흥이라는 이 철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의학진흥원의 미션과 비전을 완수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주었으면 한다.

박숙현 기자